중국 동북해방 전쟁을 도와



중국 동북해방 전쟁을 도와

조선•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강건

주체35(1946)년 4월 하순

책을 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사는 흔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군 하지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바친 위인들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력사의 갈피에 맥맥히 살아 빛을 뿌리는 법이다.

194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 처음으로 높이 휘날린 오성홍기, 중국인민이 공산당의 령도밑에 이 오성홍기를 날리며 이룩한 성과와 승리는 매우 크다. 이를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은 중국공산당이 광활한 동북대지를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국제주의적모범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을 위해 불면불휴의 분망하신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중국혁명을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시였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다.

우리 력사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혁명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위업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이 반드시 후세에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세기 40년대 후반기 중국공산당을 도와준 력사적사실들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에서는 중국혁명을 헌신적으로 도와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국의 전우들과 함께 중국 동북해방전쟁승리를 위하여 피흘려 싸운 조선인부대들의 투쟁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다.

주체97(2008)년 11월

필 자

차 례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시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되였지만 우리의 린방인 중국땅에서는 장개석이 미제를 등에 업고 새로운 국내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중국공산주의자들은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중국혁명을 조선혁명처럼 생각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쏘련 하바롭스크 북야영에서 중국 동북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을 파견하며 긴박한 중국 동북정세에 대처하여 중국혁명을 도와줄데 대한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그곳에 집결되여 훈련을 진행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이 해방된 조국으로가 아니라 또다시 싸움터인 중국 동북지방으로 파견되게 되였다.

20세기 중엽의 동북지구

중국 동북지방은 자연경제적조건이 유리한 지대이다.

그곳에는 높은 산악지대와 비옥한 농토가 펼쳐져있다. 산지에는 홍송, 백송, 가문비나무 등 경제적가치가 높은 수십종의 용재림들이 있고 산삼, 단삼, 단너삼을 비롯한 수백여종의 약용식물들과 송이버섯 등 백여종의 산나물과 산열매들이 자라고있으며 검은담비와 수달, 동북범 등을 비롯한 포유동물들과 꿩을 비롯한 여러 종의 조류들, 담수어들도 많다. 지하자원도 많아 금, 연, 아연 등 금속광물자원이 100여종이나 있고 1940년대 중엽에는 공업도 일정하게 갖추어져 강철과 기계설비, 석탄생산량은 전국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는 전국의 9～10％를 차지하였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일정한 경제력이 갖추어져있어 이곳을 중국의 《노란자위》라고 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오래전부터 중국 동북지방을 넘겨다보고 침을 흘리다가 끝내 1931년에 《9.18사변》을 조작하고 여기에 괴뢰《만주국》을 세우게 된 까닭도 군사전략적의의와 함께 이 《노란자위》를 삼키기 위해서였던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14년만에 패망했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중국의 동북지방(이하 동북지방으로 략함)인민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동북의 인민들은 갖은 악행으로 인민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마구 략탈하던 일본제국주의가 망했으니 이제는 새세상,

인민의 세상이 오리라 믿었던것이다. 그러나 동북땅에는 새로운 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왔다. 그 장본인은 미제였다.

미제는 중국을 아시아의 중요한 반쏘, 반공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이 패망하기 전부터 장개석에게 60억US＄의 군사적《원조》를 주고 국민당군대를 반공의 돌격대로 준비시켰다. 미제의 방조밑에 일본의 패망을 전후한 시기 국민당군대는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106개 사단에 200여만명의 대군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군사고문들까지 들어와 이들을 훈련시키느라고 열을 올렸다. 장개석군대는 보병만이 아니라 공군, 해군도 다 갖추었다.

여기에《중쏘우호동맹조약》까지 체결되여 장개석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였다.

※ 장개석은 국민당행정부 행정원장 송자문과 외교부장 왕세걸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1945년 8월 14일에《중쏘우호동맹조약》을 맺게 하였다. 이 조약은 8월 26일부터 정식 공포발효되였다.

이 조약은 쏘련외무상 몰로또브와 국민당 외교부장 왕세걸이 수표하였는데 쏘, 미, 영수뇌자들이 얄따회담에서 비밀리에 약속한 내용을 기본틀거리로 하고있었다.

조약은 평화회복후 호상 주권 및 령토보호를 존중하고 내정불간섭을 준수한다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제기하고 조약의 유효기간을 30년간으로 설정하였다.

같은날 쌍방은 동북지방과 관련한 협정문건에 조인하였다.

쏘련은 괴뢰《만주국》(동북3성)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만주에서의 국민당정부의 완전한 주권행사를 존중한다고

하였으며 중국의 국민당측은 대련에서 쏘련의 리익을 보호하고 대련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하는데 동의하고 장춘철도는 중쏘가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것으로 하였다.

조약에는 일본의 항복후 동북지방에서 쏘련군대는 3개월만에 철수하기로 되여있었다.

조약이 이렇게 중국의 장개석측과 쏘련사이에 맺어지게 된것은 그때까지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던 시기였고 대외적으로는 장개석이 통치하는 중화민국이 합법적정권으로 행세하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 장개석은 이전부터 노리고있던 중국동북지방을 몽땅 제 손아귀에 넣기 위한 작전을 벌리였다. 장개석은 중국공산당과 평화담판을 제기하고 1945년 8월말부터 중경에서 담판을 벌려놓았다. 장개석은 평화담판의 막뒤에서 시간을 얻어 이전에 일본군에 쫓기여 서남, 서북 등 각 성들에 피신하여있던 자기의 무력을 화동(산동성, 강소성, 안휘성, 절강성, 복건성), 화북(하북성, 산서성, 수원성), 동북(길림성, 료녕성, 흑룡강성)지방으로 급속히 이동시켜 큰 도시와 철도들을 다 장악하였다. 특히 동북지방에는 빈수도가(할빈, 수분하, 도문, 가목사) 당무전원으로 후전곤을 파견하고 사문동에게 국민당중앙선견군 보안총사령이라는 임명장을 주게 하였다.

사문동은 항일전쟁시기 동북민주의용군 총사령으로 있었고 그후 동북항일련군 8군장을 하다가 1938년 일제에게 투항한자였다. 그리고 이전에 항일련군 9군장을 하다가 1938년에 변절한 리화당을 동북정진군 1집단군 사령관, 동북 제6로군 보국군 제5사 사단장, 신27군 8사 사단장으로 임명하였고

마희산을 동북정진군 1려단 려단장으로, 정운봉을 국민당 동북정진군 총사령으로, 남만지방에는 산상호를, 동만에는 반일부대 련대장을 하다 투항하여 술장사를 하고있던자를 그 지방의 토비부대 려단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장개석은 국민당조직을 내오기 위하여 남만에서 활동하던 마영산을 연변지방의 국민당대표로 파견하였고 일본관동군 제125사단 참모장을 하던 후지다와 련계를 가지고 일제패잔병들을 끌어들여 공산당을 공격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국민당군은 패망한 일제침략군이 가지고있던 모든 무기와 군수물자, 철도, 항만 그리고 큰 도시들과 중요한 군사전략상 요충지들을 다 차지하기 위하여 물밀듯이 동북땅으로 쓸어들었으며 일제의 특무망까지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 장개석군대는 430만대군으로 늘어났고 중국 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주민지역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중국공산당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장강이북의 산서성,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일대의 농촌지역들에 해방지구를 꾸리였는데 그 주민수는 불과 중국인구의 30％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장개석이 몽땅 먹어치우자고 덤벼든 동북지방에서 중국공산당조직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파괴되였던 상태에서 미처 복구되지도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군대는 보병밖에 없었으며 보병도 그 무장장비수준이 좋지 못하였다.

수적으로나 기술장비수준에서 비할바없이 우월한 국민당군대와의 싸움은 공산당군대에 있어서 어려운 시련으로 되였다.

동북땅을 둘러싼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는것은 차후

중국의 정치정세와 아시아의 정치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첨예한 문제였다.

조선과 쏘련, 몽골과 린접하여있는 동북지방을 공산당이 차지하면 이미 가지고있던 해방지구와 동북지방을 련결하고 그에 의거해서 장개석군대를 격파할수 있고 우리 나라나 쏘련에도 유리하게 되지만 만일 장개석군대가 차지하게 되면 중국공산당군대가 동북과 남쪽에서 협공을 받을수 있고 동북지방이 반쏘, 반공기지로 되여 아시아의 정치정세발전에도 불리하게 될것이였다. 따라서 중국 동북땅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대결장으로 되였다.

당시에는 그 어느 나라도, 그 누구도 이 싸움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 쏘련은 얄따협정을 준수해야 하였고 제2차세계대전시기 련합국으로 되여있던 중화민국과의 관계도 나쁘게 할수 없었기때문에 중국공산당을 도와줄수 없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동북지방의 엄중한 정세를 통찰하시고 중국공산당의 위업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으로 개선하시기에 앞서 전반적중국정세와 그 변화추이를 내다보시고 장차 벌어질 동북해방전쟁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교시를 하시였던것이다.

지원의 대용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중국 동북지방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어려운 정황을 그저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일찌부터 정의와 진보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국경과 민족을 가림없이 한형제로 여기시고 그들의 위업을 끝까지 도와주신 진정한 국제주의자이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동북지방에서 조중공동항일위업을 위해 싸워오신 의리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동북해방위업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의무로 간주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의 우리 동포들이 장개석도당의 억압과 착취밑에 또다시 신음해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수 없으시였다.

동북지방은 위대한 수령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고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고향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을 건느시여 중국 동북땅으로 가시였다. 강도 일제가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모진 박해를 가하였기때문에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기 위하여 산설고 물설은 이역땅으로 가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투쟁무대를 동북으로 옮기신 후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정력적으로 혁명투쟁을 하시다가 일찌기 서거하시고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들의 뜻을 이어 백두산을 거점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드시며 일제와 싸우시였다.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사선을 넘고넘으시였고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동북산야에 묻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동북땅에 살고있는 조중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찌산장군이 되시여 우리 나라와 중국 동북산야를 주름잡으시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이런 연고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땅을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패망하기 전부터 중국의 정치정세변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 방송의 보도와 소부대정치공작원들과 중국전우들의 통보자료를 통하여 장차 중국땅에서 장개석에 의하여 국내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간파하시고 주체34(1945)년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직접 동북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중국혁명을 성심성의로 도와줄데 대한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였는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을 조국에 내보내지 않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다시 보내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일제가 예상외로 빨리 무조건항복한것으로 하여 중국 동북지방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여진것과 관련된다고 하시면서 동북지방에는 일본군패잔병들과 만주괴뢰군잔여세력, 토호들과 토비들을 비롯한 반혁명적무장세력이 련합하여 혁명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있으며 장개석도당은

중국 동북지방을 차지하려고 로골적으로 획책하고있으므로 동북지방에 대하여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동북지방에 쏘련군대가 주둔하고있기때문에 국민당세력이 공개적으로 준동하지 못하지만 쏘련군대가 철수하고 국민당세력이 동북지방을 깔고앉게 되면 그곳이 중국혁명위업에 큰 위협으로 되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나아가서 조선혁명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조선혁명가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나가 활동하는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맺어진 조중인민의 혈연적뉴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신성한 의무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사람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선혁명가들을 잘 알고있으며 오늘도 조선혁명가들이 빨리 나와 자기들의 사업을 도와줄것을 고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동북지방의 200여만명의 조선사람중에 국민당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혁명군중이 수십만명이 되므로 동북지방에는 로동자, 농민의 인민정부를 세울수 있는 군중적토대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지난날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며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나가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38° 선 남쪽에 주둔하게 되여있는 미국이 중국에서는 장개석

을 사촉하여 내란을 도발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을 없애버리고 조선에서는 자기들의 주구를 내세워 괴뢰정권을 세우며 일본에서는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킴으로써 아시아에 강력한 반공반쏘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책동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해방은 되였으나 다시금 미제의 식민지로 되느냐 아니면 남북으로 분렬되느냐 하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때문에 쏘련군대가 주둔하고있는 우리 나라 38° 선 이북지역을 믿음직한 혁명기지로 꾸리는 한편 중국 동북지방도 혁명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는것은 그들이 현대전의 경험을 체득하게 하자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북지방의 청장년들로 혁명무력을 꾸리고 그들을 실전을 통하여 군사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것은 민족군대의 골간을 육성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처럼 중국 동북지방이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때문에 그곳 정세와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알며 반일혁명투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을 그 지방에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이 동북지방에 나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중국혁명의 승리를 그만큼 앞당길수 있으며 우리 나라 혁명에도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동무들의 사업은 강건이 책임지고 연길에 주재하고 지도하며 왕청현에는 최명석(최광), 화룡현에는 박락권, 룡정시에는 공정수가 책임지고 나가 그곳 쏘련군사령부에 들어가 활동하도록

하며 최석천(최용건)은 주보중과 함께 장춘지방으로 나가 중국공산당과의 련계밑에 조선사람들의 당적문제와 국적문제, 귀국보장문제, 이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줄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길림지방에 가서 조선인부대를 조직하도록 대책을 취하고 조국으로 돌아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견지에 가서 사업하되 강건은 최린으로, 최명석(최광)은 최운경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증명서를 내도록 하며 동북지방에 나가 일본군과 만주괴뢰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께서 주신 지시를 집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공산당과의 련계밑에 동북지방의 실정을 잘 고려하여 당조직을 내오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혁명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층당조직이 아직 없는 곳에 당조직들을 내오는 동시에 당장성사업을 잘하여 혁명성이 강한 로동자, 농민들과 선진적인 사람들로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지방당조직들이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는 규률을 확립하게 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목



강 건 (강신태)

주체7(1918)년 6월 23일 출생. 해방전 중국 녕안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연길현에 파견되여 길동분구사령부 사령원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보안간부훈련소 소장,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39(1950)년 9월 8일 전사. 항일혁명렬사임.



최 광 (최명석, 최운경)

주체6(1917)년 7월 17일 출생. 해방전 중국 왕청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왕청현에 파견되여 길동분구사령부 야전군의 2련대장, 보안대의 3련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86(1997)년 2월 21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을 돌리며 간도지방에 1만～2만명의 정규무력을 그해중에 잘 꾸려놓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혁명무력의 조직체계는 우선 연길에 길동보안사령부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자기지방을 보위하기 위한 보안대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들의 대부대공격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야전군을 조직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잘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져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말과 1940년대초에 마치도 파쑈도이췰란드와 일본이 세계를 모두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드는것처럼 보였지만 그후 불과 4～5년만에 망했다고 하시면서 대일전쟁행정에서 그의 무능력과 매국배족적행동이 여지없이 폭로된 장개석국민당세력은 멸망직전에 놓여있으므로 100만의 국민당군대가 동북에 밀려들어온다고 하여도 무서울것이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조선인민혁명군은 지난날 얼마 되지 않는 력량으로 《무적황군》이라고 자랑하던 일제의 100만관동

군과 싸워이겼는데 장개석군대쯤이야 그 력량이 좀 많다고 한들 두려워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택동동지의 지도를 받는 팔로군은 일제침략군과 장개석군대의 끊임없는 공격속에서도 백수십만의 대군으로 자라났지만 중국관내에서 혁명근거지를 사수하는 문제가 더 큰 과업으로 나서고있기때문에 동북지방에까지 자기의 세력을 뻗치지 못하고있으며 중국 동북지방의 기본력량은 주보중의 항일련군밖에 없는 조건에서 주동적으로 부대를 조직하고 국민당군대와의 전쟁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국 동북지방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파견지에 떠나기에 앞서 제시된 과업을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첫시작부터 계획된 방향대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 동북지방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을 파견해주시고 중국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사심없는 지원을 주신것은 중국공산당의 군대에 있어서 국가의 정규무력의 지원과 맞먹는 중요한 역할로 되였다.

옛날부터 동정하기는 쉽지만 도와주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파 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얼마전에 있은 회의에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할데 대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패망한 직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시였다.

최용건을 비롯한 일부 지휘성원들이 첫 파견원으로 현지로 출발하였고 이어 강건을 책임자로 하여 수많은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대원들이 동북지방에 파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에게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동북지방을 수호하는것은 중국혁명승리를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항일전쟁승리후 동북지방은 중국혁명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놓이게 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지방에는 지금 쏘련군대가 주둔함으로써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사회정치적조건이 조성되여있고 이 지방의 자연경제적조건도 유리하므로 중국공산당이 이 지방을 차지하게 되면 중국인민들

의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조선혁명과 중국 동북지방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기도 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 해야 할 사업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우선 파견지에 들어가 무장대오를 조직하는 사업을 적극 방조하며 항일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중인민들의 우수한 청년들로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각곳에서 분산적으로 조직되여 활동하는 인민무장대들을 거기에 인입시켜 짧은 기간에 무장대오를 급속히 확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동북지방에 중국인민들의 민주주의적정권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당이 통제하는 반동적인 정권이 수립될수 있으므로 국민당정부가 동북지방의 행정권을 《접수》하기 전에 각 지방에 인민들의 의사에 맞는 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도록 중국인민들을 잘 도와주며 정권기관들이 무장대오를 비롯한 모든 민주력량을 동원하여 사회질서교란자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토호들과 토비들, 일본군대패잔병들과 만주괴뢰군잔여세력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도록 적극 방조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공산당지방조직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 아직 공산당조직이 없는 곳에 당조직을 내오는 동시에 당장성사업을 잘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우수한 분자들로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대중단체조직

사업을 잘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매 지방의 구체적실정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민주력량을 단결시키기 위한 통일전선결성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을 다 묶어세우며 정당, 사회단체와 민족적차이를 초월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주력량을 망라할수 있는 《민주대동맹》과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내오며 통일전선사업에서 공산당원들이 주동적역할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투쟁하면서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각계각층의 민주력량과 동요하는 계층들까지도 다 통일전선에 망라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한편 통일전선내에 반동분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각성을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중인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중인민은 지금까지 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는데 지금 원쑤들의 리간책동에 의해 조중인민들의 단결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으므로 적들의 간계를 가려보지 못하고 민족적감정을 앞세우면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원쑤들의 리간책동에 말려들수 있기때문에 어떤 정황에서도 조중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언행을 일체 삼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에게 조중인민은 다같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투쟁을 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속에서 단결과 협조의 기풍이 적극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항일유격대의 구호는 항일무장투쟁시기뿐아니라 오늘도 래일도 혁명하는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지침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친숙하게 어울리며 그들에게 의거하여 자기 맡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동무들의 사업을 강건이 책임지고 지도하는것만큼 연길에 주재하는 강건에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집중시키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해당 지역의 쏘련군위수사령부와 중국공산당조직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자신의 마음같아서는 동무들을 다 데리고 조국땅에 나가 그리운 혈육들도 만나게 하고 새 조국건설에 참가시키고싶지만 동북정세가 험악해서 동무들을 또 싸움터로 보내는데 몸들을 조심하여 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과 대원들은 그리운 조국으로 달려가고싶은 마음들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동북해방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리라 마음다지며 9월 17일 연길시에 도착하여 다음날 각기 자기의 파견지로 떠나갔다.

연길에는 강건, 김만익, 박경숙, 룡정과 화룡에는 박락권, 공정수, 왕청에는 최광, 김양춘, 명월구에는 오죽순 등 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이 파견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대원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시였을뿐아니라 지난 시기 항일



김 만 익

주체6(1917)년 2월 19일 출생. 해방전 중국 왕청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길동분구사령부 군계과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39(1950)년 9월 8일 전사. 항일혁명렬사임.

무장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지에 있는 항일투사들과 중국 관내에서 동북으로 들어오는 무장대원들도 다 망라하여 함께 투쟁할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리하여 일본군패잔병, 위만군패잔병, 토호와 토비 그리고 국민당반동세력 등 각양각색의 반동무리들이 일제의 패망을 계기로 제멋대로 날치고있던 동북땅에 중국공산당의 혁명위업이 승리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여가게 되였다.

승리의 열쇠-혁명근거지 마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여가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게 동북해방전쟁에서 승리하자면 동북각지에 튼튼한 혁명근거지를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국가적후방이 없이 무장투쟁을 벌려나가자면 군대와 무장장비, 후방물자 등을 보장해주는 근거지를 꾸리는것이 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선다. 그러므로 혁명근거지를 어디에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동북지구에 꾸린 근거지는 동북해방전쟁 전기간 대단히 큰 은을 냈다. 동북해방전쟁승리의 비결의 하나는 미리 동북지구를 혁명근거지로 전변시킨데 있었다.

연 변 지 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연변지구에 튼튼한 혁명근거지를 꾸릴데 대한 교시는 유리한 이 지구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사회계급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었다.

연변지구는 N 41° 로부터 44° , E 127° 로부터 132° 사이에 위치하고있는 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쏘련의 연해주 하싼지구와 잇닿아있고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두고 우리 나라 함경북도와 마주하고있으며 서쪽은 중국 길림성의 교하, 화전, 무송현들과 접하고 북쪽은 중국 흑룡강성의 동녕, 녕안, 해림, 오상현들과 잇닿아있다.

연변지구 넓이는 현재 4만 2 700㎢로서 길림성 총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이 성의 동부에 자리잡고있다.

이 지구에는 조선족, 한족, 만족, 회족, 몽골족을 비롯하여 16개의 민족이 살고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민족이 조선족으로서 1984년 현재 75만 4 567명 즉 연변지구 총인구의 40.32%를 차지하고있었다.

연변지구의 땅은 서남과 서북, 동북쪽으로부터 동남쪽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져 훈춘일대는 매우 낮다. 연변지구에 있는 산지의 넓이는 3만 2 000㎢로서 이 지구 면적의 약 76%를 차지하고있다. 구불구불 기복을 이루고있는 이 산지들은 험준한 산으로 첩첩히 둘러져있으며 산과 산사이에는 크고작은 강들이 흐르고 산림이 무성하다.

연변지구에는 현재 2개의 도시인 연길시와 도문시가 있고 연길현, 화룡현, 훈춘현, 왕청현, 안도현, 돈화현 6개 현이 있는데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당시에는 돈화현이 연변에 속해 있지 않았다.

연길현의 소재지는 이전에는 연길시였고 1950년부터 룡정진으로 되였다. 이전에는《륙도구》,《룡드레촌》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훈춘현의 소재지는 훈춘진인데 이곳은 오랜 옛성으로서 옛날에는《대팔툰》이라고 불렀다.

1920년대 훈춘진은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 우리 나라 당시의 웅기와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훈춘진안에 크고 작은 상점만도 300여개나 있어 연변지구의 5개 통상지가운데서 제일 큰 통상지로 되여있었다. 당시 길림쪽으로 들어온 일본상품 총액보다 우리 나라를 거쳐 훈춘진으로 들어간 상품액이 36배나 되였으니 얼마나 상품교류가 번창하였는가를 알수 있다.

화룡현의 소재지는 화룡진이다. 원래 화룡현은 연길부에 속해있다가 1909년에 화룡현으로 되였다. 현소재지는 원래 대립자였다가 1940년에 삼도구 즉 오늘의 화룡진으로 옮겨왔다. 현소재지가 대립자로부터 삼도구로 옮겨오면서 그곳을 화룡이라고 이름을 고치였다.

왕청현의 소재지는 왕청진인데 이전에는《대두천》이라고 불렀다. 왕청현은 림업이 번창한 곳으로 이름났다.

안도현의 소재지는 1949년 6월까지는 송강진이고 그 이후부터는 명월구로 옮기였다. 송강진은 1909년부터 현소재지로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백두산아래의 첫 소도시로서 백두산유

람지의 중요통로이다.

연변지구에서 살아온 조선민족은 일찍부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1931년 9월 동북을 강점한 일제는 1934년 12월 여기에 괴뢰《간도성》을 세웠다. 《간도성》소재지는 연길에 두었으며 연길, 훈춘, 화룡, 왕청, 안도 5개 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1943년에 일제는 연길현 관할하에 있던 연길가를 《간도시》로 고치고 《간도성》의 직할시로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06～1907년경부터 연변지구에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여 1909년 9월에는《간도협약》을 체결하고 룡정에 일본총령사관을 설치하였으며 길회선철도부설권을 빼앗았고 동북땅에서 제세상처럼 날치기 시작하였다.

1920년 이후에는 일제가 연변지구의 연길, 화룡, 훈춘, 왕청 등 14개 지방에 경찰서, 경찰분서를 설치하고 친일단체들을 조작하였으며 돈화령사관분관을 세우고 침략의 마수를 돈화, 액목, 안도 등지에까지 뻗치였다.

그리하여 1930년 6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기간에만도 연변지구에서 일제에게 체포된 인원이 1 354명이나 되였다.

1931년《9.18사변》후 일제는 연변지구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일제는 연변지구에 관동군《수비대》,《헌병대》와 특무기관을 두었으며《협조회특별사업반》,《선무반》등 특무외곽조직을 내왔다. 또한 모든 반동들을 긁어모아《특설부대》,《자위단》을 조작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민족과 중국사람들사이에 리간을 조성시키기 위해 별의별짓을 다하였다. 특히 조선학교의 교과서

는 모두 일본말로 편찬하도록 하였고 조선아이들이 조선말과 글을 배우거나 쓰는것을 엄금하고 조선사람의 이름까지 일본이름으로 고치도록 강박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끊임없는 《토벌》을 감행하여 정든 고향에서도 살수 없어 중국땅에 찾아온 사람들까지도 집단적으로 무참히 살해하였고 마을들을 불살라버렸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는 법이다.

연변지구인민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중국땅에까지 마수를 뻗친 일제를 반대하여 일찌부터 투쟁하였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심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후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지도핵심들에 의하여 왕청, 연길, 화룡, 훈춘 등 동만의 여러 지역에서 먼저 항일무장대오들이 꾸려졌으며 뒤이어 전동북땅이 항일의 불도가니로 전변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연변지구인민들은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조직에 결속되였으며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족쳤다.

이렇게 조선사람들이 장구한 기간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였기에 연변지구 주민들의 혁명적각오가 아주 높았다.

지리적으로도 연변지구는 백두산으로부터 높고 험한 산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있고 밀림이 울창하여 적은 력량으로도 적들의 공격을 능히 막을수 있고 또 유격전과 대부대기

동전으로 적을 공격하기도 유리한 곳이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쏘련과 린접해있고 남만과 북만을 련결하는 지점에 놓여있으므로 연변지구는 교통상, 군사전략상으로도 중요하고 유리한 지점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변지구를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근거지로 선택하시였던것이다.

원래 중국공산당에서도 이 지구에 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여러가지 난관으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있었다.

1945년 11월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동북국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달하였다.

《우리가 전동북을 점령하려고 한 기도는 불가능한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동북지방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46년 1월 중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동북국에 보내는 전보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우리에게 근거지가 없으면 싸우기 어렵지만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근거지도 세울수 없다. 그러므로 병력을 분산하여 군중을 발동시키고 비적들을 숙청하며 근거지를 창설해야 하며 또 병력을 집중하여 적들의 공격을 타파함으로써 근거지창설을 엄호하여야 한다. 이 량자는 꼭 병진시켜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1946년에 들어와서 근거지창설의 첫발을 내디디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의도에 따라 주체34(1945)년 9월 동북지방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

은 벌써 그해 가을부터 근거지창설을 한창 다그치고있었다.

이렇게 연변지구에서 근거지창설을 미리 예견성있게 앞질러 진행했기때문에 이 근거지에 의거하여 파죽지세로 달려들던 국민당군대와 즉시 싸울수 있었고 또 싸워서 이길수 있었다. 만일 이때에 강력한 연변근거지를 미리 꾸리지 못하였더라면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는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달성할수 있었을것이다.

강력한 총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변근거지를 창설하는데서 무엇보다먼저 해야 할 일은 군대를 조직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반동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무장대오를 조직하는 사업을 적극 방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강력한 무장력량이 없이는 반동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무장대오는 항일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핵심으로 하고 조중인민들의 우수한 청년들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혁명근거지를 꾸리는것은 무장으로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거점을 꾸리는 사업이므로 총대를 떠난 혁명근거지란 있을수 없다. 적들과의 싸움뿐아니라 근거지에서의 당사업이나 정권건설, 경제사업 그리고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는 사업도 다 총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본질적요구와 오랜 기간

일제를 타승하는 싸움에서 얻으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동북에 파견된 군사정치간부들이 근거지무장대를 꾸리는 사업을 적극 방조하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두시였다.

당시 길동분구사령부 정치주임을 한 당천제는 그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동지들은 **김일성**주석동지의 훈교를 받들어 우리와 함께 연길에 강신태(강건)를 사령원으로 하는 길동보안사령부(그후 길동분구사령부로 개편)를 내오고 각 현과 중요지역에 우수한 지휘성원들을 파견하여 보안련대를 내왔는데 연길에서는 강사령이 직접 맡아 조직하고 룡정과 화룡에서는 박락권과 공정수, 왕청에서는 최명석(최광), 도문에서는 임철, 명월구에서는 오죽순이 각각 책임지고 조직편성하였던것이다.

일제가 항복한 후 비등된 혁명열을 타고 우후죽순과도 같이 각지의 경비무력이 급속히 장성했지만 특히 룡정보안련대는 초기 수백명으로부터 짧은 기간에 무려 3 000여명으로 늘어나 그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는 일제의 패망전부터 유격대에서 지도한 전윤필의 비밀지하조직성원들이 박락권의 지휘하에 맹활약으로 조선청년들을 각성발동시킨데 있었



오죽순

주체10(1921)년 2월 14일 출생. 해방전 중국 요하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명월구에 파견되여 인민자위대 중대장, 동북민주련군 156사 303련대의 대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63(1974)년 8월 21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으니 그때의 연변형세를 미리 통찰예견하신 **김일성**주석동지의 선견지명이 안아온 결실이 아닐수 없다.》

연변지구에서의 무장대조직은 도시들과 현들에서 경비대 혹은 보안대를 꾸리였다가 그것들을 통합하여 길동분구사령부를 내오는 과정을 거치였다.

강건은 연길에 도착하자 9월 19일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 군중집회를 열었다.

강건은 동북지방의 정세를 분석한 다음 조중인민들이 압박과 착취없는 새세상에서 살자면 당장 자기 손에 무장을 잡고 덤벼드는 원쑤놈들과 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대중단체의 지도일군들을 임명하고 각 조직들에서 무장대에 탄원하는 청장년들을 적극 도와줄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였다.

강건은 청년조직에 찾아가 청년들을 적극 발동시켜 며칠사이에 연길시내에서 30여명의 청년들로 경비소대를 조직하였다. 소대장은 남룡수였다. 이어서 강건은 연길시주변에서 탄원해온 청장년들로 경비중대를 조직하였다.

중대장은 최호림이였고 부중대장은 박창범(항일혁명투사)이였다.

각지에서 무장대에 입대하는 궐기모임들이 진행되고 청년들이 어깨에 총을 메고 다니는것이 연변지구의 하나의 풍경으로 되기까지 하였다.

당시 출판물자료에 의하면 1946년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의 사이에 연변 5개 현에서 3 659명이 입대하였는데 1946년 6월 연길 제2중학교에서만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은 한명을 제외한 졸업생전원이 입대하였다.

이 모범을 따라 연길과 다른 현들에서도 수천명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입대하였다. 이리하여 연길시의 탄원자들이 10월 10일경에는 대대력량으로, 11월 중순경에는 련대급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무장대를 꾸리자면 사람과 함께 무기가 있어야 하였다.

강건은 무장대성원들의 무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길에 주둔하고있는 쏘련군사령부와 협상하고 일본군에서 로획한 무기창고에서 2개 중대를 무장시킬수 있는 99식보병총을 가져왔다.

한편 일본군과 위만군패잔병들이 내던졌거나 숨긴 무기들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로획한 무기들을 땅에 파묻었던것을 이 시기에 파내여 무장대에서 리용하였다. 이리하여 11월에 연길시 보안련대가 조직되였다. 련대에는 3개 중대가 있었다.

련대장은 한범, 1중대장은 남룡수, 2중대장은 최태훈, 3중대장은 박창범이였다. 1개 중대에는 3개 소대가 있었다.

1945년말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 보안련대의 각 중대를 대대로 개편하였다. 련대장은 한범, 참모장은 최호림, 1대대장은 남룡수, 2대대장은 강위룡(항일혁명투사), 3대대장은 박창범(항일혁명투사)이였으며 3대대 정치지도원은 홍춘수(항일혁명투사), 8중대장은 한태룡(항일혁명투사)이였다.

강건은 보안련대의 무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다시 쏘련군사령부와 교섭하여 대홍구에 있는 패망한 일본군의 무기창고에 가서 두차례에 걸쳐 8대의 자동차에 99식보총과 중, 경기관총 20여정, 박격포 6문, 수십문의 척탄통 등을 가져다 대오를 무장시켰다.



박 창 범

주체4(1915)년 4월 18일 출생. 해방전 중국 연길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길동분구 연길보안련대 3대대장, 독립3련대 정찰참모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당시 사회안전부문에 근무, 주체92(2003)년 3월 2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강 위 룡

주체3(1914)년 5월 18일 출생. 해방전 중국 화룡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동북민주련군의 중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연길현 룡정시당 서기, 시장, 그후 조선로동당의 중앙당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사회안전성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주체90(2001)년 1월 3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홍 춘 수

1894년 2월 29일 출생. 해방전 중국 밀산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연변에서 경위련대 정치주임, 독립4련대 정치주임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광성영예군인학교 교장으로 사업하다가 주체56(1967)년 6월 12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보안련대가 조직되자 연길시내의 사회질서가 세워졌다.

일시 혼잡된 틈을 리용하여 국민당패거리들이 내붙였던 국민당간판도 없어지고 밤에 총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였다.

룡정시에서는 8.15전부터 전윤필이 조직하였던 룡정무장대(후에 룡정별동대)가 발전하여 1945년 11월 말경에는 룡정경비련대로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패망하기 전인 주체33(1944)년초 룡정지하혁명조직에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책임자 홍춘수를 파견하시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위한 조직사업을 직접 이끌어주시였으며 그후 이 조직에서 무장대를 꾸릴 준비가 되자 주체34(1945)년 7월에는 홍춘수, 박광선에게 무장부대를 어떻게 조직하며 일단 유사시에 그 대오를 어떻게 확장하며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선인들로 조직된 《룡정별동대》(1945년 8월)



전 윤 필

1906년 2월 17일 출생. 해방전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반일투쟁에 참가. 10여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주체34(1945)년 2월부터 중국 연길현 룡정에서 반일투쟁에 참가. 해방후 강건, 박락권과 함께 룡정에서 경비대 조직. 길동보안사령부 부사령원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시 내무성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60(1971)년 6월 19일 서거. 반일애국렬사임.

가르쳐주시고 룡정으로 또다시 파견하시였다.

룡정무장대는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는 결전에서 큰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일제패망후 새로운 정세가 조성된 시기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해주신 강건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지도밑에 자기 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이름을 별동대라고 한 후 《항장원화》의 길에 들어섰다. (《항장원화》란 장개석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중국인민을 돕는다는 뜻이다.)

룡정별동대인원은 처음에는 약 80명정도였으나 곧 500명으로 늘어났다. 별동대의 대장은 전윤필이였고 정치책임자는 정두환이였으며 참모부책임자는 김중산, 부대장은 김동우였다.

한편 룡정별동대의 대장 전윤필은 정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경비분대를 두었다. 이 경비분대에는 인원이 매우 많았다.

경비분대 분대장은 일제시기 경찰서 부서장을 하던자였고 부분대장은 별동대의 정치책임자 정두환이 겸임하였다. 정두환이 여기에 들어간 목적은 룡정공안국이 가지고있는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룡정별동대는 절반인원밖에 무장을 갖추지 못하고있었다.

8.15직후 국민당은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간의 리간을 조성시키고 조선사람들의 혁명적기세를 누르기 위해 반동적인 중국인지식인들과 일제시기 경찰에 복무하던자들, 룡정공안국에 복무하던자들을 규합하여 《치안유지대》라는것을 만들고 룡정시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정두환은 조선청년 40여명과 함께 경비분대에 들어가 분대장이란자와 련결되여있는《치안유지대》의 룡정공안국을 비롯하여 이자들의 무장조직이 가지고있는 무기들을 전부 탈취할 기회를 찾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강건일행이 연변지구에 도착하자 정두환은 이 사실을 그에게 보고하고 차후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놈들과 큰 무장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였다.

강건은 일이 이렇게 되자 비상대책을 취하였다. 그는 룡정시내에 있는 전체 무장성원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그 자리에는 《치안유지대》를 비롯한 반동단체의 무장대까지 다 모였다. 강건은 무장대를 다 정렬시켜놓고 모두에게 치안유지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옥신각신하고있다고 되게 다불러댄 다음 무장대오를 다시 조직하겠다고 선포하고 일체 무장을 해제하여 자동차에 싣고 연길로 떠나갔다.

이렇게 하여 반동들이 가지고있던 무장도 다 회수할수 있었다.

강건은 그날 저녁 연길에 가서 전화로 전윤필에게 자동차로 실어온 무기를 다 룡정별동대에서 가져가도록 지시하였다.

이튿날 전윤필은 연길에 가서 가지고온 무기를 룡정별동

대의 1 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나누어주고 룡정별동대의 이름을 룡정경비대로 고치였다. 룡정경비대는 박락권(항일혁명투사)의 지도밑에 치안유지와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숙청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지나 11월 말경에는 룡정경비대의 력량이 무려 3 000여명에 이르러 룡정경비련대로 발전하게 되였다. 룡정경비련대의 련대장은 전윤필이였고 정치책임자는 정두환, 정치부책임자는 최창은, 부련대장은 김동우, 참모장은 김중산, 1대대장은 김성룡, 2대대장은 박근춘, 3대대장은 리동무, 두도구중대장은 공정수였다.

왕청현에서는 그곳에 파견된 최운경(최광)이 보안련대를 조직하였다. 최광이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파견되여오기 전에 왕청의 반동들은 《적색청년단》이라는 반동단체를 조작하고 팔에 완장까지 끼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선전을 하면서 갖은 만행을 다하고있었다. 최광은 왕청에 도착한 후 이 사실을 료해하고 경비사령부의 이름으로 이 단체를 해산해버리고 보안련대를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항일투사가 와서 부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며칠사이에 수천명의 청년들이 자원해왔는데 그 수가 대단하



공 정 수

주체10(1921)년 9월 15일 출생. 해방전 중국 의란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룡정시에 파견되여 길동분구사령부 중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80(1991)년 11월 9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였다. 그들중에는 리순임이와 같이 나어린 처녀들도 있었다.

최광은 그들로 대대를 조직하고 곧 련대로 확대시켰다. 련대의 인원은 3 500명정도였다.

왕청보안련대 련대장은 최광, 참모장은 김영만, 1대대장은 김양춘(항일혁명투사), 2대대장은 최덕무(반일애국렬사), 3대대장은 박영춘이였다.

훈춘현에서는 남만우가 《보국대》로 끌려갔던 돈화, 교화지방의 청년 500명을 데리고 강건의 지시로 한창봉(항일혁명투사)과 함께 훈춘에 가서 거기에 있던 지병학(항일혁명투사)과 토의하고 훈춘보안련대를 조직하였다. 인원은 2 000명정도였다. 훈춘보안련대 련대장은 지병학, 정치위원은 한창봉, 정치주임은 전홍문, 참모장은 남만우였다.

화룡현에서는 지주 리영춘의 반혁명적책동으로 매우 간고하게 무장대를 조직하게 되였다.

화룡현에 파견된 박근식(반일애국렬사)과 남운학이 여기서 지하혁명활동을 하던 김창일, 최운학, 김정, 김병철과 토의하고 그들과 함께 무장부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선발된 200여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화룡과 남면에 갔다.

이들은 여기에서 9월 30일에 1만명이 참가하는 경축행사와 시위를 조직하여 인민들을 각성시킨 다음 무장부대조직을 선포할 예정이였다. 그런데 지주 리영춘은 제손아귀에 있는 중국인 무장부대를 사촉하여 화룡읍의 명신총공서앞에까지 온 시위대렬을 향하여 총을 쏘게 하여 그 자리에서 3명을 즉사시키고 7명을 부상시켜 대렬을 해산시켰다. 리영춘은 자기의 무장대를 자동차에 싣고 남면으로 가서 또 7명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시위대렬을 해산시켰다.



한 창 봉

주체11(1922)년 8월 18일 출생. 해방전 중국 장백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훈춘보안대 정치책임자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39(1950)년 11월 30일 전사. 항일혁명렬사임.



박 근 식

1906년 11월 7일 출생. 해방전 중국 연길현에서 반일투쟁에 참가. 해방후 길동분구사령부 보안대 제6련대 련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41(1952)년 2월 17일 전사. 반일애국렬사임.

이자가 이렇게 날뛰게 된데는 교묘하게 쏘련군 위수사령관의 동의를 얻었기때문이였다. 이자는 쏘련군 위수사령관을 앞세우고 명신소학교에 나타나 남운학에게 국민당에서 세운 《림시정부》의 승인도 없이 조선사람들이 제마음대로 무장대를 조직하고 소란을 피운다고 호통을 치면서 쏘련군 위수사령관에게 이것은 조중인민의 민족적리간을 조성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그러자 쏘련군 위수사령관은 문제를 계급적립장에서 식별하지 못하고 《림시정부》의 승인밑에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여 화룡현에서의

첫 무장대조직계획은 실패하고말았다. 박근식은 이 사실을 연길에 가서 강건에게 보고하였다. 강건은 화룡현의 실태를 료해하고 박락권과 함께 쏘련군의 까츄샤포들을 앞세우고 유격대복장을 한 경위소대와 룡정보안대 300여명을 인솔하고 화룡에 도착하였다.

이 광경을 본 중국인 반동무장대원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살구멍을 찾았다.

강건은 포들을 시내의 강가에 배치한 후 연길, 룡정에서 온 보안대원들을 데리고 시내에 들어가 북문과 서문, 동문에서《림시정부》를 공격하여 해산해버리였다. 그리고 지하실에 숨은 리영춘을 체포하였다. 동시에 강건은 쏘련군 위수사령부에 가서 위수사령관을 체포하였다.

그날부터 3일후인 10월 3일 강건은 명신소학교 운동장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지주와 반동관료배들의 죄행을 폭로하면서 조중인민은 단결하여 의좋게 살아야 한다고 중국말로 류창하게 연설한 다음 악질지주 리영춘을 군중심판하고 총살하였다.

이것을 본 화룡의 인민들은 혁명적으로 더욱 각성되였으며 무장대를 꾸리는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되였다.

그후 박락권이 남아서 연길과 룡정에서 데리고왔던 대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화룡보안련대를 조직하였다. 화룡보안련대는 11월말에는 2 000여명을 망라한 큰 부대로 되였다. 련대장은 박근식, 정치주임은 남운학, 참모장은 최하전, 1대대장은 엄홍석, 2대대장은 김동근(장개석의 특무), 3대대장은 최영환이였다.

명월구에서는 일제의 패망후 명월구 명의소학교 교원인

리인환과 한주빈, 주재일(항일혁명투사), 손장산이 주동이 되여 《한국동지회》라는 조선사람들의 조직을 무었다.

그러나 국민당이 일제통치시기의《협화회》회장과 일제경찰에 복무하던자들 그리고 각성되지 못한 중국인 청년들로 꾸린《치안유지회》라는 반동조직성원들에게 일제경찰이 가지고있던 무기를 쥐여주고 선진적으로 나오는 조선청년들을 탄압학살하게 하였기때문에《한국동지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강건일행이 연변지구에 도착하였다.

강건이 연길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주재일과 한주빈은 강건을 찾아가 명월구의 실태를 보고하였다. 주재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이였고 한주빈도 반일투쟁에 참가하고 8.15후에는 연길현 명월구에서 《한국동지회》의 부위원장사업을 하다가 강건의 지도밑에 《항장원화》의 길에 나선 사람이였다.

강건은 명월구에 가서 가병 100여명씩이나 데리고있던 진수진을 비롯한 7명의 악질분자들을 체포하고《치안유지회》에서 가지고있던 무기 300여정과 도목구에 있던《치안대》의 무



주 재 일

주체4(1915)년 11월 11일 출생. 해방전 중국 화룡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연변보안사령부 경비려단 중대정치지도원, 그후 조선인민군에 복무, 방송부문에서 사업하다가 주체74(1985)년 4월 17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기 80여정을 회수한 후 군중대회를 조직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변절자를 폭로하고 처단한 다음 명월구 정무위원회와 경비대를 조직하였다.

초대정무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길림에서 투쟁하실 때 그이의 지도를 받았던 한주빈이였으며 경비대장은 오죽순(항일혁명투사)이였다. 그후 명월구경비대는 약 5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대대장은 손장산, 정치주임은 오죽순, 중대정치지도원은 주재일,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한주빈이였다.

도문시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파견된 항일혁명투사 임철에 의하여 1 000여명의 규모로 보안대대가 조직되였는데 대대장은 임철이였다.

조양천에서는 남창수, 리두수들이 강건의 지시로 500명규모의 보안대대를 조직하였다. 대대장은 남창수, 정치주임은 리두수였다.

이와 같이 연변지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에 의하여 각지에서 무장대가 조직되고 그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길동보안사령부가 조직됨으로써 연변근거지를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무장력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 시기인 11월 중순에 연변지구에는 중국공산당에서 보낸 옹문도를 비롯한 32명의 중국인간부들이 도착하였다.

한편 연안에 있던 박일우, 리익성, 리권무, 전우 등이 와서 500여명의 청년들로 무장부대를 따로 조직하였으며 그 이름을 《조선의용군 제5지대》라고 하고 조양천에 주둔하였다. 이들은 분파적목적밑에 연변지구의 모든 조선인부대들은 《조

선독립동맹》산하에 뭉치라는 포고문을 낸 후 연변지구의 모든 조선인부대들은 조선의용군 제5지대에 속한다고 일방적인 선포까지 하였다.

강건은 실태를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고 그이의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연변지구에 조성된 새로운 정황을 고려하여 부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부대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하나는 부대의 규모가 확장되였기때문에 그 지휘체계를 그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과 기동력, 통일적인 지휘를



남 창 수

주체2(1913)년 2월 11일 출생. 해방전 중국 화룡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길동분구사령부 보안대 2련대 련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주체39(1950)년 10월 10일 전사. 항일혁명렬사임.



리 두 수

주체4(1915)년 1월 3일 출생. 해방전 중국 연길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중국 연길현 조양천보안대 중대장, 대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83(1994)년 2월 4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보장하려는데 있었다. 다른 하나는 중국공산당에서 파견되여 온 간부들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박일우의 분파적행동을 방지하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이 이끄는 부대와 중국인부대 그리고 기타 여러 부대의 통일적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인간부들이 연변지구로 오다가 돈화에서 국민당군대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강건은 쏘련군대 대원들을 인솔하고 돈화에 가서 그들을 구출해왔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강건은 룡정에서 부련대장을 하던 김동우를 련대장으로 등용하고 화룡에 그의 부대를 주둔시키고 박근식부대는 돈화로 이동시켰다. 부대를 조직개편한 다음 길동보안사령부를 길동분구사령부로 명칭을 고치였다.

1945년 9월에 조직된 길동보안사령부는 그 산하에 야전군과 보안대를 두었으며 야전군에는 1련대(연길), 2련대(왕청), 군정대학이 속해있었고 보안대에는 1련대(연길), 2련대(조양천), 3련대(왕청), 4련대(화룡), 5련대(훈춘), 6련대(돈화), 7련대(룡정, 중국인부대), 8련대(화룡, 중국인부대), 철도보안대대, 안도보안대대, 도문보안대대가 속해있었다.

1945년 11월초에 개편된 길동분구사령부에는 정치부, 참모부와 후방부, 경위련대가 있었고 정치부에는 조직과, 선전과, 간부과와 산하에 보위소대가 있는 서간과가 있었다. 참모부에는 작전과, 통신과, 정찰과, 공병과가 있었고 작전과를 제외한 매 과에 통신중대, 정찰중대, 공병중대가 소속되여있었다. 후방부에는 경제건설과, 관리과, 공급과, 량정과, 재정과, 운수과, 경비소대가 있었다.

길동분구사령원은 강건이고 정치위원은 옹문도(중국인)였

다. 부사령원은 전윤필과 구회괴(중국인), 참모장은 리평야(중국인)였다. 후방부 부사령 겸 재정과장은 정두환이였고 통신과장은 김룡하, 서간과장은 김중산, 경제건설과장은 한주빈, 량정과장은 지광겸, 관리과장은 최병건이였다.

야전군 1련대장은 박락권, 2련대장은 최광, 보안대 1련대장은 한범, 2련대장은 남창수, 3련대장은 최광, 4련대장은 김동우, 5련대장은 지병학, 6련대장은 박근식, 7,8련대 련대장은 중국인들이였다. 철도보안대대장은 남만우, 도문보안대대장은 임철이였다.

부대규모를 보면 야전군은 8 000명, 보안련대는 1만 6 000명정도였으며 포병 및 보안대대는 3 000명, 군정간부학교 학생은 1 000명정도였다.

길동분구사령부에는 기본부대외에도 폭약제조소, 무기수리소를 비롯한 군수공장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자동차를 개조하여 장갑차도 만들고 일본제땅크도 수리하였다.

중국출판물자료에 의하면 길동분구사령부산하에는 경비(야전군) 제1, 2려단, 연길, 왕청, 훈춘, 화룡, 안도, 돈화 등 7개 현의 보안련대와 한개 포병대대가 배속되여있었는데 그 인원은 무려 2만 8 00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무장대를 강화발전시키면서 그에 요구되는 군사정치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1946년 1월초 연길에 길동군정대학을 창설하였다. 이 대학은 연변지구만이 아니라 길동지구 청년군정간부들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였다. 길동군정대학 교장은 강건이 겸임하였다.

군정대학에서는 한기에 500명정도의 우수한 조중인민의 아들딸들을 받아들여 군사정치교육을 하였다. 후에는 동북군



한 주 빈

1908년 7월 30일 출생. 해방전 중국 길림, 할빈일대에서 반일투쟁에 참가. 해방후 연변지구민주대동맹 명월구정무위원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사업.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사령부 피복부장으로 사업. 주체73(1984)년 5월 8일 서거. 반일애국렬사임.



임 철

주체3(1914)년 12월 27일 출생. 해방전 중국 훈춘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동북민주련군 독립 3련대 대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 주체90(2001)년 4월 24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정대학 길림분교로 이름을 바꾸고 동북해방전쟁 전기간에 3 700여명의 군정간부들을 양성하였는데 그가운데 조선사람이 2 520명이였다. 이들은 동북해방전쟁승리와 전국을 해방하는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규적인 무장대와 함께 반군사조직을 꾸리는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파견원들은 연변지구 도처에 지역별, 조직별로 되는 여러가지 명칭의 반군사조직들을 꾸리였다. 공안대, 무장민병 등 반군사조직에 참가한 연변지구의 조선청년들은 무려 12만명

이나 되였다.

이렇듯 연변지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무력을 1만～2만명만 꾸려놓으면 연변근거지를 적들로부터 사수할수 있고 이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적들을 패망에로 몰아넣을수 있다고 하신 교시를 빛나게 관철하였다.

연변지구에서 근거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첫걸음으로 강력한 무장대오가 결성되자 다른 지구에서도 무장대조직이 활발히 벌어졌다.

1945년 10월 목단강지구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 의하여 1 500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로 목단강군구 14련대 3대대와 15련대 3대대가 조직되였고 그해 11월에는 16련대, 17련대를 조직하였는데 매 련대의 3대대는 조선인부대였다. 그 규모는 약 900명정도였다. 목단강지구의 조선인부대들은 목단강군구사령부의 지시와 함께 강건의 지시도 동시에 받았다.

남만지방에서는 박정덕과 8.15전부터 투쟁을 하던 최영환에 의하여 1945년 10월경에 한개 대대가 조직되였으며 10월말



박 정 덕

주체7(1918)년 9월 12일 출생. 해방전 국내와 중국에서 반일투쟁에 참가. 해방후 동북민주련군 제491사단 참모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중앙보안간부학교를 거쳐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참모장으로 사업하다가 주체41(1952)년 10월 11일 전사. 반일애국렬사임.

에는 한개 사단의 력량으로 자라나 부대명칭을 리홍광지대라고 불렀다.

이때 우리 나라 평안북도에서 수천명의 조선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중국에 건너가서 리홍광지대에 망라되였다. [이 부대가 후에 동북민주련군 독립4사로 되였다가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로 되였으며 주체38(1949)년 7월에 조선에 나와 조선인민군 제6사로 되였다.]

할빈지구에서는 1945년 9월 25일에 600여명의 청년들로 할빈보안총대 조선독립대대를 조직하였다가 11월 25일에 《조선의용군 제3지대》로 개편하였다. 그때 인원은 1 000여명이였다. 그후 1946년 4월에는 부대를 4 000여명까지 확장하여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길림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파견된 최용건의 지시로 조선사람 500여명을 모체로 길림군구 72련대를 조직하고 강건과의 련계밑에 송무선이 련대장을 하였다.

이밖에도 교하, 서란 등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현소재지들마다에 조선인대대가 조직되였으며 수많은 조선인부락들에도 무장부대가 조직되여 동북 각지에서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서 동북항일련군의 전우들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그 당시 동북땅에서는 항일유격대출신의 우수한 군정간부들인 강건, 박락권, 최광을 비롯하여 25만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동북해방전쟁에 직접 참가하고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1948년말 주보중이 작성한 37개 사단의 부대구성명단에는 12만명의 조선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었으며 1945년 8월부터 1948년까지 기간에 조선사람들이 희생된 수가 수만명이



송무선

1908년 2월 15일 출생. 해방전 중국 영길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동북민주련군 72련대 련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연변 조선족자치주인민반항공위원회 반항공실주임. 그후 평양시에서 수원지관리소 부지배인을 하다가 주체72(1983)년 4월 8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되고 동북해방전쟁기간 연변에 있는 조선사람 연 20여만명이 전선지원에 나갔으며 일부 회상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평전투에서만도 수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희생되였다고 한다.

동북지방에서 조선인부대들의 지휘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1946년 8월까지는 강건이 책임지고 지휘하였으며 1946년 9월부터는 목단강지구에 파견되여 군구정치위원을 하던 파견원이 연길에 와서 강건의 사업을 인계받아 일하였고 1948년초 동북민주련군이 동북인민해방군으로 개편된 다음부터는 조선인부대들이 중국인부대의 종대(군단급) 또는 사단과 련대들에 배속되여 투쟁하였다.

연변지구가 강력한 무력을 가지게 된 후부터 연변근거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고 장개석국민당군대를 비롯한 혁명의 원쑤들과 견결히 맞서 싸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튼튼한 대중적지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여 가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에게 연변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무장대를 조직하는 사업과 함께 당과 인민정권기관, 대중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을 적극 협조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당지방조직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공산당기층조직이 없는곳에 당조직을 내오는 동시에 당장성사업을 잘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분자들로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군사정치간부들이 매 지방의 구체적실정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모든 민주력량을 단결시키기 위한 통일전선결성사업도 협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파견원들은 공산당지방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강건은 먼저 연변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초대서기로 사업하였다.

1945년 9월경까지 거의 중단상태에 처하였던 연변지구에서의 중국공산당의 활동은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연변당위원회

를 발족시킨 때부터 활기를 띠였다.

연변당위원회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힘을 합쳐 당과 대중단체, 정권기관을 꾸리는데서 주되는 역할을 하였다.

1945년 10월 3일 강건의 보증으로 룡정에서 정두환을 비롯한 6～7명의 핵심들을 입당시켜 공산당룡정구당을 조직하였다.

1945년 11월에는 파견원들이 연길에서 김병규, 최증만, 최명환, 남룡수 등 5명으로 당소조를 조직하고 남룡수를 책임자로 하였다.

1945년 12월 5일에는 조양천에 파견된 려영준에 의하여 조양천당지부가 나왔고 이어서 동불사, 태양촌, 팔도구 등지에서도 당지부가 조직되였다. 연변지구에서 공산당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근거지를 꾸리는 사업이 더욱 힘있게 진척되였다.

강건은 연길에 온 후 룡정에서 전윤필이 조직한 정무위원회와 로동자동맹, 농민동맹, 청년동맹, 녀성동맹, 교원동맹의 경험을 살려 연변의 전반적인 지역에서 정무위원회와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9월말에는 연변



남 룡 수

주체6(1917)년 8월 3일 출생. 해방전 중국 연길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길동분구사령부 보안대 대대장, 동북민주련군 165사 495련대 포병대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에 복무. 주체84(1995)년 4월 30일 서거. 반일애국렬사임.

지구의 모든 현과 부락들에 정무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대중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새로 조직된 정무위원회들은 악질적인 지주와 일제주구들을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생산을 조직하였으며 교육을 장려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새로 조직된 대중단체들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중에서도 강건이 조직한 연변민주대동맹은 특출한 공적을 남기였다. 강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자면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을 다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통일전선체조직으로서 민주대동맹과 같은것을 결성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45년 9월 19일 연길시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대표대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연변 각 현의 3만여명(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동맹맹원들)의 대표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표대회에서는 연변로농청녀총동맹을 결성하고 집행위원회를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연변지구의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운동은 통일적인 지도를 받게 되였다.

그후 강건은 1945년 10월 27일에 연변로농청녀총동맹 집행위원회를 열고 동맹의 명칭을 연변민주대동맹으로 개칭한 후 동맹의 강령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강령에는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에서 소유하고있는 광산, 철도, 공장, 은행을 몰수하여 인민들의 소유로 돌릴것》, 《간첩과 매국역적을 체포하여 인민의 재판에 넘길것》,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며 토지는 밭갈이하는자에게라는 원칙을 실시할것》, 《일본제국주의가 차지하고있는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할것》,《일본제국주의의 노예화교육제도를 철저히 페지할것》, 《남녀평등권리를 실현할것》 등 14개 조항이 규정되여있었다.

회의는 강건의 지도밑에 진행되였는데 먼저 강건이 연설하고 그다음 동맹위원장을 선거하고 부서로서 총무부, 로동부, 농민부, 청년부, 감찰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회의에서는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현, 시, 구, 촌단위로 동맹의 하부조직을 두게 하였다. 그리하여 9월말~10월초에 이르러 각 지방에 동맹조직들이 결성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인민정권형태로서《연변전원공서》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현공서》,《시공서》,《촌공서》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1946년 2월 20일부《연변민보》의 보도에 의하면 연변민주대동맹의 맹원총수는 14만 5 000여명(당시 연변 5개 현의 인구는 도합 85만명이였다.)에 달하였다. 민주대동맹의 맹원총수의 94%가 조선사람이였다.

연변민주대동맹의 핵심은 해방전에 반일투쟁에 참가한 애국자들이였다. 연변민주대동맹의 책임자는 강건이였고 총무부장은 정두환이였다.

민주대동맹은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민당지방조직과 적대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국민당은 동북지방을 장악하기 위하여 여기에 저들의 지방조직들을 내왔는데 연변지구에도 그자들이 조직한 지방조직들이 뻐젓이 간판까지 내붙이고있었다. 그때 연길시내에는 국민당 길림성당부 순시원이 조직한 《국민

당 길림성 연길판사처》라는 간판과 지방의 국민당패거리들이 제멋대로 조작한《국민당 연길현당부》라는 간판이 나붙어있었다. 이들은 《치안유지회》, 《보안대》와 같은 반동조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조종하여 조중인민간의 리간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으며 민주대동맹이 내놓은 소작료 3.7제, 4.6제를 반대하면서 소작료 5.5제를 주장하였다.

민주대동맹은 이에 대처하여 국민당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고 적들이 더는 날뛰지 못하게 여러모로 공세를 취하였다.

당시 연길시에는 반동적인 신문인 《한민보》와 《광복보》가 있었다. 《한민보》는 남조선 리승만의 반공사상을 고취하는 조선어로 된 신문이였고《광복보》는 장개석의 국민당반동파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중어로 된 신문이였다. 이 두 신문은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민주대동맹은 이 두 신문의 발간을 금지시키고 민주대동맹의 기관지로 새로《연변민보》를 발간하여 인민들속에 진리를 깨우쳐주고 공산당의 로선과 방침, 정세를 알려주며 군중을 조직발동하게 하였다. 이 신문은 조문판과 중문판으로 발간되였다.

연변민주대동맹은 또한 인민무장대를 조직하여 토비와 일본군패잔병, 그와 결탁한 괴뢰《만주국》군의 잔여세력과 마적을 숙청하는 사업을 힘차게 벌리였다. 일제패망초기에 일본군패잔병들과 괴뢰《만주국》군의 잔여세력들은 아직 인민정권이 서지 못한 기회를 리용하여 도처에 숨어있으면서 인민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있었다,

연변민주대동맹은 광범한 인민무장대들을 조직하고 토비와 괴뢰《만주국》군의 잔여세력을 가차없이 징벌하고 인민들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사회질서를 세워나갔다.

연변민주대동맹은 사실상 기층정권의 역할을 수행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민주대동맹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사회단체이지만 그의 기층조직 특히 구, 촌조직은 당의 기층조직과 기층민주정권이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민정사무를 처리하고 생산을 조직하였으며 교육을 실시하고 리재민을 구제하며 무장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기층정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례로 8.15직후 일제의 만행으로 하여 연변지구의 여러갈래의 철도는 다 파괴되여 기차가 다니지 못하였다. 이때 연변민주대동맹은 철도부문에 철도로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를 발동하여 기관차와 차량을 수리하고 철도를 복구하여 1945년 10월경에는 기차가 다닐수 있게 하였다.

연변의 모든 현들과 마을들에 정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인민정권형태인 현공서, 시공서, 촌공서로 승격시키고 《연변전원공서》가 나오게 한것은 다 민주대동맹의 공적이다.

때문에 당시 적대세력들은 민주대동맹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동맹의 간부들과 맹원들을 피눈이 되여 해치려하였다. 한때 토비들이 숨어있던 왕청현 천교령과 라자구, 연길현 삼도만, 화룡현 남평, 안도현 송강 등지에서 100여명의 동맹간부들과 맹원들이 장개석도당과 결탁한 토비들에게 살해되였다. 이것은 연변민주대동맹의 혁명적역할을 적들이 얼마나 무서워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반면에 인민들은 연변민주대동맹을 적극 지지하였다.

연변민주대동맹은 그후 당조직과 인민정권기관들이 정연하게 세워지자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끝마치고 1947년 7월에 스스로 해산되였다. 여기서 일하던 간부들은 토지개혁과 정권

기관건설에 동원되였으며 동북해방전쟁의 전장으로 달려나갔다. 연변민주대동맹이 존재한 기간은 그리 오래지 않지만 그가 이룩한 성과는 매우 컸다.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이며 길료군구사령원인 주보중은 1946년 12월 길림성 민족사업회의 연설에서 연변민주대동맹의 역할과 공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5만명이상의 맹원을 가진 연변민주대동맹은 강신태를 비롯한 연변림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조직되였는데 그 성원의 99%가 조선족이였다. 길림성민주련맹도 왕효명, 리유민 등 중국공산당 길림시위원회 지도성원들의 지시에 따라 황재동, 량환준 등 조선동지들을 중심으로 조직한것이다. 연변민주대동맹은 건군, 정권개조, 청산투쟁의 발동, 토지개혁, 국민당특무숙청, 토비숙청, 전선지원 등 제반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첫 시기에는 한동안 실제적인 정권의 역할을 하였다. 민주대동맹의 력사적역할과 공적은 불멸하다.》

제반 민주개혁실시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의 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로서 연변지구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근거지를 꾸리는데서도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특히 연변지구경제에서 농업이 기본을 이루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연변지구를 튼튼한 혁명근거지로 꾸리는데서 무장도 중요하고 당, 정권기관, 대중단체건설도 긴절하였지만 경제문제를

푸는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경제적담보가 없으면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수 없으며 인민생활이 풀리지 못하면 연변근거지가 동북해방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기지로서의 역할은 둘째치고 자체로 살아나가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게 될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게 연변지구에서 토지개혁을 빨리 실시하도록 적극 도와 농민들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시 연변지구는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어 농민들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 땅이 없어 기아와 빈궁에서 헤매고있었다.

이 문제를 푸는 길은 토지개혁에 있었다.

그때까지 연변지구의 토지는 지주들에게 집중되여있었고 또 많은 땅은 《공유지》라는 명목으로 일제가 차지하고있었다. 《동양척식회사》, 《만주척식회사》와 같은 일제와 괴뢰《만주국》의 경제략탈기구가 지주와 결탁하고 많은 토지를 략탈하였는데 이른바《공유지》,《개척지》,《국유지》,《군용지》,《현용지》, 묘지, 학전 등은 경작지의 30～50%를 차지하고있었다. 통계에 의하면《공유지》가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안도현이 60%, 화룡현과 돈화현이 각각 50%, 연길시와 훈춘현이 각각 30%, 왕청현이 26%였다.

《동양척식회사》와《만주척식회사》는 저들이 차지하고있는 토지를 직접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높은 액수의 소작료를 받아먹었고 또한 토지를 높은 외상가격으로 팔아주고는 그 가격에 리자를 붙여 고리대착취를 하였다.

지주와 부농은 당시 7%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유토지의 62.5%를 차지하고있었다. 농촌인구의 72.5%를 차지하는 빈고농들은 사유토지 총 면적의 19.9%밖에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지주, 부농들은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주고는 농사형편이 어떻게 되였든 관계없이 소작료를 전부 받았고 소작인들을 강박하여 매해 무보수로 자기 집의 잡일을 시켰다. 일제와 괴뢰《만주국》의 금융기구 그리고 지주, 부농들은 다 변놓이를 하여 또다시 농민들을 등쳐먹었는데 그 년리가 보통 50% 또는 60%이상 되였다.

이렇게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가꾼 곡식을 몽땅 긁어갔기때문에 농민들은 나날이 더 비참한 처지에 빠져들어갔다.

연변지구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전반기에 두만강연안에 유격구를 꾸리시고 거기서 토지개혁을 하시였던 경험과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주체35(1946)년 3월에 실시한 토지개혁을 본보기로 하여 연변지구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일제침략자들과 괴뢰《만주국》이 가지고있던《공유지》를 몰수하여 무상으로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토지개혁 첫단계에서 연길, 훈춘, 왕청 3개현에서 분배된 《공유지》는 8만 2 000㏊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이 3개 현의 총 경작지의 1/3을 차지하였다.

《공유지》를 분배함으로써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들의 토지문제가 초보적으로 해결되였다. 그러나 지주, 부농들은 여전히 소작료와 고리대로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으며 일제와 괴뢰《만주국》의 잔여세력들과 서로 짜고 새 정권을 뒤집어엎을 흉계를 꾸미고있었다. 때문에 봉건적토지소유제를 철저히 없애지 않고서는 연변근거지를 튼튼히 다질수 없었고 농민들의 근본문제도 해결할수 없었다.

토지개혁 2단계에서는 빈고농단체를 발동하여 악질지주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빈고농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였다.

토지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좌우경적편향이 발로되였는데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분배위원회를 내오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토지분배위원회는 우선 빈고농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토지가 평균수보다 낮은 농민에 대해서는 그 부족되는 부분을 보태주었으며 지주와 부농은 자신을 단련하고 개조할수 있도록 보통농민들과 같은 평수의 토지를 가질수 있게 허락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연변의 5개 현(돈화와 액목을 제외)에는 15만 4 243호에 71만 8 886명(그중 조선사람이 81.9% 차지)의 인구가운데서 농호 11만 6 681호(5개 현 총 호수의 75.64% 차지)에 인구 55만 167명이 도합 18만 2 064㏊의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이것은 총 경작지면적 22만 2 767㏊의 81.72%를 차지하였다.

빈고농들은 집과 집짐승, 농기구, 량곡, 의복 등도 분여받았다.

그후 인민정권은 토지증을 주고 농민들의 투쟁의 전취물을 보호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여 토지개혁을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토지개혁은 연변지구의 농민들 특히 조선사람들에게 있어

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연변의 대다수 조선족농민들은 화전민의 후대들이였다. 그들은 일제와 지주들에게 땅과 가산을 다 빼앗기고 새땅을 일쿠느라 피땀을 흘렸지만 토지소유권을 가지지 못하여 지주의 소작인으로 전락되여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그렇기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땅의 주인이 된 이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나깨나 바라던 숙원을 실현하였던것이다.

토지를 분여받은 농민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고 새 삶을 안겨준 공산당과 인민정권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한마음을 안고 근거지를 꾸리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으며 무장대오에도 선참으로 참가하였다.

파견원들은 토지개혁의 실시로 앙양된 농민들의 열의에 맞게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으며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자체의 수요를 보장하면서도 동북해방전쟁에 식량을 비롯한 많은 농산물들을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다른 부문들에서도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여 연변근거지를 경제적으로 튼튼히 다지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긴밀한 협력밑에 연변지구의 철도, 공장, 기업소, 은행, 체신 등을 장악하고 인민의 소유로 선포하였으며 무장대와 혁명조직을 발동하여 이 전취물들을 철저히 보위하였다.

또한 파견원들은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연변지구에 대학을 창설하는 사업을 적극 방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10월 23일 당시 연변전원공서의 책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있던 림춘추

를 만나시고 연변지구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넣고있는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변지구에서 민족대학창설사업을 추진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연변지구에 조선민족을 위한 대학이 창설되면 중국 동북지방에 살고있는 조선청년들의 교육문제도 해결될수 있고 연변지구의 교육문화발전도 더욱 촉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파견원들이 교육사업에도 큰 힘을 넣음으로써 1949년에 와서 일제통치시기보다 소학교수는 16.1%, 소학교학생수는 34%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중학교가 31개 있었는데 그가운데 조선족중학교가 28개, 재학생수는 1만 3 797명이고 조선족학생이 91.7%를 차지하였다. 일제패망전에 비하면 중학교수는 72.2%, 재학생수는 88.5% 늘어난셈이다.

1949년에는 연길시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소수민족종합대학인 연변대학이 창립되였다. 연변대학의 창립은 조선족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으로 되였다.

주체36(1947)년 2월 16일 중국 목단강지구 조선인민주련맹대표위문단이 평양에 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9월 목단강지구 일군들인 김동렬, 류형렬, 안시웅 등을 만나주시고 《고려인협회》를 《민주대동맹》과 같은 조직으로 고치도록 하시였다.

목단강지구의 일군들은 그후 조직명칭을 《조선인민주동

맹》으로 개칭하고 사업하다가 자기들의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고 새로운 가르치심을 받자고 그이를 찾아왔던것이다.

김책이 그에 대하여 보고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동안 그들이 재중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의식과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고 하시면서 일제침략자들은 모국어도 못쓰게 하고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도 고치게 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교육의 길을 막고 과학과 기술도 배우지 못하게 하였지만 우리 인민은 해방된 첫날부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북조선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울수 있었으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력사적인 민주개혁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국이 해방된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교육제도를 세워 새세대들에게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있으며 청소년들의 머리속에서 일본제국주의사상잔재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중동포자녀들에게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 학교를 세우고 모든 동포자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목단강에서 진행 주체36(1947)년 3월 30일



연길중학교 졸업생 150여명을 포함한 연길시 청년들의
무장대입대탄원모임 주체35(1946)년 6월

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그들을 민주주의적인 사상으로 교육교양하며 그들이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하며 자기의 민족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교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를 잘 가르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재중동포들속에서 문화계몽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그들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출판물 특히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발간하고있는《인민신보》가 기본방향을 옳게 정하고 편집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해외에서 사업하고있는것만큼 국제민주진영나라인민들 특히 중국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각국 인민들과의 친선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신 다음 동북지방의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친필로 써주시였다. 그리고 목단강동포자녀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 등 많은 물자를 보내주시였다.

목단강지구일군들은 동북해방전쟁이 가렬하던 시기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전달하고 편지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모임을 광범히 조직하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변지구에서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면서 인신매매와 기생축첩제도를 철저히 없애버리는데도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1946년 2월초 어느날 저녁 강건은 박락권과 함께 연길시

중심거리 서쪽끝에 있는 황해관으로 갔다. 이들은 황해관에 아직도 기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찾아갔던것이다.

강건은 밤 11시가 넘자 분주히 심부름을 하고있던 23살난 처녀를 불러 어떻게 되여 여기에서 일하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그 처녀는 의아해하다가 강건일행을 둘러보면서 하소연을 하였다. 그는 1945년 초에 흑룡강일대에서 외삼촌을 찾아 연길로 왔다가 얼림수에 걸려 3 000원에 팔려왔다고 말하였다. 처녀는 자기의 고생이 말이 아니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였다.

그 순간 격분한 박락권은 공중에 대고 총을 두방 쏘았다. 권총소리가 야밤의 정적을 깨뜨리자 공포에 질려 낯색이 새파랗게 된 집주인이 속이 한줌만해서 강건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무슨 분부인가고 물었다.

강건은 녀인들을 즉시 불러내라고 하였다.

주인은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즉시 기생들을 다 불러내였다.

강건은 그들앞에서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해주신 조선인민혁명군인데 당신들을 해방시키자고 여기에 왔다는것, 이제부터 팔리워왔거나 빚을 진 녀성들에게 들씌워진 이전의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선포하고 그 누가 이것을 어기면 이 강신태를 찾아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렇게 되자 모였던 녀성들이 일시에 울음바다를 펼치였다. 돈 2 000원에 팔려왔다는 녀인, 지주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지주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주가 팔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녀인, 시집을 보내주겠다고 얼려가지고 돈을 받아먹은 다음 주인에게 넘겨주어 억울하게 여기에 끌려온 처녀들이 자유를 찾게 되니 처음에는 선뜻 믿어지지 않아 어리둥절해

있다가 통곡을 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연길시내의 황해관 기생들은 일시에 다 해방되였다.

강건은 연길에서의 경험을 살려 연변지구 각지에서 일체 기생제도와 인신매매, 빚값에 녀성들이 끌려가는 현상이 더는 없도록 강한 조치를 취하였다.

명월구에는 해방전부터 기생집들이 많았다. 그곳에는 인구가 3만 9 000명밖에 안되였지만 기생집이 30여호나 되였고 여기에 기생이 200여명이나 있었다. 8.15후였지만 괴뢰《만주국》관리와 건달군들로 조직된《치안유지회》라는 반동단체는 1946년초까지 존재하였다.놈들은 영경, 량강, 만보 등의 지구를 통제하면서 녀자들을 마음대로 강간, 릉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자들은 당장 국민당군대가 오고있으니 누구든 절대로 경솔히 공산당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기생해방,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공산당의 조치와 선전에 도전해나섰다.

강건은 민주대동맹을 발동시켜 녀성해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회를 련속 네번이나 조직하게 하였다. 매번 대회에는 500～600명의 녀성들이 참가하였고 그때마다 기생집의 주인들을 끌어내여 대중심판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더는 배겨내지 못하고 기생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대부분의 녀성들은 우리 나라에서 팔려간 녀성들이였다. 부녀조직에서는 고향으로 가겠다는 녀성들은 보내고 나머지는 적당한 일자리를 주었다. 방직공장, 국수집을 운영하여 단번에 수십명씩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인간의 매매를 끝장내는 세기적인 변혁으로서 8.15후 연변지구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이였다.

이런 변혁속에 연변지구는 더욱 혁명화되여갔고 연변근거지가 더욱더 굳건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연변근거지를 튼튼히 꾸리였기때문에 장개석국민당군의 군사적공세와 경제봉쇄를 과감히 짓부시고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하기에 중국도서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관심과 힘있는 지원으로 연변지구에 혁명무력, 당, 정권기관, 대중단체가 조직됨으로써 이 지구는 혁명의 보루로 솟아올랐다, 혁명근거지로서의 연변은 전란의 와중에 잠긴 동북지방을 장개석의 기반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의거할수 있는 발판이였다고 쓰고있다.

1945년 8월 일제패망후 얼마동안 정치적공백지로 남아있던 중국 동북지방을 누가 먼저 장악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공산당과 장개석국민당간에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전이 벌어지던 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먼저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이 연변지구에 들어가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중국혁명을 돕기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국제주의적 지원의 중요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패망직후 중국정치정세의 복잡성을 미리 간파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을 동북지방에 파견하시였으며 장개석군대가 여기에 들어와 일제로부터 정권을 《접수》하기 전에 연변지구에 튼튼한 성새를 쌓게 하심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활동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해주시였고 동북근거지창설의 귀중한 경험과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중국공산당은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이 연변지구에 파견되여 근거지창설을 한창 다그치면서 무장대오를 이미 그쯘하게 꾸려놓았던 시기인 1945년 12월 튼튼한 동북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지금도 중국 동북지방 인민들은 당시 연변근거지창설의 개척자, 선구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우리의 군정간부들이였다고 말하고있다.

이렇게 빨리 연변지구에 혁명의 울바자를 든든히 쳤기때문에 1945년 10월 말경부터 장개석국민당군이 동북땅에 들어왔어도 연변지구에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과 그의 군대는 연변지구에 튼튼히 의거하여 새로운 동북근거지창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중국출판물은 10여만명에 달하는 팔로군, 신사군부대들과 2만여명의 중국간부들이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발을 든든히 붙일수 있은것은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대원들이 당을 건설하고 혁명단체를 결성하고 인민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사업기초를 다져놓고 국면을 타개한것과 갈라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썼다.

연변근거지는 군사기지로서도 그 의의가 컸다.

중국 동북지방의 중요군사전략적요충지인 연변지구를 기본군사기지로 하여 중국공산당은 적의 측면과 뒤통수를 타격함으로써 《먼저 남쪽을 점령하고 후에 북쪽을 점령》할데 대한 장개석의 전략적기도를 짓부시고 《3하강남 4보림강》작전을 성과적으로 치를수 있었다.

또한 연변근거지는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동북민주련군과 조선인부대들이 이곳을 출발진지로 하여 동북지방의 주요도시들을 공격하는 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연변근거지의 인민들은 평상시에는 식량과 피복, 무장장비들을 생산보장하였고 일단 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부상자를 후송하고 식사를 보장하였으며 전투원들과 함께 손에 총을 들고 적을 족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선에 나가 위문공연도 하면서 전투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연변지구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전 동북민주련군지휘성원은《장개석도당을 반대하는 국내해방전쟁의 전기간 연변은 전국적으로 원군운동의 선봉에서 력사에 기록될 모범을 창조하였다. 3년간의 동북해방전쟁기간에만도 약 5만명의 장병들과 12만여명의 담가대원들이 전선에서 용전분투하였는데 1947년 한해동안에 참군한 청년들의 수만 해도 1만 3 000여명에 달하였다.》라고 썼다.

중국의 한 필자는《…주보중과 길림성위의 령도밑에 연변지구를 기본군사기지로 하여 적들의 측면과 뒤통수를 위협하였으며 적들의 남만작전을 저지시키며 림강을 보호하고 3하강남의 작전을 힘있게 지원하였으며 동만해방지역을 공고확대하였다.》고 썼다.

연변근거지는 후방기지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연변지구는 군사전략상, 교통상 요충지이기때문에 이 지구에 튼튼한 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믿음직한 후방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여 동북해방전쟁의 승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46년 6월 장개석국민당군대가 대규모적으로 공격해왔

을 때 동북지방의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와 당, 정권기관, 후방기관들이 연변근거지에 소개되여 여기서 병력을 보충받고 식량과 군수품을 받아 대오를 정비보강하고 부상병들을 치료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들어오는 남만과 중국관내의 일부 부대들도 연변에 집결하였다가 다시 목적지로 떠나갔고 우리 나라에서 지원한 무기, 탄약, 피복, 군수물자들을 받아들여 보관관리하였으며 조선의 북부지방에 소개시켰던 동북민주련군의 전략물자들도 여기서 접수하였다가 공급하였다.

《국가적후방》의 역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북해방전쟁 전기간 숭고한 의리로 중국인민에게 사심없는 원조를 주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강도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후 미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둘로 갈라졌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발판으로 남반부를 강점하고 북반부에 대한 침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었다. 그렇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중국인민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시며 국제주의적의리를 다하여 성의껏 도와주시였다.

1950년 7월 중국의 주은래총리는 우리 나라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리대사로 오게 된 시성문과 그 일행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당신들은 **김일성**동지를 만나게 되면 조선의 당과 인민이 우리가 곤난한 처지에 처하였을 때 우리를 방조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력사상 조선동지들이 중국혁명에 이바지한 사실은 당신들도 다 잘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중조인민의 친선은 아주 깊다. 조선동지들이 우리가 곤난할 때 우리에게 준 방조를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동북해방전쟁시기는 중국에 인민의 나라가 서기 전이였지

만 중국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사실상 조선이라는 위력한 《국가적후방》을 가지고 싸움을 한 셈이였다.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

해방후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나 중국에서는 일제가 패망한 후 미제의 사촉밑에 장개석국민당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였다.

일부 해방지구에 지방인민정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전동북지방을 대표할수 있는 주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질수가 없었다.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동북국이 유일하게 중국 동북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전반을 돌보고있었으나 이 경우도 장개석국민당군대가 점령한 지역은 례외로 되였다.

1946년초 국민당반동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밑에 많은 병력과 현대적인 장비에 의거하여 중국의 동북땅을 일거에 집어삼키려고 하였다.

그때 공산당군대는 동북지방에 공고한 근거지도 꾸리지 못했고 지방정권도 미처 조직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많은 위만군패잔병, 토비, 건달군, 망나니, 지어 패망한 일본군잔여세력까지 공산당군대의 대렬내에 끼여들어왔다가 정작 국민당군대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자 이 틈을 타서 준동하였으며 4～5만명이나 도주하거나 지어 공산당에서 파견한 간부들과 부대의 골간들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무순에서는 1개 려단이 국민당군대에 투항했는가 하면 주보중부대에서는 한번에 7 000여명이나 도주, 투항했고 돈화현 보안대에서는 8개 중대가운데서 7개 중대가 투항하고 오직 조선인중대만이 남아있었다. 리운창이 인솔한 부대의 4만여명은 금주에서 철수하여 열하까지 오는 사이에 거의다 도주투항하고 겨우 5 00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합강, 목단강, 송강, 룡강, 눈강에서 투항한 인원은 33만 6 000여명이고 살해된 간부는 154명이나 되였다. 북만의 정세도 크게 변하여 당시 2/3이상의 현과 성을 국민당 반동파들이 장악하고있었다. 이와 동시에 쏘련이 국민당정부와 맺은 《중쏘우호동맹조약》에 따라 동북의 행정권을 국민당에 넘겨주게 되자 중국공산당군대는 하는수없이 심양, 장춘 등 큰 도시들에서 철수하였다.

국민당군이 빠른 속도로 금주, 심양, 장춘, 매하구, 길림, 교하 등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동남만과 남북만과의 련계를 차단하였으므로 공산당군대는 하는수없이 후방에 있는 단동, 통화지구를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남만의 부상병들과 가족들, 후방인원들이 철수할데가 없어지고말았다.

1946년 국민당군이 중장철도인 심양—장춘의 중요간선을 점령한 후부터 동북의 식량과 석탄, 대련의 식료품과 피복, 의약품과 의료기구들, 공업원료들을 수송하지 못하게 되여 전선과 후방에는 매우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게 되였다.

동북의 교통이 이렇게 허리를 잘리운 상태에서 그 수송대책을 빨리 세우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북부지대를 중국 동

북의 남만과 북만 그리고 관내와 련결하는 외랑으로 리용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중국 동북의 동쪽외랑은 우리 나라이다. 중국 단동으로부터 도문까지 국경연선의 연장길이는 천수백㎞에 달하고 수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중국공산당에서는 동북의 끊어진 도로와 철길들을 대신하여 우리 나라의 도로와 철길들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지원하는 각종 물자와 류동하는 중국측의 인원들을 주관하는 일정한 기구가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라 전쟁 전기간 우리 나라와 련계를 계속해야 하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은 조선의 북부를 통하여 수륙수송통로를 개척하고 인원과 물자의 수송을 보장하며 물자교류를 진행하도록 해줄것을 우리 나라에 제기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제의를 쾌히 수락하시고 해당한 실무적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쏘미공동위원회》가 주재해있고 《얄따협정》이 효력을 내고있는것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측과 중국공산당측이 판사기구를 통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적절히 배합해가면서 내적으로는《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라고 하고 외적으로는《평양리민공사》라는 명칭으로 중국의 동북해방작전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물자수송과 인원수송, 물자교류를 진행하는 상설기관을 내오게 하시였다.

중국측에서 주리치와 소경광이 1946년 7월에 평양에 와서 정식으로《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를 조직하였으며 9월에 소

경광은 귀국하고 주리치가 이 판사처의 전권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다.

당시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가 자리잡고있던 곳은 평양시의 차관리(당시) 104번지였다.

판사처의 중요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1) 부상병들의 안전한 철수보장, 전략물자의 안전한 이전보관, 2) 조선을 외랑으로 하여 동북지구의 남북만련결, 대련과 기타 근거지와의 물자교류, 인원들의 국경통과, 수송보장, 3) 조선으로부터의 지원과 전략물자의 구매, 4) 조중 당과 인민의 우호합작관계의 발전, 경제무역거래보장, 5) 조선과 협동하여 화교들과의 사업진행.

판사처는 비서, 상무(상업업무), 운수, 부기, 총무 등의 기구를 가지고있었고 이 기구의 성원들이 일상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과는 무전으로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였다.

판사처는 1946년 7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존재하면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판사처 지도일군으로서는 문사정, 리사경, 주력, 리반명, 리경천, 예위정이였다. 제광, 이진, 황우년, 양진영, 리문화, 황림, 백옥홍 등은 비서, 상무, 운수, 기요, 부기와 총무사업을 하였다.

조선어와 로어번역원은 강룡구, 서재현, 정성렬, 류문천이 하였다.

사업업무량이 늘어나자 우리 나라의 남포, 신의주, 만포, 라진에 4개의 분판사처를 두고 그 이름은 《평양리민공사 ○○○분공사》라고 하였다.

분판사처의 책임자와 성원들은 모두 동북지구 각 근거지들에서 선발되여왔는데 남포분판사처에서는 주력, 궁화헌, 신의주분판사처에서는 리장경, 왕선성, 만포분판사처에서는 왕작번, 라진분판사처에서는 주홍승, 려량병이 일하였다.

평양판사처의 인원은 100명정도였고 분판사처의 인원은 업무량에 따라 각이하였는데 라진분판사처에는 100여명의 직원과 5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있었다. 분판사처중 이곳에 제일 인원이 많았다.

평양판사처와 분판사처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동일했고 일부 분판사처는 소재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였다.

국경을 넘은 중국관내의 인원과 물자들을 주로 남포에 집중시키고 남만과 북만으로 이동시키는 부상병들과 전략물자들은 주로 신의주와 만포에 집결시켰다. 수송해야 할 식량, 소금, 천, 석탄 등과 일부 국경통과인원들은 주로 라진에 집결시켰다.

중요한 면담과 담판은 기본적으로 평양판사처가 담당수행하였다.

판사처는 공산당군대가 동북의 남만에서 국민당군대의 해방지구에 대한 공격을 막게 하는데서뿐아니라 전동북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이 급한 고비를 넘기도록 일시적으로 몇번의 지원사업이나 조직하신것이 아니라 이 판사처를 통하여 동북해방전쟁의 전기간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시였다.

판사처는 2년반 남짓하게 존재하면서 주로 5가지 방향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로, 부상병들의 안전한 치료대책과 전략물자의 이전사업을 하였다.

실례로 국민당군대의 남만공격으로 공산당군대가 단동, 통화에서 철수할 때 1만 8 000여명의 부상병들과 가족, 후방인원들이 우리 나라 경내로 철수하였다. 이때 전략물자의 85％이상을 압록강동쪽대안 우리 나라 경내로 이동시켰다.

둘째로, 물자와 국경을 넘어온 인원들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물자운반과 인원을 접수하여 국경을 순조롭게 넘겨보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수로와 륙로의 4개 선을 리용하였다.

하나는 동북의 단동으로부터 신의주, 남양을 거쳐 동북으로 가는 륙로였고 다른 하나는 동북의 통화, 집안으로부터 만포를 경유하여 동북의 도문으로 가는 륙로였으며 이 두 륙로는 우리 나라 북부와 중국 동북의 남만, 북만을 련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륙로로 동북해방전쟁 전기간 수많은 전략물자와 인원이 통과하였다.

나머지 2개 통로는 해상수송로였는데 중국 대련과 조선남포 그리고 대련과 당시의 라진을 련결하는 통로였다. 남포항과 라진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기때문에 직접 철도와 련결하여 물자들을 운반하기가 매우 편리하였다.

이 수륙통로를 성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9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중국측과 물자수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셋째로, 중국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많은 전략물자들을 구입하여 넘기였다.

실례로 위대한 수령님께 직접 주리치가 요청하여 12차량을, 류아루가 요청하여 24차량을, 주서가 요청하여 110차량의 물자들을 가져갔다.

넷째로, 조중 두 당, 두 인민들사이 우호합작관계를 수립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판사처를 통하여 조중쌍방은 충분한 협상을 거쳐 압록강공동운행, 중국의 우리 나라 수풍발전소전력사용, 량국간의 우편통신분야에서의 호상합작을 비롯하여 20여가지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물자대금처리는 무역협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하였다.

우리 나라가 중국에 준 물자는 식량, 소금, 무연탄, 수산물과 일용필수품, 의약품, 천, 신발들과 군수물자 등이였다.

판사처는 이외에도 중국혁명가들의 전권대표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물론 중국에 인민의 새 정권이 탄생하기 전이여서 정식 국가간의 관계라고는 할수 없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이 또 외교관례를 앞세우지 않고 판사처를 정식 국가대표부 못지 않게 존엄있게 대해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상반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 일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쌍방의 관계는 친밀하고 간격이 없으며 우리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 판사처일군들을 방조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판사처일군들을 만나주시였을 때에는 중국의 사정이자 곧 우리의 사정이라고 하시며 진심으로 동북해방전쟁을 지원하시였다.

바로 그러하였기때문에 판사처가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동북해방전쟁에 크게 기여할수 있었던것이다.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는 그후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으로 승격되였다.

필요한 무기도 서슴없이

주체35(1946)년 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의 모택동동지의 부탁을 안고 평양에 찾아온 진운을 접견하시였다. 당시 진운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으로 일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택동동지의 특사로 온 진운을 김책의 집에서 류숙하게 하신 다음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에서 그와 식사를 함께 하시며 진지하게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진운은 그때 우리 나라에 와서 자신께 무기를 줄것을 제기하였으며 자신께서는 진운을 만난 다음 우리가 나라를 해방하면서 빼앗은 일본놈들의 무기를 몽땅 중국동지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시였다.

진운이 모택동동지의 이름으로 제기한 문제들가운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무기를 해결해달라는것이였다.

당시 동북해방전쟁에서 중국공산당군대의 가장 애로되는것이 바로 무기였다. 전쟁은 원래 치렬한 사상정신적대결인 동시에 총과 총의 대결, 무장장비의 대결이다.

중국공산당의 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는 국민당군대와 대비할수 없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지만 수적으로나 무장장비

에서는 장개석군대보다 훨씬 뒤떨어지고있었다. 이로부터 많은 고충을 겪고있던 모택동동지와 중국공산당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을 하던 진운에게 무기를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주어 평양에 파견하였던것이다.(진운은 1946년 6월 16일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의 부서기 겸 부정치위원으로 일하였다.)

무기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어려운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운의 요청을 심중히 들으신 다음 그의 요구대로 도와줄것을 승낙하시였다.

진운은 너무 기쁘고 고마와 위대한 수령님께 어려운 시기에 중국혁명을 도와주신데 대하여 잊지 않을것이라고 진정을 담아 말씀드리였다.

진운이 떠나간 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부문의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지금 중국혁명이 큰 시련을 겪고있는데 우리는 국제주의전사로서 이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중국에 무상원조를 주기로 하였다고 하시고는 병기창고에 있는 일제침략군들에게서 로획한 무기와 탄약의 보관정형을 료해하시고 10만명을 무장시킬수 있는 무장장비를 중국에 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그 순간 누구도 얼른 찬성을 표시하지 못하였다. 너무도 엄청난 수자였기때문이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고 북반부까지 침략하려고 계속 도발을 걸며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속에서 우리가 정규무력건설을 준비하고있었기때문에 유능한 군사일군과 함께 제일 필요한것이 무장이였던것이다.

실지로 우리도 무기가 부족하여 고심하고있었다. 그때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정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평양학원을 내왔는데 이곳 학생들에게 줄 무기가 없어 해당 일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론의하고있었다. 뜻밖에도 김보현할아버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였다. 할아버님께서는 어느날 대동강을 건느시다가 물속에 왜놈들이 처박아놓고간 무기와 탄약무지를 발견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평양학원의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고 대동강에 나가 그 무기와 탄약들을 건져내여 부족되는 무기들을 보충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리하여 평양학원에서는 그 무기를 가져다 군정훈련에 리용하였던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 우리 나라의 무기사정이 얼마나 긴장하였는가를 말해주는 한가지 실례이다.

이처럼 무기가 우리에게도 부족한 때에 다른 나라에 한두정도 아니고 10만여정의 무기를 준다는것은 정말 상상도 못해본 일이여서 어느 한 일군은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 한 1만정쯤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세계혁명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며 중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중국혁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있는대로 다 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중국혁명을 진심으로 도와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그때 중국공산당에서는 수령님께 무기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무기 한자루가 우리에게

도 매우 귀중한 때였지만 10만여정의 무기와 탄약, 폭약, 군복천과 군복, 의약품들을 동북민주련군에 넘겨주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국제주의에 매우 충실하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수송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당시 경위련대장을 하던 항일혁명투사 강상호에게 책임지워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무기를 보내주시였는데 그때마다 무기가 무사히 동북땅에 도착할수 있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화물들을 조사하지 말고 무사히 통과시킬것을 지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26일에 하달하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령 제149호 《특별화물수송에 관한 건》에서 남양철도경비대장에게 특별화물을 실은 30대의 차량들을 무사히 국경을 통과시킬것을 지시하시였으며 같은 날에 하달하신 지령 제149호《특별화차경비에 관한 건》에서는 북조선철도경비대장에게 특별화차 30차량에 대해서는 각 철도경비대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행할것을 지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 10만여정을 보내실 때 포도 실어서 중국 동북지방에 보내주시였다.

이 무기를 받아안은 동북민주련군의 길림군구사령부와 료녕군구사령부에서는 즉시 그 무기들을 전선의 각 부대에 배정하였다. 그때 그 무기분배에 참가하였던 중국의 한 일군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감회깊이 이야기하였다.

《무기가 없어 창이나 곤봉을 총대신 메고다니던 많은 전

사들이 총을 받아안고 환성을 올렸고 춤을 추며 기뻐하였다. 감격없이는 볼수 없는 광경이였다.》

어찌 그러지 않았겠는가. 제일 안타까와하던 총문제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풀리게 되였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주체35(1946)년 8월과 주체36(1947)년 6월에도 많은 량의 포와 무기를 중국 동북민주련군에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와 군수물자만이 아니라 일제침략자들에게서 로획한 포를 가지고 포병련대와 공병부대를 조직하여 중국 동북전선에 파견하시는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강력한 포무장장비들을 갖춘 포부대와 공병부대가 중국 동북전선에 파견되였으며 이 부대들은 동북해방전쟁의 치렬한 격전장들마다에서 언제나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는데 결정적기여를 하였다.

1946년 10월 동북민주련군 동남군구사령부 특사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강환주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10만여정의 무기와 포병련대, 공병련대는 현재 동북민주련군의 무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보낸 10만여정의 무기와 포병부대, 공병부대가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의 동북해방위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니 매우 기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해주신 조선인포병부대는 그후 중국의 최남단인 해남도해방전투에까지 참가하여 중국인민해방전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과 포만이 아니라 중국에 폭약도 많이 보내주시였다.

동북해방전쟁과 전국을 해방하는 전쟁 전기간 피어린 격전장들에서 이름을 떨친 황색폭약도 우리 나라에서 보내준것이였다.


蔣軍將兵의 投降으로
中共軍米製武器鹵獲

《로동신문》 주체36(1947)년 7월 23일부에 실린 기사

그때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좀 지장을 받더라도 중국의 전장에서 긴절하게 요구하는 폭약수요를 충족시켜주자고 하시면서 황색폭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폭약들을 계속 보내주시였다.

황색폭약은 교량을 파괴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적의 요새화된 화점들을 까부시는데서 이 폭약은 없어서는 안될 절실히 필요한것이였다. 이 폭약이 터지는 곳마다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리군 하였다.

주은래총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폭약을 생산하던 공장에까지 찾아가 그곳 로동자들앞에서 지난 시기 중국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원해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은래총리가 연설한 그 자리에 그의 동상을 세우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에 무기와 인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적측에서도 알고 아연실색해하였다.

주체36(1947)년 7월 23일부 《로동신문》은 장개석군의 장령 두률명이 외국기자들과의 회견시 동북민주련군이 북조선으로부터 무기와 인원의 원조를 받고있다고 불평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비밀통로

군대와 전투기술기재, 후방물자들을 제때에 전선에 보내주고 부상병들과 가족들을 안전한 지대에 소개하자면 수송이 원만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시기 적아간에 전진과 후퇴가 엇바꾸어지는 과정에는 응당 아군이 가지고있어야 할 도로를 적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군대와 탄약, 식량 기타 필요한 모든것의 보장이 차단되고 부대는 난관에 부닥치게 되며 보급로가 풀릴 때까지 견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괴멸될수도 있다.

때문에 전략적이동통로쟁취는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한때 동북해방전쟁에서 관내와 동북, 남만과 북만사이의 통로가 장개석국민당군대에 의하여 다 막혀버린 때가 있었다.

이러한 때인 1946년 가을이였다. 료동군구 소화가 지휘하는 부대가 안산과 해성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시작하자 거기에 주둔하고있던 장개석국민당군대 184사는 장개석을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공산당군대편으로 넘어오려고 하였다.

184사 사단장 번삭단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받자 장개석은 두률명을 전화로 불러 반기를 드는 부대들은 사정을 보지 말고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률명의 동북군은 미친듯이 184사에 달려들었다. 두률명은 지상과 공중에서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여 184사를 압록강

가에까지 압축하였다.

부대는 뒤에서 겨누고있는 총구와 앞에 놓인 압록강사이에서 더는 어쩔수없는 진퇴량난에 빠져 운명의 시각을 기다릴수밖에 없게 되였다.

이런 때 주보중은 184사가 구원되는 길은 오직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동북국사무소에서 사업하고있는 강환주에게 조선당과 정부지도간부들과 련계를 가지도록 지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보중은 반변부대를 구원할 방도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들을 연방 우리 나라에 보냈습니다. 왕일지도 그 대표의 한사람으로 라남에 왔다갔습니다. 그후 우리는 반변부대가 우리 나라 령토를 거쳐 동부만주로 들어갈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환주는 라남에 가서 강건을 만나 구원을 요청하였다. 강건은 조선경내로 들어오는 문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강환주는 전보로 동북국에 이에 대하여 알리고 자신은 즉시 평양으로 가서 옛 상급이며 자기의 입당보증인인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려고 하였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였기에 주보중은 당시 동북국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조선과의 관계를 많이 다루었으며 국제련합군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한부대에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있는 자기의 부인 왕일지를 또다시 우리 나라에 보내였다.

강환주와 왕일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건의 보고를 받

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84사를 위하여 우리 나라 문을 열어놓으신 뒤였다.

생사기로에서 헤매다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반변부대성원들은 이제는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죽어도 **김일성**동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184사는 그후 렬차로 매우 빨리 남양에 도착하였고 남양—도문다리를 거쳐 길료해방지구에 가서 주보중 등 군구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다시 장개석을 반대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택동동지가 진운을 통하여 부탁하였던 문제도 해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해에 있던 중국공산당 간부들과 군사인원들을 우리 나라의 남포에 상륙시키고 다시 렬차로 남양에 보내여 할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였으며 소화의 료동군구 지휘관들과 전투원들, 그 가족들이 철수할 때에도 우리 나라를 거쳐 다시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갈수 있게 해주시였다.

장개석군대가 우세한 병력을 리용하여 료녕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여 공산당군대가 장백과 무송의 중간지대에 압착되게 되였을 때였다. 협곡에 압착된 부대에 대한 전략물자보급에서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보중은 《북조선의 길을 빌려 수륙수송로를 열고 아군의 전략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려 한다.》는 의견을 주어 자기의 안해인 왕일지를 평양에 보냈다.

이 제의 역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즉시 해결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주체36(1947)년의 첫 7개월동안 우리 나라에서 운반한 전략물자는 21만여t이였고 주체37(1948)년 한해동안 우리 나라 경내를 통하여 수송한 전략물자가 30만 900여t에 달하였다. 인원은 주체35(1946)년 하반년에 18개의 부대가 우리 나라 경내를 통과했다. 주체36(1947)년 9개월간 우리 나라 경내를 통과하여 동북근거지에 들어간 인원수는 1만여명에 달하였다. 주체37(1948)년에 남양을 경유한 인원만도 약 9 000명이였으며 기타는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을 통과했다. 동시에 새로운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시 적지 않은 민주당과 무당파, 화교대표들도 우리 나라 경내를 경유하여 할빈으로 들어갔다. 그중 저명한 인사들은 심균유, 곽말약 등 수십명이다.

사업상관계로 우리 나라를 경유한 중국공산당 간부들은 주보중, 진운, 소화, 주서, 리부춘, 류아루, 장애평, 한선초, 우약목, 채양, 리립삼, 오수권, 등대원, 한광, 구양흠, 두평, 리일맹, 려동, 하장공 등 수없이 많다.

1947년 진가강이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수도 쁘라하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수 있은것도 대련에서 남포에 왔다가 남양으로 해서 할빈을 경유하여 모스크바를 통과하였기때문이다.

특히 지적해야 할것은 정황이 급할 때 우리 나라에서는 려객수송까지 중지하고 중국의 전략물자들을 운반한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 주재 동북국판사처에서 일한 일군은 자기의 회상실기에서 《이 기간 우리들의 수송임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평안북도당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경북도당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시간전부를 우리들에게 바쳤다. 이러한 국제주의적

혁명전우애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라고 썼다.

중국 동북땅의 주요 수송로가 장개석국민당군대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공산당군대가 리용할수 없었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중국공산당이 요구하는대로 우리 나라 문을 다 열어주시고 공산당군대가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시였기때문에 동북해방전쟁에서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동북해방전쟁에서 중국의 후방기지로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후방도 전선이다. 전쟁에서 후방이 없으면 전방도 있을수 없다. 전쟁승리의 관건적요인의 하나는 강력한 후방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무기와 군수물자, 식량을 보장해주고 부상병들과 환자들을 치료해주며 병력을 보충하고 전략물자를 보관하는 후방은 참으로 그 역할이 크다.

장개석국민당군대의 공격에 의하여 단동이 함락되였을 때 많은 인원들이 신의주로 피신하였는데 미군정보고서에 의하면 그 인원은 1만～2만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때 주보중은 방금 조선에서 돌아온 안해 왕일지를 다시 평양으로 보내여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가 동북국의 명의로 위대한 수령님께 남만에서 철수하는 군대와 전략물자들을 우리 나라에 소개시켜줄것을 부탁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왕일지는 주보중을 대신하여 동북해방작전을 여러모로 도와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부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2만여명의 부상병들과 가족, 후방인원,

2만여t의 전략물자를 안전한곳으로 소개시키자면 아무래도 또 조선땅을 빌려야 할것 같은데 김장군의 도움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자리에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일지는 전체 동북민중이 김장군의 은혜를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거듭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남만 무장장비의 85%와 2만여t의 전략물자가 압록강을 넘어 우리 나라 산간오지에 은폐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전투인원들과 부상자들을 우리 나라 집집들에 분숙시켜 휴식도 하고 치료도 받도록 하시였다. 부상병들과 가족, 후방인원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후 치료받다가 5 000여명은 돌아가고 주체36(1947)년 6월까지 2 000여명은 남아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 형편에서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매 가정에 분숙시켜 휴식도 하고 치료도 하게 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먹을것과 입을것, 일용품이 모두 부족한 상태였지만 중상자들이 여전히 우리 나라에 남아 치료를 받도록 하시였다.

당시 단동, 통화에서 철수한 후 조선경내로 들어온 전략물자만 해도 2만여t이나 되였는데 이것이 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압록강연안에 있는 로동당원들을 동원시켜 야간에 은밀히 운반하여 감추어주었다. 단동, 통화가 다시 중국공산당군대편으로 넘어온 후 이 물자들을 순 인력으로 남만까지 보내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가 패망할 때 버리고 간 많은 군수

물자들도 중국 동북해방전쟁에 지원해주었다. 중국 동북해방전쟁시기에 중국공산당군대에 지원한 2 000여화차분의 물자들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버리고 간 물자들이였는데 이것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상으로 또는 일부는 물자교환의 방법으로 넘겨주도록 하시였다. 대치하거나 교환한 물자중에는 1946년 산동성에서 판사처에 이진을 보내여 구입해간 300t의 폭약, 300만개의 뢰관, 120만m의 도화선도 있다. 1947년 봄에 산동성에서는 황우년을 판사처에 보내여 120t의 폭약, 200t의 질산, 100t의 아세톤, 15만컬레의 신발을 구입해갔다.

이러한 물자들은 남포에서 배로 대련에 수송한 다음 산동까지 보내였는데 산동 및 화동해방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47년 조선에서 산동에 지원한 수많은 화약이 남포에 집결되여있었는데 화교청년들도 동원되여 경비를 서주고 포장도 하고 통역도 하였다.

국민당반동들이 동북에 대한 침공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때 동북군구는 처음에 목단강지구로 군수공장을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목단강다리로 차가 통과할수 없어 다시 토의하고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훈춘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1946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계와 물자들이 도문을 거쳐 남양을 경유하여 훈춘으로 이동하게 되였는데 이때 많은 기계와 물자들이 우리 나라의 남양철다리를 통과하여 훈춘까지 무사히 수송되였다. 이때 군사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화차들은 모두 야간에만 유개를 씌우고 통과시켰다. 통화에서 우리 나라의 만포로 넘어온 180여대의 화차들은 다시 중국의 도문, 연길

일대에 집결된 후 편성되여 한주일내에 300여차량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았다.

1946년초 국민당반동들은 해방지역들에 대한 공격과 함께 훈춘군수생산기지들을 공격했다. 중국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이 군수공장들을 우리 나라 경내에로 이동시켜줄데 대하여 제기하여왔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아오지석유공장자리에 이동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1947년 2월 먼저 영안탄약공장, 주물공장, 화학공장을 우리 나라 경내로 이동시켰다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그해 4월에 다시 넘겨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우수한 간부들을 파견하시고 무선통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중국의 실정을 제때에 료해하시였으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주보중은 당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1946년 여름부터 1948년까지 2년반동안에 자기 나라에 보내온 지원물자가 2 000여차량에 달한다고, 그때의 형편에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것이라고, 자기 나라의 해방전쟁에 돌려주신 **김일성**동지를 위시로 한 조선인민의 사심없는 국제주의적지원에 대하여 중국인민은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군복과 신발까지

군대에 있어서 군복과 신발 역시 중요한것이다. 동북해방전쟁시기 중국공산당군대에서는 군복과 신발문제가 크게 걱정거리로 된적이 있었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길동분구사령부에서 군복문제때문에 우리 나라에 온 정두환을 접견하시였다.

정두환은 길동분구의 사령원과 정치주임이 련명으로 수표한 청원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고나서 군복천을 해결하려고 우리 나라 여러곳을 다녀보았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보고를 받으시고 동무가 가본 그곳에는 원래 천이 없다, 벌써 나한테 찾아왔을걸 그랬다, 우리도 천이 매우 긴장하지만 싸우는 동무들을 위해 요구대로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두환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너무도 고마와 그이께 거듭 사의를 표하였다.

그 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에서 군복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중의 하나였다. 해방지역에 병기공장과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있었으나 전시조건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데다가 군대입대자가 급격히 늘어나다나니 먹는 문제와 함께 입는 문제, 신발문제가 크게 걸렸던것이다. 분구사령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 문제도 제기

하려다가 너무 많은 부담을 끼쳐드리는것 같아 사령부의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에게 자체로 풀어보라고 임무를 주었다.

그래서 정두환은 우리 나라에 와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등지를 다녀보았는데 돈을 주고도 천을 살수 없어 하는수없이 분구사령부에 사실을 보고하였다. 분구사령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수없이 편지를 써서 정두환을 우리 나라에 보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두환으로부터 동북의 정세를 보고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해당부문 일군에게 지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최현에게는 한차량분의 의약품을 해결할 긴급과업도 주시였다.

며칠후 해당 일군에게서 질도 좋지 못하고 폭도 좁은 토목천을 구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싸우는 동무들에게 좀더 좋은 천을 해결해주자고 하시며 끝내 좋은 천과 의약품도 마련해주시였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방직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여 집들에서 베를 짜거나 무명낳이를 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형편이였다.



정 두 환

1911년 3월 25일 출생. 주체16(1927)년부터 반일투쟁에 참가. 해방후 길동보안사령부 후방부 부사령 겸 재정과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보안간부훈련소 후방주임, 조선인민군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사업하다가 주체95(2006)년 1월 5일 서거. 반일애국렬사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량의 군복천과 군복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과 기관, 개인소유의 면직물들을 수집할데 대한 지령들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하달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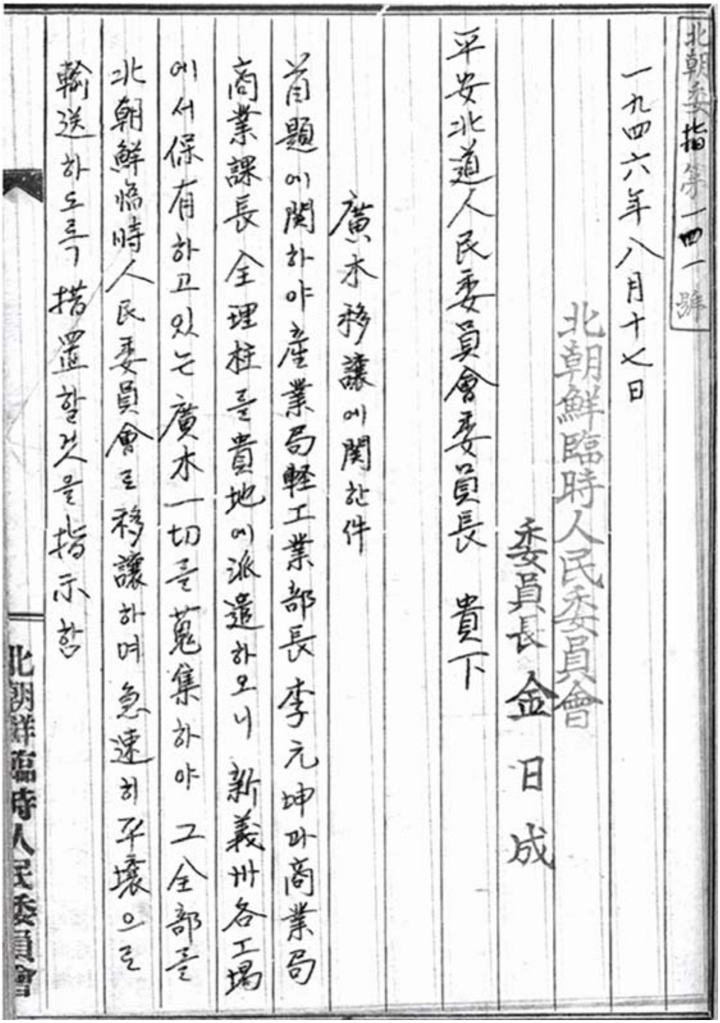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4월 26일에 하달하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령 제50호《면직물일체(광목, 무명등등) 수집회송에 관한 건》에서 황해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황해도의 모든 면직물들을 수집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만포진 사무소로 보낼것을 지시하시였으며 주체35(1946)년 4월 27일에 하달하신 지령 제51호《면직물통제를 강화하여 만포진 무역소에 수송함에 관하여》에서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의주 등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면제품들을 수집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만포진 무역소에 수송할것을 지시하시였으며 주체35(1946)년 8월 17일에 하달하신 지령 제141호《광목이양에 관한 건》에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의주의 공장들에서 보유하고있는 모든 광목천들을 수집하여 평양으로 수송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정두환은 이렇게 해결해주신것이 너무 고마와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떠나자고 찾아갔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복천외에 군복 1 000여벌을 더 주시면서 경위대와 군정간부들에게 주라고 하시고는 나라사정이 어려워 더 보내지 못하는데 대해 못내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을 끝없는 감격속에 받아안은 정두환은 두만강을 건너 분구사령부까지 가면서 줄곧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그가 군복천과 군복, 의약품을 가지고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였다.


北朝委指第一四一號

一九四六年八月十七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 金日成

平安北道人民委員會委員長 貴下

廣木移讓에関한件

前題에関하야 産業局輕工業部長 李元坤과 商業局
商業課長 全理柱를 貴地에 派遣하오니 新義州各工場
에서 保有하고 있는 廣木一切를 蒐集하야 그 全部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로 移讓하며 急速히 平壤으로
輸送하도록 措置할 것을 指示함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달하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령 제141호

분구사령부에서는 공급부 부부장의 귀환보고를 감동속에 청취하였다.

그때를 회상하여 당시 길동분구사령부 정치부주임이였던 당천제는 후날 자기의 회상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돌이켜보면 주석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배려를 거듭 받아안은 그 력사의 사연을 울먹이며 전하는 공급부 부부장과 숨을 죽이고 듣는 우리의 간부들도 조선전역에 기아와 빈궁이 엄습하고 내외반동들이 준동하던 8.15직후의 형언키 어려운 간고한 환경이였지만 조선당의 시종일관한 중국혁명지원정책, 연변방침을 심장으로 감수하며 위인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으로 가슴들을 들먹이였다.

정두환의 사업보고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환성이 울리고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1947년 여름 중국공산당 군대가 장개석의 대군을 동북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제1단계 하기공세를 시작할 때였다. 1945년말에 27만 4 000여명이던 동북민주련군이 다음해말에는 36만명, 그 다음해 여름에는 51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신발이 부족하여 일부 전투원들은 맨발로 가시덤불을 헤쳤고 자갈밭을 행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주보중은 신발문제를 풀기 위하여 1947년 여름 또다시 자기의 안해 왕일지를 우리나라에 보내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일지를 접견해주시고 그가 요구하는 신발문제를 쾌히 풀어주시였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원료, 연료부족으로 신발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도시에서도 고무신과 천신이 고작이고 아이들과 학생들도 고무신과 짚신을 신고다니는 형편이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전우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줄 신발생산을 미루시고 동북의 전사들에게 보내줄 신발을 먼저 생산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보중이 그후 왕일지를 나에게 보낸것이 아마도 1947년 여름이였던것 같습니다. 동북민주련군이 50일동안의 전투에서 8만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42개의 성, 진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전선형편은 여전히 긴장한 때였습니다. 민주련군측 장병들은 신발의 부족으로 큰 곤난을 겪고있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맨발로 진흙탕과 자갈밭을 행군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일지가 나를 찾아온것은 신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다른 신발생산은 다 중지하고 중국의 전우들에게 보낼 신발만 생산할데 대한 긴급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찾아온 왕일지와 담화하시면서 우리 나라 경제형편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항일전쟁때처럼 중국인민의 혁명전쟁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번에도 중국동지들이 요구하는것을 다 해결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왕동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중국 동북혁명을 여러모로 도와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중국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 중국동지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발뿐아니라 싸우는 전우들의 식량을 걱정하시여 우리 나라 평안북도에서 생산한 쌀을 동북지방에 보내주시였고 다량의 의약품과 생활필수품도 무상으로 제공해주시였다.

주체36(1947)년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에서 팔로군부대들이 장개석군대와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애로되는것이 많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일군에게 지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평안북도 벽동군 대안에서 동북민주련군부대들이 장개석국민당군대와 매우 어려운 전투를 벌리고있는데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식량도 대주고 의약품, 신발, 군복도 보장해주며 모자라는 무기도 보충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좀 못먹고 곤난을 겪더라도 동북민주련군부대들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로 의약품을 비롯하여 신발과 군복도 보내주었으며 부상병들을 성심성의로 치료하여주었다.

리홍광지대에 평안북도청년들이 많이 입대하여 활동하고 있던 1946년 겨울 몽강일대에서는 소금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조선인부대에서는 소금을 먹지 못해 대원들의 얼굴이 퉁퉁 붓고 음식도 전혀 먹지 못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룡천진목재소를 습격하여 소금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당시 이 목재소를 타고앉아있던 국민당군대는 귀한 소금을 밀매하여 리득을 보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부대는 그 소금을 빼앗는것과 함께 그곳 인민들도 해방하려는 목적밑에 전투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막상 전투를 하고보니 소금은 거의 없었다. 룡천진에서 촌장을 하던자가 몽강일대의 민주련군부대에서 소금이 없어 아우성을 친다고 미리 알려주어 국민당군대가 선손을 써서 가지고있던 소금을 몽땅 휘남현성으로 빼돌렸던것이다.

하는수없이 리홍광지대에서는 소금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사람을 압록강을 건너 우리 나라에 보내였다. 임무를 받은 김동무는 료동군구사령원 소화의 신임장을 동복앞섶을 째고 그 안에 넣고왔다.(그때 신임장은 천에다 사령원의 도장을 찍은 것이였다.)

부대에서는 이들에게 당시 중강에 있던 동북민주련군 군의소에 거처를 정하고 소금을 해결하되 만일 국경에서 체포되면 최현을 만나라고 지시하였다.

이들은 압록강을 넘어와서 우리 나라 국경경비대에 체포되였다. 그러나 함부로 내용을 밝힐수 없어 최현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그를 만날수 있었다.

며칠후 이들은 자동차 10대에 소금과 신에 댈 고무재료를 싣고 부대로 돌아갔다. 부대사령원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금이 어떻게 해결되였는지는 몰랐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주체54(1965)년 김동무가 경성휴양소에서 최현을 만나 그때로부터 근 20년전에 있었던

소금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 소금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자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였던것이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국경일대에는 동북민주련군부대와 그 가족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상점까지 따로 내왔다.

주체36(1947)년 4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내무국장에게 중국전우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나라의 경제형편이 좀 어렵지만 그들에게 생활상 필요한 모든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친혈육처럼 대해주어야 하며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무국에서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있는 국경연선 민주련군상점들에 자주 나가 거기에 들어오는 상품들이 다른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며 가격도 우리가 정한대로 판매되는가를 알아보고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을 위해 사방에서 요구하는것이 전기였지만 싸우는 동북전선을 도와주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수풍발전소의 전기를 중국에 보내주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기기술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가게 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2월 15일 집무실에서 중국에 파견되는 전기기술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사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중국인민을 도와주는것은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고 동무들이 우리

인민의 국제주의적의리를 안고 안산변전소로 가게 되는것만큼 거기에 가서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라고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산변전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변압기를 비롯한 변전소의 설비들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수풍발전소에서 22만V 송전선을 통하여 중국의 국경연안지역들에 전기를 보내줄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중국측의 요구에 의하여 가게 되는 동무들이 안산변전소에 가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조중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전기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수풍발전소의 전기가 중국의 동북지역에 보내여지게 되였다.

승리의 전주곡

일제가 패망한 후 장개석국민당은 미제의 지원밑에 중국 동북지방에 수많은 군대를 들이미는 한편 일본군과 위만군의 패잔병들과 일제의 주구들, 토비들을 규합하여 공산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반동집단을 꾸려놓았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각이한 토비무리만도 무려 9만명이나 있었다.

이 반동무리들은 도처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민심을 소란시키면서 장개석국민당군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였으며 국민당군대의 공세가 시작되면 그에 발을 맞추어 《내응외합》을 시도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이러한 실태를 간파하시고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여가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게 온갖 반동들의 반혁명적인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는 사업을 적극 방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정권기관들이 무장대오를 비롯한 모든 민주력량을 동원하여 사회질서교란자들을 엄격히 단속하며 토호들과 토비들, 일본군대패잔병들과 만주괴뢰군잔여세력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강건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이 반주구, 반토비작전에서 솔선 모범을 보이며 승리를 이룩하게 되자 각지 인민들은 쌓이고쌓였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이 투쟁에 나서게 되였다.

어떤 일에서나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는것이다.

동북각지에 수백명 또는 수천명씩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갖은 만행을 다하는 반동들에게 위축되여 일제는 패망하였어도 자기 집, 자기 마을에서 살수 없어 다른 곳으로 피난가던 사람들이며 장개석국민당반동이 나쁘다는것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위세에 눌리워 머리도 내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과감한 작전에 의하여 원쑤들의 무리가 하루아침에 괴멸되고 그 두목들이 인민의 심판대에 오르는것을 보자 신심을 가지고 이 투쟁에 나섰다.

그리하여 지난날 일본놈들에게 붙어 갖은 만행을 다하던 주구들과 토비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무리들은 연변지구를 비롯한 동북지방의 모든 지역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장개석국민당이 특무들까지 파견하여 주구와 토비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을 규합하여 꾸려놓은 반동집단은 국민당군대가 장차 발을 붙일수 있는 지반이였다. 이 지반을 허물어버리였기때문에 국민당군대는 뿌리없는 나무가 되였다. 그러니 주구와 토비들을 숙청하는 투쟁은 동북해방전쟁승리의 선결조건이였고 전주곡이였다.

분노를 힘으로 바꾸어

일제침략자들은 중국 동북지방을 강점하고 통치하는 기간에 저들의 주구들을 많이 길러놓았다. 일제통치시기에 주구들은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살해하였고 갖은 악질적인 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일시 혼란된 틈을 리용하여 도처에서 파괴암해책동을 벌리면서 저들의 세상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게 일제주구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인민들의 안전과 혁명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연길에 도착한 강건은 1946년 4월에 룡정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주구청산대회를 조직하였다.

일제의 특무노릇을 하며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살해하고 탄압해온 주구들을 인민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죄상을 낱낱이 폭로한 다음 그 자리에서 처형하자 인민들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졌다.

이런 때 길동분구사령부로 한 녀인이 찾아왔다. 최광을 만난 그 녀인은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 녀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의 대원이였던 김학군의 안해 김신숙이였다.

그는 1930년대초 일제의 해란강대학살때 남편을 잃었다.

피살된 그의 남편은 희생되기 전에 **김일성**장군님께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보고와 함께 학살사건에 관여한 일제의 주구명단을 적은 종이쪽지를 그에게 주었다. 김신숙은 그것을 오래동안 병속에 넣어 깊이 묻어두었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해주신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이 연길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파견원들을 찾아왔던것이다.

파견원들은 이 사실을 무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그 죄상을 밝혀낼 때가 왔다고 하시며 원쑤들의 살륙만행을 폭로단죄하고 주구들을 청산하는 청산대회를 열어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원쑤들에 대한 증오를 힘으로 바꾸어 근거지보위와 적들을 타승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 녀인이 내놓은《하동자위단이 혁명동지들을 참살한 기록》에는 살인귀들의 명단과 그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상이 낱낱이 적혀있었다. 이 기록을 보고 파견원들은 일제와 그 주구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죄가 큰 18명의 살인귀들을 체포하였다.

해란강대학살사건은 일제와 그 주구들이 연길현 해란구에서 감행한 대학살사건이다. 해란구유격구역은 1931년 9.18사변후에 생겨난 유격구역이였는데 이곳은 깊은 산골로서 연길, 룡정, 도문을 련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유격구역의 인민들과 유격대는 일제의《토벌》을 그때마다 물리치면서 유격구역을 견결히 사수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침략자들은《해란구유격구를 없애치우지 않으면 공산당을 멸종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잔인무도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1932년 음력 8월초 해란구유격대는 린근에 있는 유격대와 함께 괴뢰호로대의 무장을 탈취할 계획이였다. 그런데 이 비밀이 탄로되여 8월 7일 새벽에 일본수비대와 자위단 70여명이 긴급출동하여 중기 3문과 화포 1문으로 해란구유격구의 류정촌을 포위하고 불의에 습격하였다. 적들은 촌에 있던 10여호의 농가를 몽땅 불사르고 유격대원들과 30여명의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전동만땅을 뒤흔들어놓았다. 사람들은 이것을《8.7학살사건》이라고 부르며 사건현장인 페허로 된 류정촌으로는 지나가기조차 꺼려하였다.

그해 12월 12일 연길현 하동자위단은 일본수비대와 경찰과 합세하여 해란구유격구의 화련리를 또다시《토벌》하였다.

이날 원쑤들은 앓고있는 유격대원 5명을 체포하여 나무가리우에 올려놓고 불태워죽였으며 사람들을 도끼로 나무패듯 찍어 불무지속에 던지거나 끓는 가마속에 집어넣었다. 지어는 사람을 묶어놓고 칼로 목을 자르거나 눈알을 도려내고 몽둥이로 때려죽이기도 하였다.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독한놈들인가를 낱낱이 보여준 해란강대학살사건은 사람들에게 일제와는 영원히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교훈을 새겨주었다.

적들은 이렇게 1932년부터 1933년에 이르는 기간에 해란구유격구에 대하여 94차의 《토벌》을 감행하여 1 700여명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피맺힌 원한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시다가 해방후 희생된 유격대원의 안해가 우리 파견원들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달받으시자 곧 피맺힌 원한을 푸는 청

산대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시였다.

대회는 1946년 10월 연길시 서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소영자, 마반산, 하동, 화련리의 피해자가족들은 물론 수십리, 수백리 떨어진 곳에 있던 피해자가족들까지 찾아왔다. 주석단정면에는 《연길시 해란강대학살사건주범청산대회》라고 쓴 글발이 걸려있었고 그옆에는 《살인귀를 잡아내고 그 죄악을 폭로규탄하자!》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개회가 선포되자 범죄자 18명을 군중앞에 끌어내였다. 대회장은 삽시에 분노의 함성으로 끓어번지였다.

제일먼저 김신숙이 연단에 나와 항일유격대원이였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귀들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이어서 화련리에 살고있는 리달삼로인이 연단에 나와



연길시 해란강대학살사건주범청산대회(1946년 10월)

가족 15명을 다 잃은 원한을 토로하였다. 인민의 원한은 하늘에 닿았다.

아들을 체포하여 항복시키려다 끝까지 비밀을 대지 않는다고 이발을 하나하나 다 뽑으며 고문하다 나중에는 그의 입에다 총을 들이대고 쏘아죽인 사실을 말하는 어머니, 자기 아들을 귀순시키려다 오히려 그에게서 질책을 당하자 그의 몸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고 때리다 나중에는 연자방아에 갈아 참혹하게 죽였다고 비분에 떠는 아버지, 남편을 철사로 묶어놓고 총창으로 죽을 때까지 찔렀다고 원한을 터치는 안해, 아들의 눈알을 뽑고 간을 뽑아 죽였다는 어머니,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성차지 않아 남편의 묘지에 찾아온 안해마저 엄동설한에 옷을 몽땅 벗기고 만행을 한 원쑤들에 대한 절규… 참으로 구천에 사무치는 원쑤들의 죄행은 끝이 없었다.

청산대회는 인민들의 혁명적각성을 높이는 커다란 계기로 되였다.

정체를 감추고 군구사령부와 행정기관들에 잠입하여 국민당특무들의 지령에 따라 무장반란을 획책하고있던 18명의 악질주구들의 악랄한 살륙만행을 폭로한 대회에서는 악질주구 7명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처단하고 나머지는 죄상에 따라 응당한 징벌을 가하였다.

주구를 청산하는 대회는 다른 지방들에서도 활발히 조직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파견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전군중적인 심판대회를 열고 죄상에 따라 징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니 인민들은 피맺힌 원한을 풀었다고 환성을 올리였으며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되였다,

반토비작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여주신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 의하여 조직된 조선인부대들은 중국 동북해방전쟁의 초시기에는 주로 근거지창설과 근거지보위임무를 수행하면서 동북지방에서 무분별하게 날뛰며 장개석군대의 동북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려던 토비, 토호, 일제패잔병, 괴뢰《만주국》군잔여세력을 숙청하는 군사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리였다.

온갖 반동세력을 소탕하는 주동적인 군사작전을 성과적으로 벌리였기때문에 동북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주석은 일찌기 조선의 군정간부들을 동북에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토호, 토비들과 일본군패잔병들과 〈만주국〉군잔여세력을 진압하는데서 중국동지들을 적극 방조할데 대한 훈시를 주신바 있다. 동북해방전쟁승리에 기여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토비들이 패망한 일제침략군잔여세력과 결탁하여 장개석군대와 합세하려고 하였기때문에 반토비작전은 처음부터 치렬하였다.

1945년 10월경부터 연변지구에서는 부대력량을 증강하는 사업과 함께 연변지구의 토비들을 숙청하며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들을 적발숙청하는 전투를 벌리였다.

강건은 우선 연길포로수용소의 대렬을 검토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연길포로수용소에 잠입한 악질주구들을 적발숙청하기 위하여 1945년 9월말～10월초에 조선청년 라운혁을 비롯한 10여명을 포로병으로 가장시켜 그곳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포로수용소에 침투하여 대렬을 료해하는 과정에 일제의 악질주구였던 리경윤, 순사부장 강병철, 국민당특무인 요위령 등 60여명의 악질적인 이전 헌병, 경찰, 특무들이 숨어있다는것을 밝혀내고 그자들을 숙청하였다. 강건은 계속하여 삼도만을 비롯한 연변지방의 산악지대로 달아나 토비로 된 국민당 선견대들과 일제의 주구, 토호들을 숙청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1945년 10월 어느날 국민당 선견대로 기여들었던 국민당 패거리들과 일제주구들은 묘령에 있는 기차굴에 들어가있으면서 자기들이 항복하겠으니 와달라고 강건에게 제기하였다. 강건은 그자들의 제의를 받고 정치부주임 세곡민과 함께 선전부장(중국인), 서간과장(중국인), 서간과원 라운혁을 데리고 담판장에 갔다. 적사령은 강건이 제놈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항복할것을 요구하자 책상을 치며 오히려 강건에게 항복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 순간 적사령의 곁에 있던자가 강건에게 권총을 겨누었다.

강건의 호위로 따라갔던 라운혁이 재빨리 그자의 권총쥔 손목을 비틀면서 적사령에게 자기 권총을 들이대자 그자는 자기 부하에게 권총을 거둘것을 명령하였다. 이날 회담은 이렇게 되여 파탄되고 서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고 헤여졌다.

이 시기 화룡탄광에 300여명의 토비들이 몰려들어 탄광을 차지하고 연길, 룡정시내와 화력발전소에 보내는 석탄공급을

금지시키는 책동을 하였다. 이로하여 해방지구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혼란이 조성되였다. 강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근식부대를 그곳에 보내였다. 박근식부대는 쏘련군과 협동하여 1주야의 전투끝에 적 수백명을 살상포로하고 화룡탄광을 해방하였다.

훈춘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 중국인 마가가 거느린 500여명의 토비들이 부락어귀에 포대까지 쌓아놓고 저들의 진지를 견지하려고 발악하고있었다.

훈춘보안련대의 지병학련대장은 11월말 어느날 밤중에 대원들을 데리고 은밀히 포대에 접근하여 불의에 포대를 폭파하고 적들을 족치고 마을을 해방하였으며 도망친 적들을 쫓아 명월구까지 추격하여 마가를 체포처단하였다.

훈춘보안련대의 남만우참모장은 련대의 일부 력량을 인솔하여 훈춘현 《공안국》을 습격하는 전투를 벌리였다.

훈춘현에서는 국민당패거리들이 《공안국》을 조직하고 활동하고있었다. 남만우는 지병학과 토의하고 한개 대대를 이끌고 《공안국》을 불의에 습격하여 무기 500여정과 중기 2정, 경기 11정 등 수많은 무기들을 로획하였다.

삼도만의 토비들은 악질들이였다. 연길현 삼도만부근의 토비들은 둔림대를 토대로 하여 무리를 짓고있었다. 둔림대란 8.15전에 일본관동군 소좌 아끼와라가 삼도만일대에서 조직한 산림경찰대인데 평시에는 목재를 채벌하고 관리하였고 일단 비상시에는 무장을 들고 산림과 목재를 지켰다.

일제가 패망하자 국민당군 기병대 대장이였던 전부홍이 이 둔림대를 제 손아귀에 넣고 토비들을 풍원툰에 둥지를 틀게 하였다. 여기에 전부홍의 부관으로 19련대에서 장교로 있



남 만 우

주체14(1925)년 3월 26일 출생. 해방전 반일투쟁에 참가. 해방후 철도보안대 대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과 함경남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81(1992)년 7월 17일 서거. 반일애국렬사임.

던 리대위가 들어오면서 삼도만과 팔도구일대에서 토비들의 만행이 더욱 악랄해졌다.

명월구에는 조선인무장대 15련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경비대가 편입되면서 한족지휘성원들이 몇명 보충되였다. 그들중 한사람인 손영장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고 쏘련군을 따라 연변으로 나온 사람이였다. 그는 삼도만부근 풍원툰에 둥지를 틀고있는 토비두목 전부흥을 평화담판으로 귀순시켜보려고 전부흥에게 둔림대의 총과 말을 다 바치라고 통첩을 내리였다. 그러자 전가는 조선인무장대내에 한족들이 있다는것을 알고 내부모순을 일으켜 저항하려고 풍원툰부근의 동구촌, 주목재촌, 삼도만촌 등 10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선사람들이 무장을 들고 한족과 대결하려고 한다.》고 요언을 퍼뜨려놓았다. 그러면서 한족들이 집과 재산을 지키려면 총을 메고 조선사람들과 싸워야 한다고 추동하여 토비무리에 100여명이나 더 받아들이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자 손영장은 교도원 김만석과 20여명의 전사들을 데리고 풍원툰에 찾아가 정치적공세를 들이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안 전부흥은 리대위를 시켜 토비들을 눈속

에 매복시켰다가 손영장일행이 대문으로 들어설 때 몽땅 체포하였으며 손영장과 김만석은 총살하고 나머지 성원들은 엄동설한에 옷을 몽땅 벗기고 내쫒아 다 얼어죽게 하였다. 여기서 겨우 3명이 살아돌아왔다.

이것을 알리없는 부대의 정치위원이 그들을 찾아 토비굴로 갔다가 그도 토비들에게 잡혀죽었다. 토비들은 그의 목을 잘라 대문밖에 걸어놓았다.

원쑤는 용서할수 없다고 결심한 15련대는 1946년 1월 23일 남창수의 지휘하에 풍원툰으로 떠났다.

전부흥은 둘레가 700m되는 풍원툰주위에 높이 4m되는 통나무로 울타리를 든든히 치고 그 안쪽에다 깊이 1m반이나 되는 홈을 파놓았으며 마을주위에는 포대를 쌓아놓고 밤낮 보초를 세워 감시를 하고있었다. 토비들은 중기, 경기, 포까지 가지고있었다.

일본군패잔병들과 국민당 토비들이 발악적으로 날뛰였다. 전부흥은 대석두에서 80여명의 증원병을 풍원툰으로 더 끌어들였다.

전투가 시작된 후 아군전사들이 마을대문으로 달려나오는 적병 10여명을 쏴눕히자 그 다음부터는 울타리안에서 방어만 하고 대문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아군은 적의 방어시설이 견고한데다가 기관총이 고장나는 바람에 잠시 후퇴하여 적을 유인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본 전부흥은 1월 25일 기세등등하여 200여명의 토비가운데서 80명만 남기고 모두 삼도만으로 내몰았다. 전부흥은 풍원툰에 앉아서 토비들을 지휘하였다.

연길별동대에서는 리두수(항일혁명투사)가 대대장(영장)

이였다. 이 별동대도 토비숙청에 참가하였다. 이 별동대는 리두수가 조양천의 한개 중대, 8도구의 한개 중대, 두도구에 있던 한개 소대를 합하여 대대로 꾸린 력량이였다. 리두수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경위중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상당한 후 김백산의 변절로 체포되여 연길감옥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는데 해방과 함께 출옥하여 다시 항쟁의 대오에서 싸웠다. 처음에 그는 연길현 조양천에서 한개 중대의 별동대를 조직하였다가 후에 별동대를 더욱 확장하여 대대로, 련대로 승격시켰다. 15련대 련대장은 남창수, 16련대 련대장은 박락권이였다.

이들은 서로 합세하여 삼도만지역에 있는 토비숙청에 나섰다.

아군은 16련대를 먼저 삼도만으로 출동시켰다. 16련대의 전사들은 용감하게 전진하였다. 토비들은 공격하는 부대를 발견하자 기관총을 쏴대면서 전진을 막으려 하였다. 삼도하강변을 따라 공격하던 부대와 대문으로 돌격하던 부대에서 얼마 후부터 적의 기관총사격으로 희생자가 나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련대장 박락권은 자신이 척탄통을 들고 토비들의 기관총화점을 까부시였다. 그리고 전사들의 앞장에서서 돌격하였다. 이때 명월구에서 온 15련대의 한조는 16련대의 전진을 엄호하고 다른 조는 삼도만 동산고지를 점령하여 적들의 퇴각로를 차단하였다. 토비들은 포위속에 들었다.

이때 땅크 한대가 전투장에 들어섰다. 강건이 삼도만의 전투가 치렬한것을 알고 일본군에서 로획한 땅크를 보낸것이였다. 토비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괴물이 굴러오자 황황히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포위속에서 빠질수는 없었다.

박락권의 련대는 땅크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동대문안으로 달려들어가 육박전을 벌리였다. 한동안 가렬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토비들은 너무 급해맞아 총을 버리고 농가로 숨어들어가기도 하고 길옆 눈더미속에 대가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였다.

아군은 마을을 수색하여 농민으로 가장한 놈, 김치굴에 숨은 놈, 무기를 버리고 제집에 들어가 아닌보살하는 놈들을 다 색출하였다. 해질무렵에 삼도만은 완전히 점령되였다.

전부홍의 지령을 받고 풍원툰쪽으로 내빼던 토비들도 기관총, 척탄통, 보총의 몰사격을 받고 60여명중에 절반이나 쓰러졌고 남은 토비들은 풍원툰쪽으로 도망갔으나 아군의 추격으로 몽땅 소멸되였다.

전부홍은 풍원툰에서 저들이 완전히 패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분풀이로 마흔다섯에 처음 본 자기의 갓난애를 첩의 품에서 빼앗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아이가 죽은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첩을 일본도로 목을 베여버리였다. 그리고는 잔여토비 몇명을 데리고 장춘으로 도주하였으나 제1차 장춘해방전투때 민주련군에게 포로되여 끝내 제갈길을 갔다.

간악무도한 삼도만의 토비들은 이렇게 소탕되였다.

로야령기슭 왕청일대에도 토비들이 많았다. 로야령줄기를 본거지로 하고 여기에 《동북 제1정진군》, 《동북 제2정진군》, 《보안대》 등 수많은 토비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 장개석이 공산당과 인민정권을 뒤집어엎을것을 목적으로 특무를 파견하여 조직한 정치토비들이였다.

대지주이며 일본군헌병대의 특무로 전락되였던 마희산은 장개석의 지시로 토비무리를 《동북 제1정진군》이라고 하고

사령이 되였다. 그는 토비 2 000여명을 거느리고 로야령의 깊은 밀림속에 둥지를 틀고앉아 왕청과 로야령구간의 철도를 장악하였으며 이곳에 괴뢰정권까지 세워놓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해치였다. 중무기로 무장한 이자들은 장갑차까지 가지고있었다.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공산당군대의 간부와 전사, 인민들을 560여명이나 살해하였고 현금 1억여웬(구화폐)과 말 300여필을 략탈해갔다. 그래서 인민들은 마희산을 가리켜 《마백정》이라고 하며 치를 떨었다.

토비두목 안진유는 이전에 항일투쟁을 하다가 적에게 변절하여 라자구경찰서의 특무로 전락된자였다. 그는 1930년대 전반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라자구, 동녕현성전투에도 참가하였으나 그후 일제의 주구로 전락되여 술집을 운영하면서 특무노릇을 하였다. 그는 일제가 패망하자 혼란된 기회를 리용하여 라자구를 보위한다는 미명하에 일본군 패잔병들과 괴뢰경찰을 기본으로 하여 700여명으로 《자치대》라는것을 조작하였다가 장개석특무의 지시를 받고 《동북정진군》 5련대로 이름을 바꾸고 련대장이 되였다. 그는 일본군과 괴뢰군에서 얻어온 여러가지 포 8문과 중, 경기관총 39정, 각종 보총 600여정으로 토비들을 무장시키고 1945년 11월 한달기간에만도 무고한 인민들을 100여명이나 살해하였다.

안진유는 초기에 2 000여명의 무장인원을 가지고있었으나 1945년말에는 6 000명으로 그 인원을 확장하였다.

최광은 안진유를 제압하기 위하여 20여명의 끌끌한 청년들을 쏘련군대 자동차에 태우고 라자구시내에 들어갔다. 최광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기 전에 라자구아동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안진유구국군부대에 몇번 가서 유희대공작까지 한

일이 있어서 그를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쏘련군복을 입은 최광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최광이 그에게 당신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안다, 나는 쏘련군복을 입었지만 쏘련군대가 아니라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라고 말하자 그는 당황하여 벌벌 떨었다.

최광은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지난날 당신이 우리와 함께 동녕현성전투와 라자구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았는가, 그후 당신이 일본놈들에게 투항은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와 또다시 손을 잡고 싸우겠다면 과거를 다 용서해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손잡을것을 요구했다.

최광은 3일간이나 같이 지내면서 그에게 영향을 준 후 정치위원도 보내주고 참모장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최광에게 자기 부대병사들을 모여놓고 연설해줄것을 요구했다. 최광은 중국말로 조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한것처럼 앞으로도 손잡고 장개석을 반대하여 싸워나가자고 연설하였다.

그후 안진유는 최광이 보내준 사람들을 정치위원과 참모장으로 임명하고 편지련락도 하면서 치안유지를 같이하였다.

이렇게 안진유부대를 중립화시킴으로써 라자구지방의 치안은 평정되였다.

그러나 그후 안진유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로흑산으로 도망쳐가 오삼호토비와 합세하였다. 그래서 최광은 4월 7일 로흑산으로 추격하여 오삼호토비와 안진유토비들을 모두 소탕하였다.

1946년 2월 강건은 박락권에게 왕청보안련대 최광과 왕

청경비사령부 대대장 김양춘과 함께 왕청일대에 남아있는 토비들을 숙청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을 받은 박락권, 김양춘은 최광과 토의하고 1946년 2월 22일 천교령에서 리모경의 《보안대》토비들을 공격하였다.

바빠맞은 리모경은 흰기를 들고 담판을 요구하였다. 담판을 거쳐 리모경은 526명의 토비를 데리고 투항하였다. 이때 일부 토비들은 투항하지 않고 묘령으로 도망쳤다. 박락권과 최광은 다시 묘령을 포위하였다. 도망친 토비들은 처음에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나중에는 190명이 하는수없이 투항하였다. 알밀대와 초피구 등지에 가있던 토비 300명도 포로되였다. 이리하여 묘령일대에서 날치던 토비무리들은 몽땅 소멸되였다.

로야령기슭에 둥지를 틀고있던 마희산은 그곳 인민무장대의 공격을 받게 되자 1 000여명의 졸개를 이끌고 왕청현 라자구일대로 도망쳐갔다.

2월에 강건은 박락권과 최광에게 마희산을 공격할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이들은 녕안무장대와 협동하여 마희산을 량쪽에서 공격하였다. 치렬한 전투끝에 대부분의 토비들은 소멸되



김양춘

주체10(1921)년 8월 17일 출생. 해방전 북만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왕청현에 파견되여 길동분구 왕청경비사령부 대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83(1994)년 7월 25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였으나 마희산은 일부 졸개들을 데리고 도망쳐 후에는 길림의 국민당군에 가담하였다.

일제의 특무 요옥령, 괴뢰《만주국》경찰이였던 왕경운이 조직한 《동북 제2정진군》도 1946년 1월 최광의 보안련대공격을 받고 요영구방향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묘령, 천교령으로 밀려갔으나 거기서 대부분 소멸당하고 나머지는 마희산에게 가서 국민당군대로 되였다. 요옥령 등은 후에 아군에게 체포되여 처단당하였다.

안도현에는 악질지주인 단가성을 가진 삼형제가 두목으로 있는 무장토비들이 있었다. 단병준, 단병인, 단병의 삼형제는 1932년부터 일제에게 붙어 700여명의 졸개들로 경찰대대를 조직하고 단병의를 대대장으로 내세운 후 일제를 등대고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이들은 토비들을 긁어모아 《공안대》를 꾸리고 단병의가 대대장으로 되였다. 병력이 1 000여명이나 되였는데 이들은 이도백하, 량강, 송강, 대전자 등지에 나타나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해치였다.

1946년 3월 강건은 길동분구 경비6련대장 박근식을 책임자로 하여 2개 련대를 화룡에서 출발시키였다. 90리 눈길을 행군하여 안도현 오도양차를 지키고있던 토비 한개 대대를 포위하였다. 오도양차촌은 산으로 둘러싸여있었는데 무장을 갖춘 토비들로 욱실거리고있었다. 마을주위에는 2m의 높이로 토담을 쌓았고 서북산마루에는 화점들이 구축되여있었다.

아군은 3월 6일 오전 7시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박근식련대장은 련대를 지휘하여 우선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한편 적의 화점들을 격파하였

다. 질겁한 토비들중에는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다. 기관총을 쏘아대며 발악하는 토비들과 오후 4시까지 격전을 벌렸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토비 80여명을 소멸하고 기관총, 보총 40여정을 로획하였다. 그후 3월 8일 한개 련대는 동북방향으로부터 대전자(오늘의 만보향)로 공격하여 토비 800명을 투항시켰다.

1946년 3월 16일 강건은 이도백하에 도사리고있는 단가 삼형제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전에 강건은 단가 삼형제에게 투항하라고 사람을 보내였으나 그들이 완강하게 거절하였기때문에 더는 그냥 둘수 없어 소탕하기로 하였던것이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전투는 밤 12시까지 계속되였다. 이도백하전투는 끝났으나 단가의 토비들이 안도현성까지 도망쳐갔기때문에 계속하여 안도현성으로 진격하였다. 결과 토비두목들인 단병준과 단병의를 비롯한 350여명의 토비들이 포로되였다. 그러나 나머지 200여명의 토비들은 단병인을 따라 화전, 길림일대로 도망쳤다. 단병인은 그후 길림을 해방할때 생포되였다.

단가 삼형제는 안도현성과 송강에서 인민의 심판을 받고 처형당하였으며 안도현의 토비무리는 모조리 소멸되였다.

돈화현에는 인민정권을 뒤집어엎고 공산당과 인민정권, 무장대의 간부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날뛰는 이른바《선견군4사》,《돈교사령부》,《공안대》등 토비무리가 5 000여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돈화에 국민당의 괴뢰정권을 세울 목적을 가지고 장개석이 파견한 특무들인 토비두목 기대조, 장중일, 류화일에 의하여 움직이고있었다.

류화일은 일제와 괴뢰《만주국》군의 잔여세력을 모아 부

대를 조직하는 한편 돈화에 국민당《림시정부》까지 만들어놓고 그 현장까지 하였는데 그에게는 국민당 제15집단군, 중앙《선견군》, 《국민당 돈화현당부》의 《위임장》까지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민당간판을 내걸고 공산당군대인 돈화보안련대의 8개 대대가운데서 7개 대대를 자기의 수하에 넣었으며 수많은 공산당 간부들과 인민들을 해치였다.

여기에서 적들에게 투항하지 않은 단 한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사람들로 조직된 대대였다.

이렇게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고있을 때 강건은 마침 이곳으로 오고있던 조선인부대에 명령하여 돈화에 남아있던 조선인대대와의 배합작전으로 돈화현 토비보안사령부를 들이치게 하였다. 토비두목 류화일은 체포되였으며 기대조의 토비무리는 소멸되였다. 토비두목 장중일은 남은 토비들을 거느리고 현성남쪽으로 도망쳤다.

1946년 2월 강건은 길동분구의 무장대를 동원하여 돈화현성을 들이쳤다. 전투는 그때로부터 3월초까지 계속되였다. 강건은 여기에 다른 부대까지 동원하여 끝내 《선견군4사》사령부를 점령하였다.

100여명의 희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내는 가렬한 전투에서 끝내 1 000여명의 토비들을 다 소멸하고 돈화에 뻗친 국민당의 검은 마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강건은 3 000여명의 병력으로 삼도만평강에 둥지를 틀고있던 토비들을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첫 타격이 시작되자 토비들은 부랴부랴 돈화북부로 도망쳤다. 이어서 천교령과 묘령에 둥지를 틀고있던 700～800여명의 토비들에게 두번째 타격을 가하자 포위되였던 적들은 투항하였다.

그러나 토비무리들은 춘양에서 도망친 마희산패거리와 합세하여 라자구에 집결하였다. 적들은 훈춘경내에서 넘어온 토비들까지 합쳐 2 000여명이나 되였고 무기도 보충되여 경기, 중기와 소구경포까지 가지고있었다.

1946년 3월 강건은 박락권과 함께 라자구토비들을 청산하는 전투를 벌렸다. 라자구전투에는 훈춘보안련대와 연길현 그리고 목단강에서 조직된 14련대와 15련대가 참가하였다. 당시 부대의 각 중대에는 중기 1정, 경기 2정, 척탄통 2문이 있었다.

전사들은 집에서 입고 온 옷을 그대로 입고있었으며 어떤 전사들은 내의도 입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전사들은 짚신을 신었다. 그렇기때문에 먼거리행군을 할 때에는 미리 짚신을 몇컬레 삼아가지고 떠나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천교령에서 약 한달동안 군사훈련을 한 후 부대는 라자구로 떠났다.

4월 4일 부대는 라자구에 들어갔다. 토비들은 조선인부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강건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투항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건은 토비들이 교활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에 경각성을 늦추지 않고 경계근무를 철저히 세웠다.

아니나다를가 다음날 이른아침, 토비들의 《특사》가 《투항조건》을 가지고 강건에게 왔다. 《무조건 투항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그자가 부대로부터 약 500m 벗어나자 불의에 적들의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특사》는 아군사령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틀동안 두번이나 찾아왔다가 정찰을 끝내고 토비들에게 공격신호를 하였던것이다.

그때 토비들은 벌써 전투준비를 다 갖추고 아군부대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부락에 틀고앉아 아군을 손금보듯 내려다보고있었다.

강건은 삼도하자 곁에 있는 비행장 지휘탑자리에 위치한 사령부에 있으면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강건은 각 련대에 기병련락병들을 파견하였다.

강건은 먼저 고지뒤에 있는 적의 포진지를 불의에 습격하여 파괴해버린 후 적들을 정면과 좌우측으로 포위하여 섬멸하도록 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7중대 부중대장 김성범이 토비들을 무리로 족치였다.

토비부대는 앞뒤로 공격을 받게 되자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도망치는 적들을 계속 추격하여 소멸하였다. 아군은 이 전투에서 야포 1문, 평사포 4문, 중, 경기관총 4정을 비롯하여 많은 무기와 탄약을 로획하였다.

이 시기 안도현 오도양차, 화룡현 송하평일대를 싸다니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던 400여명의 토비들도 강건의 지시로 완전히 소멸되였다.

연변지구를 위협하던 토비들은 1946년 7월까지 완전소멸되였다. 근 8개월에 걸치는 전투기간에 각종 포 24문, 중기관총, 경기관총 76정, 보총과 탄약을 비롯한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로획하였다.

연변지구의 토비숙청성과는 동북지구에서 제일먼저 달성한 큰 승리였고 이 지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동북해방전쟁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남만에서는 리홍광지대가 패망한 일제관동군 제125사단 참모장 후지다의 지휘밑에 일제패잔병들과 국민당특무조직의

토비들이 결탁하여 일으킨 폭동을 성과적으로 진압하였다.

리홍광지대에서는 박정덕의 지휘밑에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로 통화에 들어간 평안북도의 수천명의 청장년들이 주동이 되여 싸우고있었다. 이들은 1946년 2월 3일 반혁명적무장폭동을 2시간동안에 완전히 진압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946년 2월 2일은 음력설명절이였다.

네면이 백두산줄기의 산봉우리로 첩첩히 에워싸인 통화시는 명절을 맞아 폭죽터치는 소리, 꽹과리와 북소리에 맞추어 양걸춤을 추는 사람들,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저녁 7시가 지나 집집마다 내건 채색등으로 거리가 환해졌다.

이때 리홍광지대 규찰대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팔에 완장을 두른 두사람을 단속하고 권총을 압수하였다.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또 팔에 완장을 낀 두놈을 체포



로흑산일대의 토비들을 숙청한 훈춘보안련대(1946년 5월)

하였다.

놈들의 실토에 의하면 2월 3일 정각 4시 전통화시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것, 폭동신호는 전등불이 세번 꺼졌다 켜졌다가 완전히 꺼진다는것, 옥황산에서 3개의 모닥불이 일어난다는것, 폭동시 일본군(무장해제를 당한 관동군)은 《동변지구림시부대》라는 완장을 끼고 국민당은《중국국민당 료녕당부통화현당부 집행위원회》라는 완장을 두른다는것, 암호는《산천》이라는것, 주의사항은 짚신감발을 하고 각 대에서는 손전지로 세번 동그라미를 그어 한편임을 알린다는것, 폭동지휘자는 손경효라는것이였다.

이 사실을 지대장과 정치위원이 즉시 통화성위에 보고하였다. 성위에서는 적들의《2.3반혁명폭동》을 진압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폭동두목 손경효는 괴뢰《만주국》의 관리노릇을 하며 많은 혁명가들을 학살하였고 8.15후에는 국민당의 주요인물이 되여 국민당 통화현서기, 동변지구 림시군정위원회 주임으로 있으면서 토비, 위만군, 경찰들을 긁어모아 국민당지하보안군을 조직하고 반혁명폭동을 준비하였다.

두번째 두목인 후지다(별명은 다모도)는 일본관동군 125사단 참모장(대좌)을 하던 전범자이다. 이자는 일본이 패망한 후 통화시에 잠입하여 손경효와 손잡고 무장해제를 당한 3 000여명의 일본관동군패잔병들을 모아 반혁명음모를 꾸미였다. 손경효는 장개석의 지시에 의하여 후지다에게 먼저 10만웬을 주고 폭동이 성공한 후에는 1 000만웬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후지다는 국민당 동변지구 림시군정위원회 군사부장이라는 직무를 맡고있었다.

손경효와 후지다는 이미 1945년말부터 통화, 림강, 무송, 장백, 집안, 안도 등지에서 투항한 일본군, 위만군, 괴뢰경찰, 토비들을 긁어모아 대규모적인 반혁명적인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실패하자 통화시에서만이라도 2월 3일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다.

이자들은 통화시가 남만의 중요한 혁명근거지이고 전략적요충지라는것을 고려하여 통화시를 장악하면 전남만지구를 쉽게 점령할수 있을것으로 타산하였다.

폭동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폭동신호는 ① 기차나 자동차가 고동을 세번 울린다. ② 비행기 꼬리부분을 붉은천으로 싸매고 지상에다는 붉은천으로 감싼 《T》자형의 판자를 놓는다. ③ 땅크우에 《동변지구 림시부대》라는 글을 쓴 3각형의 기발을 꽂는다. ④ 각 지휘소에는 국민당 기발을 거는것이였다.

무력은 기관포와 기관총을 설치한 전차 4대, 폭탄, 기관총, 기관포로 장비하고 선전물을 실은 비행기 4～5대 그리고 권총대, 긴칼대, 기관총대였다.

공격목표는 ① 리홍광지대와 인민자위대 통화사령부, ② 통화행정공서, ③ 현민주정부, 현무장대, 법원, ④ 시공안국, 후근부, ⑤ 시전화국, 전업국이였다. 그외 동북포병학교, 비행장, 동북비행기학교, 통화지구방송국, 적십자병원, 《단결일보》사와 《통화일보》사 등도 목표로 삼았다.

폭동군은 땅크부대로 룡천가를 점령한 다음 통화시를 통제하고 항공대는 선전삐라를 뿌리면서 옥황산을 점령하려고 기도하였다.

당시 공산당내기관들은 비밀로 되여있었기때문에 공격계

획에 넣을수 없었다. 그때 통화시의 공산당군 주력부대는 다른 지역으로 토비숙청을 나가고 한개 대대만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지대사령부와 팔로군 한개 대대만 폭동진압의 주력으로 되였다.

리홍광지대에서는 내탐한 반혁명적인 폭동계획과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투방안을 작성하였다.

①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손경효와 후지다를 사로잡는다.

② 다른 지역에 나가있는 주력부대를 빨리 이동시킨다.

③ 간부들과 당원들을 무장시킨다.

④ 로동자자위대를 무장시킨다.

⑤ 경각성을 높이고 경비를 강화하며 전투준비를 잘한다.

리홍광지대와 조선족지방공작일군들은 모두다 무기를 들고 전투준비를 하였다. 이들은 먼저 손경효의 집을 포위하였다. 그때 손경효는 몇몇 두목들과 함께 6마리의 구운 닭과 6마리분의 돼지발쪽을 놓고 이른바《6.6대순》(6자가 겹치면 만사가 순조롭다는 미신)을 빌면서 술을 마시고있었다.

리홍광지대 전사들이 앞뒤 창문을 봉쇄한 후 대문으로 가 폭동군의 약속대로 신호하니 적들은 제꺽 문을 열었다. 그러자 리홍광지대 전사들은 유유히 들어가서 10여명의 놈들을 체포하고 폭동문건과 무기, 관동군장교복 등을 로획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폭동은 계획대로 일어났다. 2월 3일 새벽 4시 전등불이 세번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인차 꺼졌다. 옥황산우에는 모닥불 3개가 타오르고 시내에 긴 고동이 세번 울렸다. 적들은 통화시 변전소부터 점령하였다.

손경효는 체포되였으나 후지다는 전 일본관동군 좌급장교

구마에모도의 집에서 폭동을 계속 지휘하였다.

적들은 계획대로 분산되여 정권기관, 리홍광지대의 주둔지를 비롯한 이미 예견하였던 대상기관들을 공격하였다. 그때 통화시에는 공산당군과 리홍광지대 성원들이 500명밖에 없었다. 전투는 치렬하게 벌어졌다. 서산에 주둔하고있던 전사들은 폭동군에 의해 포위되였다. 일본놈들은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앞장에 서서 적들과 침착하게 맞서 용감히 싸웠다. 포위된 전사들은 육박전으로 적들을 100여명이나 소멸하고 포위를 뚫고 새로운 전투에 진입하였다. 이 전투에서 리학문은 적 9명을 무자비하게 총창으로 요정냈다.

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간 전사들은 뜻밖의 정황에 맞다들었다. 이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은 다 일본사람들이였는데 여기에 박혀있던 폭동자들은 폭동이 시작되자 여기에서 치료받던 리홍광지대 부상자들을 마구 학살하였다.

적십자병원으로 들어간 조선족전사들과 팔로군전사들은 비오듯하는 총탄속에서도 집중사격으로 적들의 화력을 눌러버리였다. 전사들은 총칼로 병원안의 폭동분자들을 몽땅 소멸하였다. 온 통화시가 총소리로 가득찼다.

리홍광지대성원들은 옥황산에서 내려오는 적들과 마주치자 총창과 총탁으로 가렬한 육박전을 벌리였다.

전원공서를 점령하려다가 실패한 적들이 기관총으로 아군전사들이 전진하는 거리에 대고 마구 사격을 하였다.

이때 다른 지방에 나가있던 전사들이 달려왔다. 지병학은 경기관총으로 적들을 제압하면서 중심광장에 포를 끌어다놓고 우편국을 향해 집중사격을 하였다. 그러자 적들은

옥황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비행장에서도 적들의 기도는 파탄되였다.

아침해가 떠오를무렵 아군전사들의 총반격으로 온 통화시거리는 적들의 시체로 덮이였다.

2월 4일 오전에 후지다가 살고있는 주택지구를 포위하고 후지다 등 30여명의 지휘부성원들을 체포하였다.

2월 3일 폭동진압에서 리치호(반일애국렬사)가 잘 싸웠다. 8.15전부터 중국에서 반일투쟁에 참가한 그는 1946년초 통화에서 리홍광지대에 편입되여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다. 장개석도당의 2월 3일 폭동진압작전에 처음부터 참가한 리치호는 자기가 속한 부대가 폭동에 가담한 관동군패잔병들을 200여명이나 사로잡는데서 특출한 역할을 하였다. 리치호는 포로가운데서 로동자, 빈고농출신 일본군인들을 교양하여 적진속에 박아넣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 반혁명적인 음모를 꾸미는자들과 장개석의 특무로 전락된 이전 일제특무 수십명을 색출하여 폭동진압에 적극 기여하였다.

심문에 의하면 폭동지휘부는 세곳에 정하였고 폭동의 목적은 통화에 있는 공산당무력을 소멸하고 인민정부를 뒤집어엎은 후 중일련합정부를 세우고 전남만지구의 공산당근거지를 점령하자는것이였다. 폭동이 성공한 후 손경효가 국민당과 국민당정부를 책임지고 후지다는 군사를 관할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투항한 일본관동군은 동변도지구 림시부대로 재편성하고 토비, 경찰, 특무 등을 포함하여 중앙군으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적들이 장개석의 지시로 이렇게 큰 폭동을 주도세밀하게 조직하였지만 결국은 패하고말았다. 후지다는 처단되였다.

적들은 모두 1만 2 300여명이였는데 살상된 일본놈들은 1 000여명, 포로된 일본놈들은 3 000여명이고 국민당토비는 130여명이였다.

장개석도당이 조작한 《2.3폭동》진압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조선인부대인 리홍광지대였다.

이에 대하여《만주경찰소사》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2월 3일, 3시 50분 한방의 총성이 들리였으며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개시되였다. 그후 〈사령부 및 전원공서〉쪽으로의 진격은 대체로 예정대로였는데 조선인부대방면의 전국은 아군에게 불리했고 각조에서 3명만 도망쳐 들어와 천정에 숨었다.》

장개석도당이 조작한 반혁명적인 폭동진압작전에서 리홍광지대가 논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남만지구의 당과 인민정부, 동북민주련군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리홍광지대는 남만에서 1946년 12월 림강보위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7개월동안 백두산지구에서 토비무리들을 기본적으로 소멸하였다.

길림시에서 조선청년들을 위주로 조직한 길림보안총대 제7대대는 제7지대로 개편된 후 화전에 지휘부를 두고 그 주변의 토비들을 숙청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7대대는 500여명의 조선사람들로 구성되여있었는데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송무선이 대대장이였다.

화전일대에는 옛날부터 토비들이 많았는데 8.15후 국민당의 사촉밑에 반동들이 크고작은 토비부대들을 도처에서 꾸려가지고 날치기 시작하였다. 큰 토비부대는 상산호부대로서 400여명이나 되였고 작은 부대는 30～50명정도였다.

당시 길림성적으로 화전일대의 토비를 청산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으므로 송무선은 자기 대대가 책임지고 이 자들을 소멸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먼저 작은 토비부대부터 숙청하기로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군중을 각성시키고 발동시켜 적들과의 전투를 벌리시던 경험을 본받아 송무선은 화전동쪽 쟈피거우에 있는 토비들을 그런 방법으로 없애버렸다.

그는 마을에 들어가 먼저 군중을 모여놓고 중국인민이나 조선인민이나 다 지난날 일제의 억압통치를 받다가 해방되여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되였는데 지금 반동들과 토비들이 또 다시 책동하고있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 토비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토비들에게 먹을것을 주지 말고 식량을 집집에 다 감추어두라, 그리고 토비들이 나타나면 즉시 우리 부대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군중정치사업을 하니 인민들이 합심하여 쟈피거우토비들을 몽땅 없애버릴것을 결의하였다.

얼마후 인민들이 홍석라자 동쪽에 토비들이 나타났다고 정보를 알려왔다.

송무선은 새벽에 습격조직을 하여 잠자던 토비들을 몽땅 소멸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화전일대의 작은 토비무리들을 다 숙청한 다음 상산호부대를 치는데 달라붙었다. 먼저 이들은 상산호부대에 군사적위협을 부단히 조성하면서 와해공작을 하기 위해 중국사람을 통하여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지금은 옛날과는 다르다, 토비는 전도가 없다, 이미 작은 규모의 토비는 다 소

멸되고 당신들만 남았는데 투항하면 살려주고 투항하지 않으면 전멸된다고 씌여져있었다. 한편 토비들의 친척들을 리용하여 토비들에게 부단히 영향을 주었다. 처음에는 토비들이 편지를 돌려보내고 싸우자고 접어들었다. 그러나 와해공작을 하는 한편 군사적공세도 들이대자 나중에는 하는수없이 투항하고말았다. 이리하여 1946년 봄까지 길림주변의 토비들도 다 소멸되였다. 이때 길림군구사령부에서 주보중이 송무선의 부대를 찾아와 이 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었다.

북만지역에서도 토비숙청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1945년 10월 목단강시에 인민정부가 수립되자 국민당반동들은 이 지구에 특무들을 파견하여 민족반역자, 괴뢰《만주국》시기의 헌병, 경찰, 관리를 해먹던자들을 비롯한 반동들을 모아가지고 인민정권을 뒤집어엎을 시도를 하였다.

국민당반동들은 사문동, 리화당, 마희산, 주표 등 악명높은 토비두목들을 국민당군의 사령들로 임명하고 사문동은 계서를, 리화당은 림구를, 마희산은 록도를, 주표는 목릉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목단강시에 대한 포위진을 형성하였다.

사태가 엄중해지는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해주신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은 《고려경찰대》를 비롯하여 시내와 교외에서 입대한 2 000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로 목단강군구 14련대 3대대와 15련대 3대대를 조직하였다.

목단강군구사령부 파견원은 군구사령부 경위중대장 조명선(항일혁명투사)이였는데 14련대 3대대장 등과 함께 1946년 1월 하순부터 목단강시를 포위한 토비숙청에 떨쳐나섰다.

14련대는 림구쪽으로, 15련대는 목릉쪽으로, 2련대와 7련



조 명 선

주체12(1923)년 11월 27일 출생. 해방전 중국 장백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목단강군구사령부 경위중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보안간부훈련소를 거쳐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83(1994)년 7월 8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대는 록도와 계서쪽으로 달려가 토비들의 거점을 소탕하였다. 이 작전에서 14련대의 조선인대대는 화림, 북전자, 오림, 행수 등지에서 토비들을 소탕하고 3월 18일 새벽에는 마련하에서 매복전으로 100여명의 토비들을 살상하였다. 계서부근에서도 토비들을 섬멸하였다.

이후 토비들은 《고려부대(조선인부대)》라면 싸울념도 하지 않고 줄행랑을 놓았다. 그러나 악질토비들은 주력부대가 일시 다른 곳에 나가 싸우고있는 틈을 타서 목단강시를 차지하려고 시도하였다.

1946년 5월 14일 밤에 500∼600명의 토비들은 큰 길로 해서 시내에 들어와 군구사령부를 포위하고 집중공격하였다.

사령부의 경위중대장 조명선은 적들과 맞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중기관총사수들은 재빨리 지붕우에 올라가 유리한 위치에 중기를 걸어놓고 사격을 들이대였다. 때를 같이하여 경기관총, 기관단총, 보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겁에 질린 토비들은 머리도 쳐들지 못하다가 수류탄을 던지며 뒤걸음쳤는데 적들이 던진 수류탄은 겨우 울타리를 넘어와 뜨락에서 터지군 하였다.

이때 멀지 않은 곳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났다. 다른 패거리의 토비들이 수녕성(당시)정부, 성정부보안처 등 주요기관들을 습격하고있었다. 성정부의 조선족청장년들로 편성된 경위련대가 토비들을 호되게 족쳤다. 간부학교에 있던 조선족학생들도 전투능력이 높았으므로 토비들을 보기좋게 갈겨대였다.

사령부뜨락에는 일본군대가 버리고 간 땅크 한대를 수리한것이 있었는데 명령이 내리자 그 땅크가 기관총사격을 하면서 전진하였다.

그때 목단강군구사령부 정치위원은 세린하반의 두도하자에 있다가 목단강시내에 토비들이 쳐들어갔다는 소식을 받고 부대를 목단강시로 진격시켰다. 30～40㎞되는 밤길을 달려 그들이 목단강시에 들어섰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총소리가 멎은 뒤였다.

1946년 5월 15일 토비들이 인민정권을 전복하려고 조작한《5.15반혁명무장반란》은 이렇게 원쑤들의 실패로 끝났다.

토비두목들은 인민의 심판을 받고 목단강시 서구운동장에서 처형되였다.

이 전투에서 누구보다 용감히 싸운 땅크병 김병준은 싸움이 끝난 후 땅크의 웃뚜껑을 열고 사방을 살피다가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24살의 꽃나이로 청춘을 마치였다.

1946년 2월 24일 삼강의 민주련군은 리화당토비를 숙청하려고 떠났다. 그날 강행군하는 대오를 따라 군량과 포탄을 싣고 몇대의 자동차가 함께 떠났는데 시내를 벗어나자 차 한대가 전복되는 바람에 후방부전사들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알고보니 차를 전복시킨 그 운전사는 아군에 끼여든 토비였던것이다.

무장대는 각성을 높이며 토비들을 숙청하다가 드디여 리화당무리와 맞다들었다. 그런데 일부 토비들은 살상했지만 아군의 손실이 더 컸다. 그후 아군전사 6명이 또 지뢰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전우들이 희생되는것을 본 전사들의 가슴마다 복수의 불길이 치솟아 전투가 시작되자 총이 없는 전사들까지 몽둥이로 토비들을 족치면서 총을 빼앗아 무장하였다.

방정에서 호되게 얻어맞은 리화당은 흩어진 졸개들을 모아가지고 사문동과 합세하려고 조령쪽으로 몰려갔다. 그해 3월 사문동과 마희산무리들이 목단강쪽에 나타났다.

아군부대는 두도령자라는 마을에서 토비들과 맞다들었다. 토비들은 그곳에 화점을 쌓고 주위에 여러겹의 가시철조망을 늘인 후 전호까지 파놓았다. 그러나 아군전사들은 적들의 화점을 까부시고 철조망에 널판자를 놓고 그우를 내달리며 적들에게 몰사격을 퍼부었다. 토비들은 드센 공격을 받고 소탕되였다.

이 전투가 끝나자 목단강군구사령부 정치위원은 14련대를 이곳 무장대와 합쳐 대오를 더 확대하고 계속 토비들을 소탕하며 사문동을 추격할것을 명령하였다. 그때 사문동의 수하에 한개 기병련대가 있었는데 련대참모장이 조선사람이였다.

부대에서는 그 참모장을 설복하여 아군편으로 의거시켰다.

그후 한달 남짓한 사이에 수백㎞의 거리를 행군하면서 무려 30여차나 토비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토비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문동은 5월 어느날 토비들을 거느리고 토비소굴인 청룡산에 기여들었다. 아군은 이 정보를 받고 청룡산을 포위공격하여 200여명의 토비들을 소탕하고 67명의 기병대를 생포하였다. 이 기병대는 일본군복을 입고 일본제무기로 무장하고있었다. 사문동은 여기서 겨우 살아나 조령으로 달아났다.

목단강군구사령부에서는 500여명의 아군전사들에게 청산, 호산에 있는 토비들을 섬멸하고 리련희토비무리를 소탕할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사문동의 졸개무리 70여명을 숙청하고 그후 두달동안 부금, 집현, 사방대일대에서 토비와 전투를 계속하였는데 그 기간은 참으로 어려운 나날이였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도로기를 신고 하루 50㎞씩 걸어야 했고 풀숲에서 숙영할 때는 모기떼와 싸워야 했다. 옷과 신발이 다 해지고 식량공급이 되지 못해 닭은 강냉이 한줌으로 끼니를 대신하거나 몇끼씩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군전사들은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리련희토비무리를 숙청한 다음 가목사로 돌아왔다.

이날 민주대동맹에서는 그들을 환영하여 푸짐한 음식상을 차리였다.

수백만 인민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군은 쏘련과 경제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금을 지켜야 하였다.

목단강군구사령부에서는 9월 3일 가목사 남부지역에서 아군의 발전소와 금광을 보위하면서 금을 받아들이는 특수임무를 수행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다가 금광을 지키던 16명의 용사들이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 이에 격분한 아군은 토비들을 계속 족치였다. 손방유는 아군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다음날 오후 화남현경내에 있

는 달련포로 쫓겨가 숯가마안으로 기여들어갔다가 아군의 총에 맞아 즉사하였고 50여명의 졸개들도 모두 소멸되였다. 그후 얼마 안되여 리화당, 마희산, 장활자 등 토비두목들이 아군의 총탄에 맞아 저승으로 갔다.

토비두목 사문동은 민주련군부대의 전사들에게 체포되였다. 1946년 12월 3일 이자를 영평금광에서 희생된 16명의 렬사릉앞에 끌고가 무릎을 꿇어앉히고 목을 벴다.

가장 악질적이였던 북만의 토비두목들과 토비들은 이렇게 소멸되였다.

녕안에서도 목단강군구 파견원들의 지휘밑에 100여차의 전투를 거쳐 토비무리들을 숙청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이 진행한 반토비작전은 중국혁명가들과의 공동투쟁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이 전투들에서 언제나 앞장에 섰으며 모두의 모범으로 되였다.

반토비작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제3차 국내혁명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중국 동북지방에서 토비들이 더는 련합된 세력으로 활동할수 없게 되였으며 적들이 바라던 《내응외합》은 파탄되였다.

위기타개의 방략

중국 동북지방에는 1946년 봄부터 본격적인 국공대결전의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있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지방을 차지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중순 10여만의 대병력을 동북에 진출시키기로 하였다. 이때 간부들도 2만여명이나 이곳에 보내기로 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과 군대들은 수송기재도 부족하고 관내에서 동북까지의 거리를 행군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도 든든하지 못하였으며 장개석군대의 끊임없는 비행기타격도 있었으므로 야간에 주로 행군하였다. 하늘소까지 타고 행군한 선두부대는 한달이 채 못된 9월 6일에 심양에 들어섰고 다른 부대들은 11월경에 모두 동북땅에 들어섰다.

바빠맞은 장개석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비행기와 함선의 지원밑에 국민당군대 30여만명을 급히 동북에 진출시키였는데 중국의 서남부에서 떠난 놈들은 늦게야 동북땅에 들어설수 있었다.

당시 동북땅에 들어온 중국공산당군대와 국민당군대의 력량대비는 현저히 차이났다.

중국공산당의 군대는 장개석군대에 비하여 수적으로만이 아니라 무장장비도 락후하였다. 오랜 기간 항일전쟁을 하였으

므로 그들은 무장장비를 개선할수 없었고 공군이나 해군도 없었다.

1946년 5월 쏘련군대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완전히 철수하자 장개석은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전동북을 타고앉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22개 사단을 동북에 투입하여 주요도시들과 군사요충지들을 거머쥐였으며 공산당군대가 손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이런데로부터 공산당군대는 일시 북만과 압록강까지 밀려났으며 부대호상간 그리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의 련계도 끊어져 중앙의 지시도 제때에 받을수 없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였다.

1946년의 봄은 바야흐로 전국적인 국내전쟁의 불비가 쏟아질 엄혹한 시기였다.

중국공산당에서는 이 국내전쟁의 불구름을 어떻게 해서나 막아보려고 각방으로 노력하면서 여러차례 국민당이 요구하는 담판에 응하였으나 장개석은 저들의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동북을 타고앉기 위한 시간적여유를 얻기 위하여 교활하게 담판을 악용하였다.

1946년 6월 6일부터 또다시 정화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장개석군대가 협정을 위반하고 배신적으로 공격하였기때문에 지역적인 전투는 계속되였다. 장개석은 1월 10일부터 정전협정이 이룩된 1946년 6월초까지 100만명이상의 병력을 이동시켰다.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전쟁계획을 완성한 후 장개석은 란폭하게 정전협정과 정치협상결의를 페기하고 국민당군대로 하여금 중원해방구에 있는 공산당군대를 포위공격하게 함으로써 끝내 전면적인 내전을 폭발시켰다.

장개석은 미국무장관 마샬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기하였다.

1. 화북에서 인민해방군(공산당군대)은 열하와 챠할 2개성, 연대와 위해위 그리고 6월 7일이후 산동의 위만군수중에서 해방한 대소도시들에서 철수하며 국민당군이 청도, 천진에 각각 한개 군을 증파한다.

2. 동북에서 동북민주련군(공산당군대)은 할빈, 단동, 통화, 목단강과 백성자에서 철수한다.

장개석은 정전담판과정에 또다시 인민해방군이 철수할 지역을 몇곳 더 늘여 요구하였다. 즉 6월 7일이후 산서, 하북의 해방된 대소도시를 국민당군대에 내놓으라는것이였다. 장개석의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오만무례한 요구는 6월 남경에서 진행되던 정전담판이 파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6월 26일 국민당군대의 중원해방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로 전면적인 제3차 국내혁명전쟁의 막이 열리였다.

동북해방전쟁은 이 전쟁의 한부분이였지만 동북에서 공산당군대가 승리하여야만 전국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수 있었기때문에 피어린 투쟁을 거듭하면서도 기어이 간고한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였다.

이 위기를 타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동북해방전쟁이 승리하도록 지원하여주신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소화사령원의 요청

소화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받은 긴급지시에 따라 1945년 9월 산동군구의 사령부, 정치부, 후방부의 일부 간부 1 000여명을 인솔하고 봉래현 란가구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동북으로 진군하여 9월말에 심양 동북국에 도착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산동에서 많은 부대들이 련이어 동북에 들어왔다. 소화는 중앙에 보고한 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부대를 단동지구에 배치하였다.

※ 소화는 1945년 10월 중순에 중국공산당 료동성위원회와 료동군구가 수립된 후 성위원회 서기, 군구사령원 겸 정치위원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위원, 남만군구 부사령원 겸 정치위원, 제4야전군특수병종사령원, 병단정치위원으로 사업하였다.

1945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장개석국민당군이 단동으로 밀려들었다. 그러나 소화에게는 조성된 어려운 난관을 타개할 방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 장개석국민당군은 미국의 군사적지원밑에 중국 동북지방을 일격에 타고앉아보려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몇가지 날자별 공격정형은 다음과 같다.

1945년 9월 30일 미군 중국 당고에 상륙.

1945년 10월 2일 미해군륙전대 1 400여명이 진황도를 공

격하여 점령.

1945년 10월 4일 연대앞바다에 침입한 미태평양함대 황해분함대 파견장교가 해안에 올라와 공공연히 연대에 주둔하고있는 중국 팔로군(공산당군대)에게 연대를 미군에 《접수》시킬것을 협박.

1945년 10월 30일 진황도주둔 미군은 국민당 94군 일부와 함께 기동해방구의 림유현 해강진을 점령하고 산해관지구를 침범, 국민당 13군 미국군함으로 진황도에 상륙.

1945년 11월 1일 진황도에 상륙한 국민당 13군이 대병력으로 동북인민자치군 산해관수비대를 공격.

1945년 11월 13일 국민당 52군의 조공무부대 수십척의 미국군함으로 수송되여 진황도에 상륙하고 국민당 13군과 함께 산해관을 맹렬히 공격.

1945년 11월 16일 국민당군 대병력이 미군의 지원하에 산해관 점령.

1945년 11월 19일 국민당군이 수중을 점령.

1945년 11월 21일 국민당군이 흥성을 점령.

1945년 11월 22일 국민당군이 금서를 점령.

1945년 11월 26일 동북인민자치군은 주동적으로 금주에서 철수, 적군이 뒤따라 금주를 점령.

1945년 12월 11일 국민당군이 산해관, 금주를 점령한 다음 동북을 향하여 대대적으로 군대를 수송하기 시작.

1945년 12월 22일 미군 7함대가 국민당의 두률명부대를 호로도로 수송하기 시작.

1945년 12월 22일 국민당이 장춘에 저들의 시장을 파견함.

1945년 12월 27일부터 다음해 설날(1월 1일)까지 국민당

에서 임명한 시장들이 심양시와 할빈시로 들어감.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장개석국민당군대는 미군의 지원과 저들의 일시적인 력량상우세를 리용하여 심양과 장춘을 비롯한 동북지방의 주요 도시들과 철도연선지대들부터 장악하면서 남쪽으로는 단동과 통화, 북쪽으로는 할빈과 치치하얼, 동쪽으로는 길림방면으로 진출하여 장차 동북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공산당군대는 8.15직후 차지하고있던 단동시를 비롯한 압록강연안의 넓은 지역과 중요대도시들과 철도연선지대를 내놓고 일시 농촌산간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소화부대는 연안근거지와도 련계가 끊어져 홀로 국민당군대와 싸우게 되였으므로 군사지휘성원들은 자기 가족들을 미리 후퇴시켰는데 그들이 도중에서 국민당군대의 습격을 받고 돈화지방으로 끌려가고있었다.

부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시각에 소화는 위대한 수령님께 방조를 요청하였다.

소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견을 듣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군구사령부 참모장을 조선에 보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가시여 새 조선의 항공대창설을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린접해있는 단동에서 료동군구가 매우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는것을 아시기에 자주 압록강가에 나가시여 쌍안경으로 단동시내를 바라보시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가 찾아온 참모장을 신의주에서 만나시였다.

참모장은 소화사령원의 긴급요청을 가지고왔다. 그 요청이란 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동으로 건너오시여 위기에 직면한 료동군구의 사태를 수습할수 있는 고견을 주실것을 바란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해인 1945년 겨울 료동군구사령원이였던 소화가 단동에서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여왔다고, 그는 국민당군대가 곧 단동으로 공격하여오게 되며 단동에 주둔하고있던 자기 부대는 철수한다고 하면서 단동까지 와주실것을 요청하였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신의주에서 밤에 단동으로 건너가시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당시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문제와 국제관계문제를 고려하여 수령님께서 단동에 가시는것만은 삼가해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류하는 일군들에게 지금 일부 사람들은 국제관계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혁명을 돕는것을 주저하고있는데 우리 조선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떠난 국제관계를 생각할수 없다, 장개석국민당군벌들이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등에 업고 중국혁명에 도전해나서고있고 중국혁명앞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고있는 이때에 국제관계문제만을 생각하면서 중국혁명을 돕는것을 주저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의 립장과 태도가 아니라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중국혁명에 대하여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다, 중국인민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와 한 전호속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한 혁명전우라고 하시면서 준엄

한 전구인 단동에 직접 가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화사령원의 요청대로 주체34(1945)년 11월 29일 밤 일신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압록강을 건너 단동의 료동군구사령부를 찾으시였다.

소화는 이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적은 없었으나 이미 오랜 항일전쟁과정의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의 빨찌산장군이시고 조중인민의 동지적우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주의자의 귀감이시라는것을 자기 군구에서 사업하는 황옥청을 통하여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황옥청은 대일작전이 선포된 시기 주보중이 인솔하는 항일련군부대와 함께 동북에 나와 쏘련군주둔지역에서 치안임무를 수행하다가 료동군구에 소속되여 사업하였다.

황옥청은 쏘련의 원동훈련기지에서 국제련합군시기 로어통역을 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한부대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대일작전이 림박하고있던무렵 위대한 수령님과 주보중이 장차 동북을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본토해방을 위한 강력한 기지로 꾸릴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는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주보중은 위대한 수령님께 동북지방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항일련군의 지휘력량강화를 위해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관들을 보내줄데 대해 요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수락하시여 강건을 비롯하여 최광, 박락권 등 많은 핵심들을 파견해주시는 중대조치를 취하시였다.

황옥청은 그때를 회상하며 동북해방전쟁은 원동훈련기지에서부터 벌써 그 승리의 시초가 마련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였다.

황옥청의 회상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패망이 시간적문제이기는 하나 그후의 동북정세가 걱정된다고, 그래서 요즘 주보중이 밤잠도 제대로 못잔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도 힘껏 돕겠다고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혁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였기에 소화사령원의 요청에 주저없이 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포소리가 그칠새없고 장개석이 미국에서 끌어들인 비행기들이 눈먼 폭탄을 마구 떨구고있는 단동으로 주저없이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너진 벽체들과 폭탄구뎅이들을 에돌아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지휘성원들은 일신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여 자기 부대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철수준비를 하느라 어수선한 사령부사무실들을 지나 소화사령원의 방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여온 군구지휘성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방안에는 2개의 초대가 타고있었고 벽에는 성에가 하얗게 서리여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어서시자 즉시 군구지휘성원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희망이 비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군구지휘성원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안부부터 물으시였다.

그러자 군구지휘성원들은 가족들이 먼저 할빈으로 후퇴하던 도중 국민당군대의 습격을 받아 현재 돈화지방으로 끌려가고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되였다고 하시고는 걱정말라, 이제 구출대책을 세우자고 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시였다. 그이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34(1945)년 11월 29일
중국 단동에 가시여 작전회의에 참가하시였던
료동군구사령부자리

말씀에 모두의 얼굴들이 밝아졌다.

이윽고 작전토의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소화사령원이 군구사령부와 그 산하 부대들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대하여 관내에서 온 중국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도상에서 이름없는 두메산골로부터 산과 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아군의 배치상태와 기동상태, 적군의 배치와 기동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고나서 동북지방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사태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추이 그리고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이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당장 닥쳐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사리정연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재 동북지방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동방정책》이 가져다 준 산물이며 장개석도당의 반쏘반공정책과 매국배족적인 대미추종정책의 연장이라고 하시면서 동북해방전쟁에서 국민당은 반드시 패하고 공산당이 승리할수 있다고 하시며 그 요인을 천명하시였다.

첫째로, 중국공산당이 진행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장개석이 진행하는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기때문에 국민당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고 병사들의 전투사기를 높일수 없으며 장기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력량을 계속 보충할수 없다.

둘째로, 이미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여실히 폭로된것처럼 장개석군대는 군벌호상간의 알륵관계와 장교들과 병사들간의 모순, 군대와 인민들간의 모순으로 하여 그 수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셋째로, 중국 동북지방인민들은 이미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면서 장개석군벌들의 매국배족행위를 잘 알고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을 받아 각성되고 단련되였기때문에 그 누구도 다시 국민당에게 속지 않으며 예속되려고 하지 않는다.

넷째로, 동북에 기여든 장개석군대의 운명은 1941년도에 쏘련에 들어와 얼어죽고 굶어죽고 공포에 질려있던 파쑈도이췰란드군대의 운명과 같이 될것이며 남방에서 겨울을 모르고 지내온 장개석군대의 멸망을 다가오는 동북의 겨울이 더욱 재촉하게 될것이다.

다섯째로, 장개석도당은 공산당이 더 큰 세력으로 자라나기 전에 깔고앉으려고 전쟁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험

을 하여 동북에 왔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산이다. 왜냐하면 동북땅을 완전히 깔고앉으려면 적어도 몇백만군대가 있어야 하겠는데 장개석은 겨우 100만군대밖에 동원하지 못하였다. 일본이 동북에서 100만의 관동군을 유지하고있으면서도 적수공권이나 다름없는 동북땅을 끝내 틀어쥐지 못하고 망하였는데 장개석이 100만이나 가지고서야 어림도 없다.

여섯째로, 중국 동북땅은 조선, 쏘련과 잇닿아있기때문에 어려울 때 필요한 원조를 받을수 있지만 장개석은 동북땅에 들어와 사면으로 포위된 상태에 있으니 후방이 든든하지 못해 어쩔수없이 패망한다.

이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장차 공세에로 넘어갈수 있는 전략전술적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 들어온 적지 않은 팔로군부대들은 아직 유격투쟁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으며 군사작전과 행동에서 일치성도 보장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여러 지방에 분산적으로 주둔하고있으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있는 지역을 사수하는데만 급급하였고 국민당군대의 대규모적인 군사적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리지 못하고있었다. 당시 단동지방에 주둔하고있던 팔로군부대의 지휘관들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단동지방을 계속 고수하고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적들에게 단동을 내주고 일시 농촌의 산간지대로 후퇴하였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공격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료해하시고 적들의 무분별한 공격앞에서 차지한 지역을 사수하는데만 매여달리

는것은 놈들의 각개격파전술앞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는것이며 적들의 대공세앞에서 무작정 물러서는것도 결국은 패배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적들의 대규모적인 공세와 각개격파전술앞에서 지역사수에만 매여달리는것은 결국 자멸을 의미하는것이다, 지금의 형편에서는 적극적인 대선회작전과 포위전으로 심양, 장춘을 비롯한 중요도시들과 철도연선들에 집결되여있는 적들의 병력을 분산약화시키며 적들을 한 지역씩 단계별로 섬멸해버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전술적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첫째로, 무모한 정면충돌을 피하고 도시들을 내주어 적들의 력량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그대신 농촌에 강력한 근거지를 꾸려야 한다.

둘째로, 군대내에서와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방지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적후에서 대부대기동전과 유격전을 광범히 전개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들의 력량을 극도로 약화시켜야 한다.

넷째로, 해방지구에서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군민관계를 옳게 유지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장개석국민당군에 식량과 물자를 내주지 말며 팔로군을 성심성의로 원호해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다 정 곤난하면 백두산에 들어

가라, 백두산은 당신들의 믿음직한 후방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자 모임에 참가하였던 군구지휘성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하나와 같이 박수를 치며 환성을 터치였다.

그날의 그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였던 중국의 황옥청은 자기의 회상실기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되새기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도 생각하면 주석동지의 말씀을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우리 지휘성원들의 광경이 환히 떠오른다.

아군의 활로를 열어주고 초조와 불안에 싸인 사령부의 기류를 희망과 신심으로 일변시킨 그분의 지략에 접한 우리의 심중에 소용돌이친것은 망망대해에서 항로를 잃고 헤매이다가 등대를 만난 선원들의 심정 그대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뜨거운 은정에 고무된 팔로군부대들은 그후부터 적들을 분산약화시키면서 차지한 지역들을 일단 내주고 산간지대들에 들어갔다가 대대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기 위한 만단의 정치군사적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때 단동을 중심으로 압록강연안일대에 주둔한 부대들도 이미 차지하고있던 지역들을 적들에게 일시 내주고 적들을 역포위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와 의주, 황초평과 룡암포, 청수와 수풍일대에 들어왔다가 다시 만포쪽에서 압록강을 건너 관전, 집안지대를 차지하고 적들을 답새기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우리 나라의 렬차와 자동차,

배들을 다 동원하여 팔로군부대들의 기동을 보장해주도록 하시였으며 많은 무기와 탄약, 식량과 의약품 등 군수물자들도 지원해주도록 하시였다.

장개석국민당 반동군벌들이 일시 단동을 비롯한 압록강연안지역을 강점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경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시여 장개석반동군벌들의 무분별한 국경침범책동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시였다.

그후 팔로군은 위공작전을 벌려 적들에게 일시 내주었던 단동시를 다시 해방하였으며 계속 전과를 확대하여 단동과 심양을 련결하는 지역에 제2전선을 형성하고 적들의 퇴로를 차단한 다음 동북의 여러 지방에 깊숙이 기여들었던 장개석국민당군대를 섬멸하기 위한 대소탕전을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11월 29일에 단동에서 하신 연설은 그후 동북민주련군과 조선인부대들에 널리 전달되였다. 조선인부대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내용을 가지고 학습토론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회의도 하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소화사령원과 하신 약속대로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인 박락권이 지휘하는 조선인부대에 명령하시여 장개석군대에 붙들려 돈화방면으로 끌려가고있던 소화사령부 지휘성원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하시였다. 박락권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자 즉시 한개 대대를 데리고 돈화방면으로 가서 렬차를 탈환하여 지휘성원 가족모두를 구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군대에 의하여 무사히 구원된 료동군구지휘성원들의 가족들은 너무도 고마와 눈물을 흘

리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사경에서 구원해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모두를 조선북부의 안전한 지대에까지 소개시키고 김일을 보내시여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월의 그날밤 소화사령원이 자기부대의 부상병들과 환자들, 일부 군속들을 조선경내에 받아들여달라고 한 요청도 잊지 않으시고 신의주와 청수, 중강 등지의 길을 열어주시여 중국공산당의 군대와 인민들이 우리 나라 북부지대의 안전한 곳에서 치료하도록 해주시고 휴식을 충분히 하고 다시 전장으로 갈수 있게 돌봐주시였다.

소화사령원은 이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하여 감회깊게 회고하였다.

※ 동북해방전쟁때 료동군구사령원이였던 소화는 1979년 9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당시 소화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국인민해방군 란주군구 정치위원이였다. 1979년 9월 24일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으며 우리 나라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소화는 우리 나라에 친선참관단 단장으로 왔을 때에도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은 중국의 믿음직한 후방이다. 중국혁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데서 큰 힘을 얻어 싸워 승리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신 동시에 중국혁명가들이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마당에서 굳

게 믿고 따른 가장 진실하고 훌륭한 동지이시였다.

소화는 그후 부대를 이끌고 새로운 전방으로 이동하였으며 력량을 더욱 보강하여 동북해방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보중을 만나시고

주체35(1946)년 3월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남양에 가시였다. 평양에서 남양은 먼거리이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진행되여 온 나라에 밭갈이노래 높이 울리던 그 시기 국사에 매우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그곳까지 가시게 되였는가.

그것은 이웃나라 중국혁명을 돕기 위해서였다.

강 하나를 사이두고있는 남양과 마찬가지로 중국 동북지방에도 봄빛은 짙어가고있었으나 자연의 봄과는 상반되게 정세는 나날이 엄동설한처럼 엄혹해지고있었다.

장개석이 동북을 차지할 야심밑에 여기에 들이민 국민당대군이 길림, 교하를 거쳐 돈화와 연변지구에로 물밀듯이 쓸어들어오며 해방지역까지 위협하였다.

이 시기 미국제무기로 무장하고 미국의 지원밑에 하늘과 땅과 바다로 거침없이 밀려든 장개석군대는 당장 공산당과 인민정권, 인민무장대를 일격에 집어삼킬 기세로 덤벼들었다. 력량대비에서 아군은 적들에 대비도 되지 않았고 그 장비수준도 말할수 없이 락후하였다. 게다가 적들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는 방어진지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

사실 장개석군대가 이렇게 빨리, 그렇게 많이 동북으로 밀려들어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바로 장개석은 공산당군대가 자기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약점을 간파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급히 저들의 군대를 동북땅으로 들이밀었던것이다.

주보중은 당시 중국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 길료군구 사령원으로서 이 정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마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혁명을 돕기 위하여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여있던 강건과 박락권의 사업을 료해하고 급변하고있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려고 그들을 남양으로 부르시였다. 주보중은 급기야 강건, 박락권과 함께 남양으로 가기로 하였다.

※ 1946년 1월 14일 동북인민자치군을 동북민주련군으로 개칭하고 그밑에 동만, 서만, 남만, 북만의 4개 군구를 조직하였는데 주보중은 동만군구 사령원이였다. 동만군구에는 산동 2사 25련대, 제7종대와 길동, 통화, 료북 3개 분구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 동북지방 도문의 대안 남양에까지 몸소 가신것은 동북이 처한 정세로 보아 빨리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렬차는 아침에 남양역에 도착하였다. 그때 강건과 박락권, 주보중이 그이앞에 나타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보중을 만나시자 반갑게 그의 두

손을 잡으시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고 걱정부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받고 주보중은 속으로 뜨거운 것을 삼키며 그이를 우러르며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였다.

그 전해인 1945년 8월에 쏘련의 하바롭스크 북야영에서 헤여진 다음 겨우 반년이 좀 넘었는데도 오래동안 뵈옵지 못한것처럼 생각되는 장군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전쟁의 나날 어깨겯고 함께 싸운 전우인 주보중이 반년 남짓한 사이에 퍼그나 늙어보이는 모습에서 현재 동북혁명이 겪고있는 진통을 제꺽 헤아려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강건과 박락권이 먼저 구체적인 실태를 보고드리였다.

주보중은 중국혁명이 처한 위기를 타개할 출로를 열어주시고 전국을 역전시킬 방략을 제시해주실것을 바라며 위대한 수령님께 동북의 군사정치정세와 난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후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다가 적의 침공으로부터 연변지구와 동북의 해방지역들을 보위하고 공산당이 수세에서 공세에로 넘어갈수 있는 전략전술적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할바령을 중심으로 한 로야령산줄기와 송화강계선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킴으로써 이미 혁명의 보루로 꾸려놓은 해방지역을 보위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미 항일대전시기 수없이 밟아보고 눈에 익혀오신 동북의 산과 강, 골짜기와 숲들을 렬거하시면서 할바령을 중심으로 한 로야령산줄기와 송화강이북지역 그리

고 그 서남부의 지리적특성에 맞게 방어진지를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고 적들이 덤벼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멸해야하며 아군은 어디서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북만과 남만의 조선인부대들을 총동원하여 적아의 력량관계와 수시로 변하는 정황에 맞게 병력의 집중과 분산, 견고한 진지에 의거한 완강한 방어전과 적배후타격전의 배합 등 다양한 전법을 활용하여 적을 계속 타격하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개석군대의 공격을 저지파탄시키며 당면하게는 사평계선에 포위되여있는 중국인부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장춘해방전투를 벌려야 한다는 전술적인 대책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북해방전쟁의 새로운 전략전술을 밝혀주신 온성군 남양국경려관
주체35(1946)년 3월 28일



박 영 순

1905년 10월 19일 출생. 해방전 중국 화룡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조선인민군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으로 사업하다가 주체76(1987)년 8월 18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까지 세워주시였다.

사평계선에서 포위된 중국인부대(공산당)는 당시 동북지구에서 가장 큰 부대중의 하나인데 이 부대가 포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장차 동북해방전쟁에서 큰 타격으로 될수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장춘에 도사리고있던 악질부대를 쳐서 포위를 뚫게 하라고 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주보중에게 모택동동지의 특사로 진운이 찾아와 무기를 요구하였는데 이제 곧 보내주겠으니 무기걱정은 하지 말라고, 앞으로도 자신과 조선인민은 중국 동북혁명에 최대의 지원을 줄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동북지방의 지리적특성과 적아간의 력량관계, 장차 있을수 있는 정황들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하시고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강건과 박락권, 주보중에게 커다란 힘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조직된 조선인부대들과 우리 나라와의 통신련락을 더욱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면서 항일혁명투사 박영순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시였다.

주보중은 항일의 그날처럼 동북해방전쟁의 시기에도 사심

없는 지원을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과 중국인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양국경려관에서 주보중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신 후 신심과 희망에 넘친 그를 떠나보내시였다.

강력한 방어진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할바령과 로야령산줄기, 송화강이북지역과 서남지역에서 방어공사가 힘차게 벌어졌다.

지병학과 송무선이 속해있던 부대와 리홍광지대에서는 할바령과 화수림자, 휘남현성을 비롯한 넓은 계선에서 방어진지를 꾸리기 위해 투쟁하였다.

1946년 겨울은 유별나게 눈이 많이 내렸다. 산에 내린 눈은 전사들의 허벅다리를 쳤다.

전투원들은 사나운 눈보라를 무릅쓰고 로야령산줄기를 따라 전호를 파고 땅굴집을 지었다. 그 전호의 길이는 수백여리나 되였다. 이 시기 지휘성원들과 전사들은 전투와 방어공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자력갱생하여 해결하였다. 전사들은 신발이 부족하여 짚신을 삼아 신었고 속옷이 없어 맨 솜옷만 입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갖은 곤난을 무릅쓰고 유수차, 대두자, 대장원, 석도하자 등 많은 지역에서 국민당군대와 보안대를 부단히 습격하여 많은 유생력량을 소멸하면서도 로야령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호하였다.

1946년 11월 리홍광지대는 신개령을 지키는 한편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할 임무를 맡았다.

살림집이 한채도 없는 신개령의 험산준령에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전사들은 나무를 찍어 귀틀집을 짓고 거기에서 방어공사를 하였다. 겨울옷이 미처 공급되지 못하여 람루한 흰 솜바지와 솜저고리를 입고 울로초짚신감발을 하고 수수밥이나 강냉이가루떡을 짠 무우와 함께 먹으면서도 모두가 사기왕성하여 언땅을 파고 전호와 화점을 설치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국민당군대를 동만의 한치의 땅에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각오밖에 없었다.

전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억척스럽게 일하여 기한전에 방어공사임무를 끝내고 상급의 표창을 받았다.

리홍광지대는 그후 1947년 3월에는 휘남현성을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하였고 조양진, 해룡일대에서도 공세를 들이대였으며 이어서 공업도시 료원시를 해방하고 1947년 9월 중순부터 11월초까지는 공주령, 사평, 개원 등을 해방하는 대공격전에 참가하였다. 그후에는 방어로부터 공격에로 넘어가 1947년 10월 25일에는 길림시교외의 402고지를 탈취하였고 철가산전투, 전오가자전투, 양가교전투 등 공격전을 벌려 련전련승하였다. 왕청보안련대에 있던 조선인중대도 1946년 5월부터 11월까지 할바령에서 연변으로 나가는 국민당군대를 막기 위하여 다른 중대들과 함께 방어공사를 진행하였다. 중대지휘부에서는《여기도 싸움터!》라는 구호를 내걸고 10여㎞ 되는 구간에 전호, 교통호, 엄페호를 파고 화점을 구축하였다. 중대는 하루에 3교대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일하여 기한내에 방어공사를 마감지었다. 이 방어공사에서 《꼬리없는 소》로 불리운 구자춘,《고동마》라고 한 정도학,《곰》으로 불리운 정

창주는 길동분구로부터 영웅칭호를 수여받았고 10여명이 큰 공을 세웠다.

지병학이 련대장으로 있던 부대에는 16살난 리순임이라는 처녀병사가 있었다. 그는 녀성의 몸으로 부대에 입대한 후 할바령지역의 방어공사에 동원되였는데 남자들보다 흙짐을 더 많이 나르면서도 식사를 보장하였으며 적들이 달려들면 남자들과 함께 전투에도 참가하여 공을 세워 방어공사가 끝난 후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견고한 방어진지에 의거하여 완강한 방어전을 진행하면서 국민당군대를 타격하기 위한 공격전을 백수십차나 벌리는 과정에 길림, 돈화, 화전계선에서 날치던 국민당군대는 혼란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였고 많은 병력을 잃은 부대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되였다.

동북해방전쟁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였다. 1946년 12월 중순부터 1947년 4월초까지사이에 있은 림강보위작전은 국민당의 남만해방지구에 대한 거듭되는 공격을 막아낸 방어전과 적극적인 반타격전의 대표적인 작전이였다. 이것을 일명 3하강남 4보림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아군부대들이 세번 송화강을 넘어와서 적을 치고 림강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네번이나 막아냈다는 의미이다.

견고한 방어진지에 의거하여 완강한 방어전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안은 동북해방전쟁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제1차 장춘해방전투

동북해방전쟁 초시기 동북의 정세는 중국공산당에 매우 불리하였는데 특히 장춘지구가 매우 심상치 않은 형편에 놓여있었다.

일제가 패망한 직후 동북의 대도시들을 중국공산당군대가 차지하였으나 《중쏘우호동맹조약》에 따라 도시들을 내놓는 바람에 1946년 1월 장춘도 장개석에게 넘겨주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산당군대는 장춘에서 나오고 장개석이 비행기로 수송한 국민당군대가 장춘을 타고앉게 되였다.

장개석군대는 심양—장춘간 철도를 따라 철령, 사평계선으로 계속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중국공산당군대가 사평계선에서 필사적으로 방어하였으나 아군은 8 0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였다.

장개석은 포위에 든 공산당군대를 몽땅《소멸》하고 동북지방에서 저들의 작전을《영예롭게 결속》하려고 시도하였다. 장개석은 병력과 무장장비를 계속 보충하면서 포위의 올가미를 점점 더 조이고있었다.

공산당군대는 좁은 포위망안에서 군수물자도 받지 못하고 탄약과 식량도 떨어져 날이 갈수록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게다가 좁은 포위망안에서 위생조건까지 불비하다보니 환자들이 생겨 사망자가 매일같이 늘어났다.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공산당군대는 파멸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였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28일 남양에서 강건과 박락권을 만나시였을 때 동북민주련군을 도와 장춘해방전투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에 파견되여있는 강건과 박락권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장춘해방작전을 벌려 사평계선에서 포위되여 위급한 처지에 있는 중국공산당부대들의 퇴로를 열어주라고 교시하시였다.

장춘해방전투에는 길동분구사령부산하 박락권이 인솔하는 1련대와 포련대를 비롯한 2만여명의 조선인부대가 동북민주련군부대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전투는 1946년 4월 14일에 시작되였다.

4월 14일에는 먼저 장춘시교외에 널려있는 적들을 섬멸하였다.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장춘시내에 대한 총공격이 시작되였다.

박락권이 지휘하는 련대는 법정대학과 공업대학에 틀고앉아있는 적들을 소멸할 임무를 받고 치렬한 시가전을 벌렸다. 폭약이 부족하여 군용곡괭이로 적보루의 벽체에 구멍을 뚫고 그속에 수류탄묶음을 박아넣군 하였는데 그 폭발이 대단하였다. 전사들은 수류탄묶음으로 열어놓은 통로로 공업대학의 웃층으로 올라갔으며 적들의 기관총을 피해가면서 파손된 문짝을 모아 불을 질러 웃층의 적들이 연기속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든 다음 달려들어 육박전으로 적들을 소멸하였다.

조선인부대는 법정대학과 공업대학을 점령한 후 이번에는 대륙과학원을 점령할 임무를 받았다. 대륙과학원은 당시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과학연구기관이였는데 화강석으로 지은

6층청사는 적들이 장춘을 고수하는 남단의 가장 중요한 방어거점으로 삼고있었다. 적들은 한개 중대를 여기에 주둔시키고 정문과 지붕에 모래마대로 방어진지를 만들었으며 창문마다에 각종 화력무기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청사앞에는 철조망을 늘이고 록시를 박아놓았다.

박락권은 1대대에 화력을 집중하여 적들을 제압한 후 공격할것을 명령하였다. 오후 2시 공격은 시작되였으나 높은 위치에서 드센 불질을 하는 적들의 화력을 압도할수 없었다.

기관총의 엄호를 받으며 폭파조가 몇차례 포복전진하였으나 적들의 화력이 너무 맹렬하여 희생자만 내고 어쩌지 못하고있었다.

박락권은 포사격을 명령하였다. 몇문의 포가 청사지붕과 청사앞에 설치한 장애물들을 마구 짓부셨다. 이때 기관총도 세차게 불을 뿜었다. 포탄 한발이 요란한 폭음과 함께 대륙과학원에 불을 질러놓았다. 아군의 드센 화력에 적들의 화점은 하나하나 벙어리가 되고 아군의 사기는 올랐다.

박락권은 이때 돌격명령을 내렸다. 전사들은 수류탄으로 청사앞의 화점을 까부시며 돌진하였다.

청사에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자 적군은 아래층으로 몰려들었고 여기서 육박전이 벌어지자 적들은 저마다 살구멍을 찾아 뛰기 시작하였다. 총을 바치면 죽이지 않는다는 박락권의 호령과 투항하라는 대원들의 웨침소리에 당황해진 적들은 총을 내던지고 손을 들었다. 대륙과학원은 점령되였다.

이때 한개 분대가 계속 적을 따라 공격하다가 적진깊이 들어가게 되였다. 정황을 판단한 전사들은 얼른 적들의 시체에서 국민당군복을 벗겨 입고 부대를 찾아 돌아오면서 적들

의 자동차를 로획하였다. 분대는 무사히 아군진지에 도착하였을뿐아니라 차에 탔던 한개 소대도 넘는 많은 적들을 포로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련대는 전과를 확대하면서《협화회》중앙훈련소와 만주광산살림집구역에로 돌진하였다. 여기서 련대는 적들이 주력이라고 떠드는《철석부대》와 맞다들었다.《철석부대》는 주로 일본군패잔병들로 구성된 악질부대였다.

적들은 3층으로 된 훈련소건물과 살림집구역들에 경기 10여정, 박격포 3문, 중기 5정, 척탄통 10여문을 설치하고 련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박락권련대장의 돌격구령이 떨어지자 전사들이 성난 호랑이와 같이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적탄이 비발치고 전사들은 쓰러졌다. 가슴에 적탄을 맞은 전사들은 쓰러지면서도《나는 념려말고 계속 전진하오.》하며 동지들을 격려하였다. 혈전은 밤에도 계속되였다. 4월 16일의 전투는 더 가렬하였다.

《협화회》중앙훈련소와 만주광산살림집구역으로 통하는 골목마다에는 적들의 시체가 깔려있었다. 아군도 손실이 적지 않았으나 전사들의 사기는 계속 고조되였다.

만주광산살림집구역을 공격하던 전사들은 얼마후 좁다란 골목에 들어서게 되였는데 이곳을 통과해야만 적진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골목에 들어서서 탄우를 무릅쓰고 결사전을 하여 끝내 그곳을 통과하고 드디여《협화회》중앙훈련소와 만주광산살림집구역에까지 들어가 돌격시간을 기다리게 되였다.

이윽고 붉은 신호탄이 오르고《철석부대》를 일격에 소멸하기 위한 야간공격이 시작되였다. 적들은 미처 아군의 의도

를 알아차리지도 못한채 불벼락을 맞았다.

밤 9시, 적들이 그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자랑하던 《협화회》중앙훈련소건물과 만주광산살림집구역은 드디여 박락권련대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였고 《철석부대》도 녹아났다.

박락권련대와 동북민주련군부대들이 3일간의 맹공격으로 시내의 1/3을 점령하자 바빠맞은 적들은 담판을 제기해왔다.

적들은 이 담판으로 시간을 얻어가지고 방어시설을 완비하여 아군의 진격을 기어이 막아보려고 하였다.

박락권련대장은 담판을 거절하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들이댔다.

적들이 그 요구를 거부하여 담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군은 다시 전투에 진입하였다.

박락권련대는 적의 증원부대를 견제하고있던 최광이 지휘하는 부대의 후원밑에 련속적으로 도시중심부로 전과를 확대하였으며 적들의 총지휘부가 도사리고있던 중앙은행청사를 비롯한 주요기관들을 점거하여 장춘해방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훌륭한 군사지휘관이였던 박락권련대장이 대오의 앞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박격포탄의 파편을 여러군데 맞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날은 1946년 4월 18일이였다. 그는 적진으로 접근해가는 전사들을 계속 엄호하다가 그만 적탄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의 이마와 가슴에서 선지피가 샘솟듯 흘러나왔다.

전선구급소에서 의식을 차린 박락권련대장은 전투형편을 알아보고나서 아군이 계속 드센 공격을 하여 적들을 소멸한다는것을 알자 마음을 놓으며 가까스로 말하였다. 《동무

들 난 이젠… 그러나 혁명에 바치는 목숨이니 …기쁘오. **김일성**장군님의 안녕을…》

그리고 그는 품속에 손을 넣었다. 전우들이 그를 도와 그의 품속에서 손수건에 싼 물건을 꺼내 펼쳐보니 그속에는 박락권련대장이 그때까지 받은 메달과 훈장들이 있었다. 그는 《혁명이 승리하면 이 메달과 훈장들을… 우리 어머니에게…》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이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다는것을 꼭 말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였던것이다. 박락권련대장은 28살을 일기로 피끓는 청춘을 우리 나라 혁명과 중국혁명을 위하여 바쳤다.

그가 장춘해방전투에서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길동분구사령부에서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무전수인 박경숙이였다.

그는 무전으로 장춘과 계속 련계를 가지고있다가 뜻밖에도 박락권련대장의 희생에 대한 전문을 받았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함께 싸워온 전우, 몇달전에 그가 룡정에서 결혼하여 장래를 축복받던 일이 눈앞에 선하였다. 이 사실을 박락권련대장의 안해에게 어떻게 알린단 말인가…

박경숙은 눈물이 앞서 인차 상급에 보고할수 없었다. 보름전에 강건, 주보중과 함께 남양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와 이제는 막혔던 고리들이 다 풀리게 되였다고 기뻐하며 우리 사령관동지께서 포위된 중국인부대를 구원하기위해 장춘해방전투를 하라고 하시였는데 내 장춘에 얼른 갔다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던 박락권련대장이 이렇게 가다니…

박경숙은 무전대앞에서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가까스로 일어나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강건에게 우선 이 사실을 알리러 갔다.



박 경 숙

주체10(1921)년 9월 27일 출생. 해방전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중국 연길현에서 강건(남편)의 지도밑에 길동분구사령부에서 무전수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함. 년로보장을 받고있음.

박경숙은 북받치는 오열을 가까스로 참으며 남편인 강건앞에까지 갔으나《박락권동무가…》하고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강건은 모든것을 알아차리고 일시에 굳어진듯 서있더니《아, 이 사실을 우리 사령관동지께 어떻게 보고해야 하오. 일제와의 싸움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살아온 박락권이 조국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다니…》하고는 창문쪽으로 돌아서서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비분에 떨었다.

박락권은 1932년에 왕청현 석현에서 지하공작을 하였고 1933년에는 소왕청지구에서 공청비서사업을 하였으며 그후 훈춘현 대황구근거지에서는 돌격대 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박락권은 항상 당과 혁명에 충실하였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무비의 용감성과 불굴의 투지로 원쑤들을 족치였다.

1933년 여름 훈춘전투에서 그는 배에 상처를 입었는데 손으로 창자를 밀어넣으면서 전투를 하고 그 길로 걸어서 밀영에 돌아온적도 있었다.

항일전쟁시기 주보중의 부관을 하면서 부상당한 주보중을 업고 적들의 겹겹한 포위를 뚫고 끝내 부대로 찾아온적도 있었

다. 그는 조국이 해방된 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여 중국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길동분구 제1련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전투를 지휘하였다.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다부진 체격, 중국말도 류창하게 하고 싸움에선 맹호같은 그였다. 결혼한지 몇달밖에 안되였지만 그는 계속 전장에 있었다.

1946년 1월 25일부터 박락권련대장은 토비숙청에 참가하여 삼도만전투로부터 대황구, 묘령, 천교령, 락타산, 아미달령 등 전투에서 마의봉, 리무청, 류탄장의 토비부대를 섬멸하였다. 그리하여 토비들은 《조선족련대》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조중련합부대의 용감한 투쟁으로 하여 총공격을 개시한지 5일만에 장개석의 아들 장경국이 위수사령관으로 들어앉아있던 장춘은 완전히 해방되였다. 아군은 2 500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1만 4 000여명을 포로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장춘이 해방됨으로써 사평계선에서 포위되였던 중국공산당군대의 퇴로가 열리게 되였고 동북해방전쟁승리의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이 전투에서 박락권련대장이 희생된데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전사를 잃은데 대하여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장춘해방전투의 앞장에서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박격포탄파편을 여러군데 맞고 전사했다는데 최후를 박락권이답게 마치였다고, 그는 조중인민이 다같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력사에 남아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중국공산당에서는 희생된 박락권을 추모하여 연길에 그의 비석을 세워 동북해방위업에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그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였다.



박 락 권

주체7(1918)년 3월 3일 출생. 해방전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중국 연길현에 파견되여 길동분구사령부 야전군 1련대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주체35(1946)년 4월 18일 장춘해방전투에서 전사. 항일혁명렬사임.



제1차 장춘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박락권렬사의 추모비

휘남현성전투

1946년 10월 19일 동북의 국민당군은 《남공북수, 선남후북》의 전략을 세우고 우선 남만근거지에 병력을 집중하고 공격을 개시하여 일거에 남만부대를 소멸한 후에 전체 병력이 북으로 공격하여 전동북을 독차지할 야망을 실현하려고 기도하였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당군은 9개 사단 약 10만명의 병력을 집중하여 3개 방향에서 남만해방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에도 조선인부대들이 백두산지구와 로야령산줄기의 대산림지대에 의거하여 유격전과 산악전, 동기대부대기동작전을 벌려 적들을 숨쉴새없이 수세에 몰아넣으며 송화강이남에 진출하여 적의 집단을 타격소멸함으로써 남만일대에 집중되여있는 적의 력량을 분산약화시키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장백, 림강, 무송일대는 높고 험한 산발과 천고의 밀림으로 뒤덮여있는데다가 겨울에는 기온이 -30℃～-40℃까지 내려가고 눈이 키를 넘게 내리기때문에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겨울을 모르고 지내던 장개석군대는 추위에 견디지 못하였고 산악전에 경험이 없으므로 어쩌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이런 약점을 미리 타산하시고 동기대부대기동작전을 펼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리홍광지대가 동북민주련군과

함께 진행한 대표적인 전투의 하나가 휘남현성전투이다.

남만의 휘남현성은 장개석군대가 군사전략상 매우 중시하던 곳이였다. 국민당 동북집단군사령부가 도사리고앉은 심양을 보위하는 동쪽의 보루가 매하구라면 휘남현성은 그 매하구를 지키는 전초진지였다.

매하구는 북으로 길림, 장춘과 통해있고 서북쪽으로는 사평과 통해있었으며 서쪽으로는 직접 심양과 이어져있었고 남쪽은 통화와 통해있는 군사요충지였는데 바로 이 요충지를 고수하자면 휘남현성을 잘 지켜야 하였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국민당군대는 휘남현성에다 저들의 한개 련대와 승냥이무리로 되여버린 토비 한개 보안대대를 주둔시켜놓고 아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시도하고있었다.

1947년 2월말에 남만의 리홍광지대는 중국동지들과 함께 휘남현성주변마을에 박아놓은 국민당군 소부대들을 섬멸하고 휘남현성을 포위하였으며 휘남현성에서 조양진으로 빠지는 도로까지 차단하였다. 이렇게 되니 휘남현성의 적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였다.

적들은 한개 대대의 국민당군과 보안대대의 한개 중대를 성밖으로 내보내여 끊어진 길을 이어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자 제2련대 2중대가 황니하에 림시방어시설을 설치하고 성밖으로 나오는 적들을 타격하였다. 싸움은 가렬처절하였다. 적들은 저들의 무장장비를 자랑하듯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 3차례나 아군진지로 돌격해왔지만 그때마다 격퇴당하였다.

3련대의 한개 중대는 발악하는 적들을 일격에 소멸할 임무를 받고 반돌격의 주력으로 앞장에 나섰다. 적기관총 3정이 아군의 진격로를 막는 바람에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

다. 적의 진지를 탈취하여야 할 임무를 받고 돌격하던 중대는 약속된 시간 20분전까지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대대장은 불을 뿜는 중기관총들을 까부실데 대한 명령을 조성두에게 주었다. 조성두는 지뢰 3개를 몸에 지니고 적의 중기가 있는 고지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적들의 기관총사격이 그에게로 집중되였다.

조성두는 전우들의 엄호를 받으며 계속 앞으로 나갔다. 엄페물로 삼은 관목림의 나무가지가 적들의 기관총사격에 뭉청뭉청 끊어져 눈우에 떨어졌다.

포복전진하다가 벌떡 일어나 나무사이로 달리던 그는 땅우에 널려있는 나무가지에 발이 걸려 앞으로 나딩굴었다. 그 바람에 땀에 흠뻑 젖은 그의 털모자가 눈우에 떨어졌다. 순간 그의 머리에는 털모자를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앞으로 달리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나다를가 적들은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그의 모자에 대고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그 모자를 보고 사람이 눈우에 엎디여있는줄로 알았던 모양이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조성두는 날래게 적들의 사격권을 벗어나 지뢰 3개로 적기관총들을 다 벙어리로 만들었다.

아군전사들이 함성을 울리며 돌격하였다.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휘남현성안으로 도망쳤다. 조성두는 도망치는 적들의 등에 대고 불벼락을 안기였다. 명령받은 그 시각에 반격전은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휘남현성에 대한 포위진이 좁혀지자 휘남현성에 들어박혀있던 적들은 휘남현성을 지키는 지탱점인 휘남현성의 남산고지를 강화하였다. 적들은 이 남산고지를 난공불락의 강철의 고지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아군은 남산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방안을 세우고 화력배치, 돌파구, 총공격시간 등을 정해놓고 정찰을 더욱 강화하였다.

1947년 3월 2일은 음력대보름날이였다. 전사들은 대보름 저녁식사를 푸짐히 하고나서 남산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 나섰다. 전사들은 솜옷을 뒤집어입어 흰색으로 보이게 하고 모자에도 흰천을 씌운 후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속으로 행군해갔다.

밤 10시경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전사들은 두텁게 쌓인 눈밑을 파헤치고 포복전진하여 4시간만에 적들의 첫 방어시설에서 100여m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적들이 단잠에 곯아떨어질 때까지 몇시간 더 기다려야 하였다. 그동안 그 어떤 기척도 내지 말아야 하였으므로 그것 역시 전투나 다름없는 힘든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적들의 방어시설은 아군정찰이 알아낸바와 같이 여간만 견고하지 않았다. 적들의 중심보루인 1호화점이 남산의 제일 높은 고지우에 둥실 올라앉아있고 그 주위에 T자형으로 2호, 3호, 4호 화점들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동남, 서남, 남쪽을 마음대로 사격할수 있었다. 화점에 놓인 총구로 보아 동쪽의 큰길과 남쪽 산릉선에 화력을 제일 많이 집중시켜놓고있었다.

새벽 5시, 아군의 진격나팔소리가 울렸다. 뒤따라 아군의 총포소리가 세차게 울린 때에야 정신이 든 적들도 부랴부랴 대응사격을 하였다. 아군의 중기는 화점 4개를, 경기는 화점 2개를, 보총 3자루는 화점 하나씩 책임지고 엄호사격을 하였고 전사들은 적의 화점을 향하여 맹호마냥 달려나갔다.

오후 1시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적의 화점들이 입을 다물었으나 중심에 있는 적의 중기들은 여전히 불을 토했다. 흰눈은 우리 전사들의 피로 물들여져 붉은 눈이 되였다.

소나무를 베여내고 세멘트콩크리트로 구축한 적의 1호보루 주위에는 3.5m너비의 도랑을 1.5m깊이로 파놓고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얼음강판을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경사면에는 철조망을 거미줄처럼 겹겹이 늘여놓고 철조망안에는 뾰족한 록시끝이 아래로 향하게 촘촘히 박아놓았다. 1호보루는 말그대로 겹겹의 해자, 가시철조망, 록시에 둘러싸인 성과 다름없었다. 진격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몇조의 폭파조가 돌격해 들어갔지만 폭파수들은 겨우 철조망과 록시를 까부시였을뿐 도랑을 넘어서지 못하고 희생되였다.

이 모든것을 지켜보던 3련대 조성두분대장은 자기 분대가 보루를 까부시겠다고 자원하였다. 조성두분대장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루를 까부시겠다는 결심밑에 적의 1호화점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런 정황속에서 오후 5시, 아군전선사령부의 총공격신호가 올랐다.

12명의 폭파조는 릉선을 타고 적의 화점에 신속히 접근하였다. 4명은 폭파수가 나갈 길을 열어제꼈고 5명은 엄호하고 조성두를 비롯한 3명이 지뢰를 안고 전진하였다.

적기관총들이 쉴새없이 폭파수들을 향해 불을 뿜었고 적들의 예광탄이 또한 계속 전장을 핥았다. 폭파수들은 쇠줄로 짝지발을 만들어 손발에 끼고 기여올랐다. 적의 화점을 가까이 할수록 기관총소리는 콩볶듯 하였고 화점주변은 앞을 가려볼수 없게 짙은 포연에 휩싸였다. 폭파수 한명이

적탄에 쓰러졌다. 그러나 조성두는 계속 전진할것을 단호히 명령하였다.

조성두는 오른쪽다리를 부상당하였으나 적화점 40m가까이까지 다가갔다.

그때까지 적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먼총을 마구 쏘아대였다. 그러다 조성두와 같이 가던 폭파수가 지뢰에 걸려 희생되자 그 폭음에 놀란 적들이 이번에는 조성두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때는 이미 조성두가 적화점 10여m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두 폭파수의 희생을 복수하기 위해서도 그는 기어이 적의 화점을 까부셔야 하였다. 조성두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한치 또 한치 피를 흘리면서 기고 또 기여갔다.

그는 끝내 적의 기관총구앞에까지 다가가 화점에 지뢰를 던져넣으며 방화선을 당겼다. 《동지들, 돌격앞으로!》 그는



육탄으로 적의 화점을 까부신 조성두영웅

기적적으로 상반신을 일으키며 웨치였다. 적의 화점이 하늘로 날아났다.

조성두는 이렇게 생을 마쳤고 영웅으로 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였다.

지휘관과 전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고지로 달려갔다. 남산고지는 점령되였다. 남산고지를 탈취한 조선인부대는 물밀듯이 휘남현성거리로 공격하여 2시간 남짓한 사이에 현성을 해방하였다. 아군은 이 전투에서 적 1 000여명을 소멸하고 400여명을 포로하였으며 포 17문, 기관총 21정, 보총과 단총 370여정과 많은 량의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조성두는 이 전투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은 첫 육탄영웅으로서 그후 동북해방전쟁에서 폭파수의 본보기로 되였다.

휘남현성전투후 남만일대의 동북민주련군 부대들에서는 《지뢰수 조성두용사》라는 노래가 널리 보급되였다.

지뢰수 조성두용사

휘남산포대 향해 돌진할 때
원쑤의 철조망과 차단물은
아군돌격의 장애물이다
지뢰를 터쳐 부셔버리고
부대의 돌격로 열자
3월 3일 저녁 5시
공격명령은 내렸다
조용사 정위 손잡고 남긴 말
인민 위해 몸바침은 응당한 도리

피끓는 가슴에 지뢰를 안고
용감히 포대 향해 돌진했다네
별빛은 반짝이며 붉은 얼굴 비치고
용사들의 가슴엔 끓는 피 굽이치네
적탄에 중상을 당하였지만
붉은 피로 흰눈을 물들이면서
멀어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세번 다시 일어나 임무 완성해…

그 이후 이 부대에서는 조성두에 대한 연극도 만들어 선전하였으며 그의 영웅적위훈은 중국인부대들에까지 알려져 전투사기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휘남현성전투는 동북민주련군이 수세에서 공세에로 넘어간 첫 공격전투였으며 이 전투후부터 아군은 적을 타승하고 승승장구하는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동북해방의 승전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해방전쟁의 전기간뿐아니라 중국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수시로 조선인부대들과 동북민주련군(후에는 동북인민해방군)의 지휘성원들과 련계를 가지시고 그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전화로 전선상태를 알아보기도 하시며 해당한 대책들도 취해주시고 조언도 주군 하시였다.

장기에서 차와 포, 상과 말, 졸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이기고지는것이 결정되는것처럼 전쟁에서도 군사령관이 작전을 어떻게 작성하고 지휘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것이다.

중국 동북해방전쟁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었다.

중국공산당군대는 수적으로도 적었고 군사장비도 미흡하였다. 반대로 장개석국민당군대는 수적으로도 많았고 군사장비도 현대적인것이였으며 공산당군대에는 없는 공군과 해군까지 가지고있었다. 장기에서 보면 공산당군대는 차와 포, 말과 상을 다 떼고 졸만 가지고 국민당군대와 겨루기를 한것과 같았다. 그러나 공산당군대는 이기였다.

중국의 벗들은 동북해방전쟁에서 공산당군대가 승리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전쟁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와주신데 있었다고 말하였다.

중국의 한 도서에는 이렇게 서술되여있다.

《선견지명과 과학적통찰력이 비껴있는 **김일성**주석의 고견과 조언은 중국군대의 군사작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용을 쓴 조선인부대의 전투력의 원천도, 동북해방전쟁의 주요작전의 승리도 **김일성**주석과 떼놓을수 없다.

…

이 시기 조선인부대들은 **김일성**주석의 뜻과 의지대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받들어 중국인부대와 긴밀한 협력, 협동으로 사평해방전투, 길림해방전투, 금주해방전투, 제2차 장춘해방전투, 심양해방전투 등 모든 전투들에 참가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바로잡혀진 《정풍운동》

중국 동북해방전쟁기간 장개석국민당군대와의 싸움에서만 어려운 고비가 있은것이 아니라 대오내에서도 참기 어려운 시련이 있었다.

1947년 3월 동북해방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이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에로 넘어가던 시기 즉 2차 림강보위전투가 끝난 이후에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처사로 하여 매우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동북지방의 일부 해방지역들의 조선인학교들에서 조선말로 교육하는것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조선인지휘성원들을 중국인지휘성원들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마구 해임철직시켰으며 농촌에서는 지난날 밥술이나 뜨던 조선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항일렬사유가족이건 누구이건 관계없이 가산을 다 빼앗고 마구 내쫓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조선인부대와 조선사람들속에서는 이제는 다 집어치우고 조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인들과 싸우고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중국공산당에서 조선인지휘관들에게 사정도 하고 중국혁명을 계속 도와줄데 대한 해설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장개석국민당군대를 제압하고 바야흐로 총반공격전에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있던 이때 혁명대오내부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는 혁명력량을 약화시키고 해방지역을 튼튼히 다질수 없게 할뿐아니라 혁명 그자체를 말아먹을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일이였다.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장차 동북민주련군을 강화하는데서나 해방지역을 사수하는데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에서는 이 사태를 자체의 힘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의 정세와 조선사람들의 사상동향을 통찰하시고 당시 길동분구사령원을 부르시여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그 일군은 일부 해방지역들에 조성된 비정상적인 정세로 하여 조선인부대안에서 이제는 더 싸우지 않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수습하기 힘들다고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보고를 다 들으신 후 중국 동

북지방에서 싸우고있는 동무들이 아직도 우리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있는것 같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싸우고있는 동무들이 조국에 돌아와 군대에 복무하겠다는것은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동북해방전투임무를 집어던지고 당장 조선에 뛰여나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물론 나는 동무들의 그 애국심을 높이 평가한다, 조선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애국심과 민족정신이 있고 특히 동북지방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혁명의식이 자라났으며 일제와 장개석도당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였기때문에 모두가 손에 총을 잡고 떨쳐나서 몇배나 되는 국민당의 진격을 저지시키고 놈들을 수세에 몰아넣을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동무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용감성과 희생성, 달성한 전과와 공로들은 중국인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고무적힘으로 되였으며 우리 조선인민들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동무들이 중국혁명에서 손을 떼고 조선에 나오겠다고 하는것은 사상적으로 볼때 나쁘다고만 할수 없는 문제다, 우리 동무들이 조국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민족본위주의라고 때려서는 안되며 그것을 높은 애국심으로 보고 평가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부 동무들처럼 문제를 너무 한곬으로 생각하면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승리적으로 끝내기 전에 당장 조국으로 나오겠다고 억지를 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북해방전쟁을 도와주는것이 결국은 조선혁명을 위한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애국심의 표현으로 되기때문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장개석도당이 동무들에게서 된타격을 받고 일본놈들을 고용병으로 끌어들이며 조중인민들사이에 리간을 조성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장개석도당이 조선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당기기 위하여 조선의 민족주의세력들까지 규합하여 회유정책을 쓰고있는 조건에서 잘못하다가는 계급적적개심보다도 민족배타주의적 감정이 전면에 나설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중국혁명에 어떤 후과를 미치겠는가 하는것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심중히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중인민들간에 조성된 민족배타적감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앞으로 중국동지들과도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며 동무는 우선 군대내에서 우리 동무들에게 중국혁명이자 조선혁명이기때문에 지금까지 잘 싸운것처럼 앞으로도 동북해방전쟁에서 계속 주력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것과 동북해방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조선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중국지휘관들이 협애하게 나오는데 대해서도 그것이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그런것이 아니라 일부 개별적일군들이 지금 달성한 성과에 자만자족하면서 민족주의적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일시적현상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고 동북에 들어가 전체 조선인부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고 학습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조선인부대들에 그대로 침투되였

으며 당과 각계층 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모든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동북해방전쟁에 끝까지 참가하여 잘 싸우고 조국으로 돌아갈것을 굳게 마음다지도록 하였다.

한편 동북지구 해방지역들에서는 극좌적인 《정풍운동》을 바로잡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중국공산당에서는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주보중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보중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에 찾아온다는 련락을 받으시자 동북해방전쟁을 하고있는 속에서 그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려고 친히 남양까지 가시여 마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3월 26일 새벽에 기차에서 내리시여 그 길로 남양의 국경려관에 가시였다. 주보중은 도문에서 남양교두로 넘어와 위대한 수령님과 상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해전에 남양에서 만나신 주보중의 손을 잡으시고 그동안 동북해방전쟁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주보중은 그이의 말씀에 아닙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작전을 지휘해주시고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였기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시한번 동북인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였다. 그러면서 주보중은 현재 연변을 비롯한 동북지구에서 일어나고있는 사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였다. 나중에 주보중은 현사태를 수습하고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키워오신 항일투사

를 연변지구에 보내주실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주보중의 의견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요구였다. 당시 동북국사업에 관여한 류소기도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의 투사를 연변지구에 보내주실것을 간청하여 명주천에 쓴 친서를 정중히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다가 연변태생이고 연변지구에서 지하공작도 하고 무장투쟁에도 참가하였으며 동만실정에 밝은 림춘추동무가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를 파견하기로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동북의 실정을 알고있는데 우리 힘을 합쳐 제기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시였다.

당시를 회상하여 중국공산당 동북국에서 사업한 당천제는 《항일전쟁시기에 이어서 해방후의 다사다난한 정국을 지략과 담력으로 주도해나가시며 인간애로 충만된 정치로 만인을 단합시키는 주석동지께서만이 여의치 못한 동만의 형세도 바로잡을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확신이였다.》고 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보중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가 다시 남양교두로 해서 두만강을 넘어갈 때까지 차후 동북해방전쟁에서 제기될수 있는 정치, 군사, 경제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주시고 더 많은 물자들을 지원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남양을 떠나는 주보중의 가슴은 탁 트이였다.

그후에도 주보중은 1948년 가을에 안해인 왕일지와 딸 주위를 데리고 길림성부주석 겸 동북군구 부사령원의 자격으로 우리 나라에 나와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웠다.

당시 주보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북해방전쟁을 물심량

면으로 적극 도와준것이 너무 고마와 사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많은 량의 밀가루를 기차에 싣고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보중가족을 뜨겁게 맞아주시고 동북일대를 해방하는 전쟁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치료도 받도록 하시고 금강산에서 휴양도 하도록 해주시였다. 주보중가족이 귀국할 때에는 날씨가 추워진데 맞게 겨울옷도 마련해주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다같이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양에서 주보중과 만나 한 약속대로 평안남도당에서 중요사업을 하고있던 림춘추를 소환하여 연변지구로 파견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간부가 부족한 때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서슴없이 자신께서 아끼시던 간부를 보내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춘추가 동북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와 아침식사를 함께 하시며 조국을 떠나기 서운해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면서 연변지구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다.



림 춘 추

주체1(1912)년 3월 8일 출생. 해방전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연변지역 정권기관에서 전원공서 전원, 연변지구당위원회 부서기.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공화국부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 사업하다가 주체77(1988)년 4월 27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조중인민은 동북산야에서 어깨겯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싸웠는데 지금 중국동지들의 곤난을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연변의 사업을 도와주는것은 곧 중국인민의 사업인 동시에 조선동포들의 사업이니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에서 싸우고있는 일부 조선사람들이 조국에 나와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겠다고 한다는데 그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잘하여 중국혁명을 위해 계속 잘 싸우게끔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국인민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정권건설을 비롯한 연변의 제반 건설에 힘쓸뿐아니라 동북해방전쟁승리를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며 조선족의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추진시키도록 하라고 가르치시고 동북지방에 흩어져있는 혁명렬사유가족과 유자녀들을 찾아내여 조선에 내보낼데 대한 과업도 주시였다.

림춘추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시 길림성 기관들이 소개되여있던 연길에 가서 주보중과 성당서기를 만나 협의한 후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성당의 요청으로 초기 성정부 민족사무청장의 직무를 맡고 사업하면서 먼저 조선인고급간부반의 《정풍》을 책임지고 편향없이 진행되게 이끌었다. 이로부터 사람들속에서 **김일성**장군의 특별명령을 받고 온 투사간부가 흑백을 바로 가르고 고깔모자를 씌우지 않고도 복잡한 사람문제를 잘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였다.

얼마후인 1948년 3월 27일 림춘추는 연변전원공서 전원으로 중국공산당 연변지구위원회 부서기를 겸임하게 되였다. 그는 연길에서 연 7일간에 걸쳐 강연회를 열고 연설하였다. 내용은 조선민족이 중국형제들과 일치단결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동북해방전쟁을 적극 지원하자는것이였다. 그때 많은 조선사람들이 연설을 듣기 위해 멀리 북만에서까지 찾아왔다.

그는 각급 당, 정권기관들에 잠입하였던 일제의 주구, 혁명의 배신자들, 불순이색분자들을 직접 색출제거하고 항일무장투쟁참가자들을 비롯한 핵심들을 간부로 내세웠다. 연길, 도문을 비롯한 각 현의 현장들이 새로 임명된것도 바로 이때였다.

림춘추가 혁명투쟁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고 대중의 혁명의식수준이 높았던 왕청지구에 나가 당, 정권기관을 정돈하고 이를 본보기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따라배우게 한것은 연변지구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림춘추의 지휘밑에 연변전원공서는 좌경바람이 빼앗아갔던 중농과 중소기업가들, 혁명가유가족들의 재산을 돌려주었고 살던 고장을 떠나갔던 사람들을 되돌려세워 안착시키고 극빈한 한족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이리하여 서로 불신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단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동북해방전쟁이 공격단계에 들어서서 전쟁규모도 커진 조건에서 그는 각지의 기관, 기업소와 학교들에서 군사복무자들을 계속 늘이고 원군사업을 힘차게 벌리며 전선원호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고 민주선거를 거쳐 토지개혁실시과정에서 선발된 능력있고 신망이 높은 사람들을 기본으로 농촌의 정권기관을 세웠으며 각 현과 향(구)에

서도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각 민족, 각 촌의 대표들의 인민대표회의를 열고 민주선거를 통하여 구, 현인민정부를 세우는 사업도 밀고나갔다.

그는 또한 토지를 분여받은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하여 호조합작운동을 광범히 벌려 농촌에서 생산을 다그치고 농업집단화의 기초를 다지고 중국공산당의 공업정책을 관철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산을 늘이고 전선의 물질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어려운 사업도 짜고들었다.,

림춘추는 특히 조선사람들의 민족문화와 교육을 발전시키면서 새 세대 간부들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지식인정책을 관철하여 문화교육인사들을 안착시켜 일하게 하였고 1949년 봄부터는 연변 각지 농촌과 향마다 소학교, 중학교가 문을 열게 하는 사업도 조직지휘하였다.

한편 교육출판사의 인쇄소를 확대하고 조선족소학교와 중학교교재들을 자체로 편찬출판하여 배포하게 하였다.

1948년 3월에는 연변당정간부학교를 세우고 림춘추자신이 교장을 겸임하면서 기층간부양성사업에 힘썼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여 만나주시였을 때 혁명골간을 빨리 양성하라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연변에 민족대학을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변지구에서 민족대학창설사업을 추진하고있다는 림춘추의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을 하나 창설한다는것이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국에서의 경험이 보여주는것처럼 광범한 군중

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면 대학창설문제도 능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연변지구에 대학을 내오는 사업을 조국에서도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애로되는 문제를 교육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림춘추는 조국에서 방조를 받는것과 함께 다른 방면으로는 연변과 동북각지의 조선족유지들에게서 기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동일무역회사를 세우고 얻은 자금으로 대학을 세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지을수 있었다. 그는 동북각지에 인원들을 파견하여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을 꾸리고 1949년 2월부터 학생모집을 시작하여 수백명의 입학생들로 3월 20일에 연변대학 개학식을 하게 하였다.

그는 병원도 개설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춘추가 연변에서 사업하는동안 그를 부르기도 하시고 서신을 보내기도 하시며 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그가 맡은 임무를 끝내고 주체38(1949)년 3월에 귀국한 후에도 연변대학에서 애로되는 거액의 자금과 도서, 자료들을 마련하여 연변대학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주체38(1949)년 7월에는 연변대학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수, 간부 등 7명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경험을 배우고 돌아갔다.

동북민주련군의 한 지휘성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실로 우리가 어쩔수 없었던 어려운 일을 맡아 복으로 전환시켜주신 그분의 은공을 세월이 흐른들 어이 잊을수 있을것인가.》

사평해방전투

사평시는 장개석국민당군이 동북에 기여들어 저들의 사령부를 설치하고있던 심양과 장춘, 해룡과 료원을 련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1947년에 들어서면서 중국공산당군대의 공격이 강화되자 국민당군대는 동북의 광활한 지역들에서 쫓기워 장춘과 심양, 사평, 금주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철도를 장악하고 최후발악을 하고있었지만 사실상 이미 아군부대들에 의하여 사면이 포위되여있었다.

사평을 공산당의 수중에 넣는것은 동북에 기여든 국민당군대의 사등뼈를 꺾어놓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므로 국민당군대는 사평을 내주지 않으려고 이곳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놓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있었다.

사평시는 서남쪽에 강이 있고 시내에는 고층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으며 주변에는 낮은 산릉선과 계곡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있어 공격하기는 어렵고 방어에는 유리한 곳이였다.

국민당군대는 계곡과 산릉선을 따라 높이 5m, 너비 4m되는 높은 토성을 쌓고 토성우에는 영구화점들을 설치하였다. 토성밖에는 토성을 쌓으면서 파낸 깊은 웅뎅이에 물을 가득 채워넣었고 거기에 또 토성밖으로 철조망과 지뢰, 차단물과 가시덤불 등 장애물들을 200m너비로 둘러쳤으며 시내의 요소마다에는 영구화점들을 구축하여놓았다.

국민당군대는 여기에 살인자로 악명높은 진명인과 그의 동생인 특무단 단장이 지휘하는 71군과 12군을 비롯하여 10여만명의 대병력을 배치하고있었다. 국민당군은 비행기도 100여대나 가지고있었다.

사평해방을 위하여 림표가 동북민주련군의 사령원으로 파견되였으며 사평포위전에 30여만명의 병력이 투입되였다. 당시 1종대, 12종대, 20종대 등 30여만의 병력가운데는 조선사람이 절반이상이나 되였다.

처음에 림표는 동북민주련군의 중국인부대만으로 사평에 대한 공격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1947년 6월 중순에 조선인부대들과 함께 다시 공격을 하여 사평시의 2/3를 장악하였다. 당시의 이 전과에 대하여 《로동신문》 주체36(1947)년 7월 2일부는 《사평가총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여있었다.

《…지난 (6월을 말함) 14일 밤 사평가의 국민당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바 12주야에 걸친 대격전으로 국민당군이 1년나마 점령하고있으면서 완전히 현대화한 많은 보루중 방어진지 6개소를 파괴하고 국민당 두률명군의 진명인병단 71군소속 포병 특무련대, 운수련대, 공병대대와 림시편성된 3사 전부, 87사(한개 련대 결여), 12군의 54사(한개 련대 결여) 료북 보안 1련대, 보안 17련대, 교통경찰총대 등을 소멸하여 71군의 참모장이하 만여명을 살상하고 6 000여명을 포로하였는데 포로자중에는 남경에서 비행기로 온 군관단 183명이 포함되여있었으며 나머지 국민당군은 민주련군이 섬멸중이다. 그리고 이로써 사평가의 대부분은 민주련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공산당군대가 전과를 올렸지만 심양에서 국민당군 5개 사단이 증원해왔기때문에 다시 아군은 사평시를 내주고 17일만에 철수하여 심양과 장춘사이의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고 적들을 견제하였다.



四平街總攻擊
東北民主聯軍의 戰果

【東北前線二十八日 新華社發北朝鮮通信】 東北民주聯軍은 中長鐵道의 開原 昌圖를 점領한후 고立되었던 四平街의 國府軍이 中長鐵道의 勢力을 恢復하고저 하는 의圖를 粉碎하기 爲하여 지난 十四日夜四平街의 國府軍에對한 總공격을 開始한바 十二晝夜에 걸친 大격戰으로 國府軍이 一個餘年 점領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현代化한 無數한 堡壘中 방禦陣地六個所를 파壞하고 국府杜津명軍의 陳명仁兵團七十一軍々部砲兵特務團運輸團 工兵露營及暫編三師全部 八十七사(一個團缺如)十二軍의 五十四師(一個團缺如)遼北보安 一團 보安十七團 交通警察總隊等을 遺멸하여七十一軍의 參謀長以下 萬餘名을 살상 하고 六千餘名을 포로하였는바 포로者中에는南京에서 飛行기로 來到한 軍宮團一百八十三名이 포함되어있으며 남아지의 국府軍은 民主聯軍이 섬멸中이다 그리고 이로서 四平街의 大部分은 民主聯軍이 억압하고 있다

《로동신문》 주체36(1947)년 7월 2일부에 실린 보도기사

국민당군대는 사평시내에 포위된 부대들에 비행기로 후방물자를 날라다 공급하는것과 함께 포위를 뚫기 위해 곽가점을 비롯한 아군지역을 련일 폭격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주었다. 아군은 전과를 확대하지 못하였다.

동북민주련군이 사평전투에 진입한것은 1947년 6월 록음이 짙어가는 계절이였으나 장개석국민당군대와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무려 10개월이나 계속되는속에 아군도 손실을 많이 입었다.

그때 이 사평해방전투를 두고 그 간고성과 치렬성, 그 전략적의의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쓰딸린그라드격전과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였다.

동, 서, 남, 북만을 련결하는 주요철도망을 차지하고 대방을 사분오렬시켜 고립시키고 전쟁의 주도권을 쥐자면 기어이 사평을 장악해야 하였으므로 적아가 다 이 전선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견고한 방어선에 의거한 국민당군대가 비행대를 동원하여 맹폭격을 들이댔기때문에 공산당군대측에서는 반돌격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인명손실만 내고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사태는 결정적인 대책을 긴절하게 요구하였으나 신통한 방책도 없었고 아군은 병력과 무장장비를 지원받을데도 없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화로 사평전투의 실태를 상세히 보고받으시고 조선인부대의 지휘관에게 동북에 있는 전체 조선인부대들과 인민들을 총동원하여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집중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사평해방전투를 빨리 결속하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그전까지 조선인부대들이 사평해방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주로 심양, 장춘의 장개석군대의 증원부대를 격퇴하는 작전에 인입되였던것이다.

조선인부대 지휘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조치를 동북민주련군에 전달하고 동북지방에서 활동하고있던 모든 조선인부대들이 다 사평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때 사평지구에 있던 조선사람들만이 아니라 멀리 연변지구의 조선사람들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계셨다고 하면서 담가대와 치료대까지 무어가지고 사평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바람에 사평지구는 조선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였다.

당시 국민당군대내에서는 조선인부대라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부르면서 《축지법》을 쓰는 사람들이기때문에 무조건 저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있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 사평전투를 결속할데 대한 말씀이 계시여 동북의 조선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자 적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바를 몰랐다.

사평전투에 참가한 조중전투원들의 사기는 고조되였다.

동북인민해방군은 신심에 넘쳐 1948년 3월 최후공격전을 개시하였다.

사평전투에서 모든 전투원들이 다 잘 싸웠지만 특히 조선인대원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서 불굴의 투쟁정신과 높은 희생성을 발휘하여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조선인공병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수십명의 희생을 내면서도 주저하지도 동요하지도 않고 첫조가 실패하면 둘째조가, 둘째조가 쓰러지면 셋째조가 련이어

적진에 육박하여 적들의 견고한 방어시설들을 까부시고 공격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가운데는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보낸 황색폭약을 안고 육탄이 되여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연 김형두도 있었다.

김형두는 조성두에 이어 동북해방전쟁에서 배출된 두번째 육탄영웅이다.

이 전투에서는 공산당군대가 인민들이 받는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쓰지 않던 포들까지 총동원하여 일제사격으로 적들의 토성을 까부시였으며 곳곳에 설치한 적중기화점들은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이 김형두처럼 화약을 안고 희생적으로 달려가 폭파시키군 하였다.

총공격을 개시한지 2일만에 적 71군 군장이 도망치고 사평은 3월 13일에 완전히 해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동북의 전체 조선인부대들이 총동원되여 일격에 적들을 소멸함으로써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사평에서 손을 들고말았다. 사평해방전투에서 사등뼈가 부러진 장개석군대는 더는 춰설수 없게 되였다.

이 전투에서 국민당군대 2만여명을 살상하고 4만여명을 포로하였으며 나머지는 저들의 총사령부가 있는 심양으로 달아났다.

사평전투에서 아군은 수백문의 포를 비롯한 막대한 무기를 로획하였다.

그중 어느 한 부대는 심양계선에서 지원해오는 적들을 포위섬멸하고 자동차만 해도 150여대를 로획하였으나 운전수가 없어 다 불태워버린 사실도 있었다.

사평해방전투의 승리는 동북해방전쟁과 중국의 제3차 국내혁명전쟁에서 공산당군대의 완전승리를 예고하는 신호로 되였다.

사평해방전투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의 용감성과 희생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이 다시금 시위되였다.

사평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적의 포대를 까부시려 폭약을 안고 달려나갔다가 적탄에 희생된 조선사람들만 해도 수십명에 달하였다.

이 전투후 장개석국민당군대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조선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사평전투에서 승리한 후 당시 동북인민해방군 총사령원은 사평전투를 승리로 결속하도록 고견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표시로 높은 신뢰와 존경을 담아 좁쌀 10만t과 흥안령산 수달피로 만든 외투와 사자털돗자리를 선물로 드리였다.

이 선물에 대하여 당시 동북민주련군의 한 지휘성원은 자기의 글에서 《동북해방전쟁기간에 민주련군지휘성원들이 **김일성**주석께 흥안령산 수달피외투와 사자털돗자리를 선물로 삼가 드린것은 조선속담에 있는것처럼 머리칼을 베여 신이라도 삼아 그분께 보은하고싶은 우리의 심중을 표시하기 위한것이였다.》고 썼다.

금주해방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북해방전쟁의 전국을 내다보시고 제2차 장춘해방전투를 결속하기 전에 금주부터 해방시킬데 대한 작전안을 내놓으시였다.

금주는 동북지방에서 중국관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때문에 금주를 동북인민해방군이 장악하면 동북에 들어와있는 장개석국민당군대는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게 된다.(1948년 1월부터 동북민주련군을 동북인민해방군으로 개칭하였다.)

이미 길림, 사평전투에서 패한 국민당군대가 이제 장춘에서까지 패하면 금주를 통해 관내로 도망칠수 있기때문에 미리 금주를 해방하고 이 물목을 막아놓으면 장개석군대는 오도가도 못하고 포위속에 들어 아우성치게 될것이였다.

그러니 금주를 해방시키면 국민당군대의 증원과 보급로를 끊어놓기때문에 동북해방전쟁을 승리로 종결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또한 금주를 해방하면 장춘은 완전포위에 들어가게 될것이였다.

이렇게 금주해방전투는 이모저모로 의의가 큰 전투였다.

사평해방전투가 동북에 기여든 국민당군대의 사등뼈를 꺾어놓은 전투였다면 금주해방전투는 국민당군대의 목을 조이는 전투였다.

국민당군대는 금주계선에 20여만의 대병력을 집결시키였다.

동북인민해방군은 금주전투에 7종대, 10종대, 44군의 주력사단 등을 참가시키였다.

국민당군대는 수적우세를 믿고 영구화된 진지에 의거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아군은 1948년 10월 13일 적의 사령부를 폭파해버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였다.

그를 위하여 사령부주위에 있는 영구화점까지 200여m나 되는 갱도를 하루밤사이에 파게 하였다. 짧은 시간안에 그것도 대낮처럼 밝은 적의 조명탄밑에서 발각되지 않고 작업을 진척시키자니 부득불 매우 낮은 갱도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엎드려 파야 하였다.

아군전사들은 하루밤사이에 매우 어려운 이 작업을 끝내 완수하였다.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렀다.

이렇게 파놓은 갱도로 해서 적의 지휘부옆에 폭약을 설치하고 돌격신호에 따라 200m밖에서 줄을 당겨 지휘부부터 날려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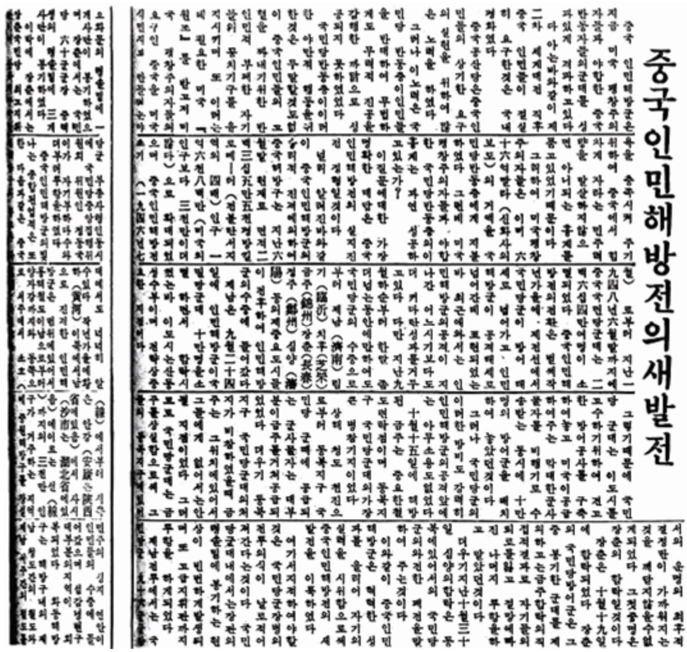
조선인부대들의 참가밑에 국민당군 20여만을
격파한 금주해방전투(1948년 10월)

그다음 네거리마다 영구화점을 만들어놓고 쉴새없이 기관총을 쏘아대고 포탄을 퍼부어대는 적들을 7종대직속 지병학이 지휘하는 조선인포병대대가 보기좋게 까부시기 시작하였다.

이 포병대대는 금주전투에서 총포탄이 비발치는 속으로 포를 끌고들어가 포탄 한발에 적화점 하나씩 까부시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적의 화력을 제압하고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았다.

10월 14일부터 시작한 금주전투는 31시간만에 아군의 승리로 결속되였다. 금주가 해방되니 동북의 국민당군을 독안에 든 쥐신세로 만들어놓고 답새길수 있게 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10만의 적들을 소멸하고 수많은 무기



중국인민해방전의새발전

《로동신문》 주체37(1948)년 11월 3일부에 실린 보도기사

들을 로획하였다.

당시 《로동신문》 주체37(1948)년 11월 3일부에는 《중국인민해방전의 새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10월 15일에 해방된 금주는 중요한 철도련락점이며 동북지구국민당군대의 가장 큰 병참기지였다. … 장춘은 10월 19일에 함락되였다. 장춘시 국민당방어군은 봉기한 군대를 제외하고는 금주함락의 직접적결과로 자기들의 퇴로를 잃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투항을 하고말았던것이다.》

제2차 장춘해방전투

1946년 봄에 있은 장춘해방전투후 《중쏘우호동맹조약》에 의하여 국민당군에 다시 장춘을 내준 동북인민해방군은 1948년 4월부터 또다시 장춘을 포위하고 해방전투를 시작하였다.

그 기간에 사평과 금주를 해방하였기때문에 장춘시내에 있는 국민당군은 완전포위에 들게 되였다. 당시 장춘시내에는 장개석국민당군대가 10여만명이나 틀고앉아 철벽의 방어진을 구축하고있었다. 이 병력이면 한개 전쟁도 치를수 있는 력량이였다.

반면에 동북인민해방군은 장춘을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장개석국민당군대와 견줄바가 못되였다. 장개석은 우세한 국민당군이 튼튼한 방어시설을 갖추어놓고 장춘을 타고앉아있기때문에 동북인민해방군의 공격은 불가능한것으로 믿고있었다. 더구나 당시 장개석군대는 이미 저

들이 차지하고있던 동북의 주요도시들을 거의다 빼앗겼으므로 장춘만은 끝까지 고수하려고 더욱 발악하였다.

동북인민해방군 사령부에서는 련일 작전회의를 하였으나 전투에 진입할 엄두를 쉽사리 내지 못하고있었다. 이렇게 반년이나 흘렀다.

동북인민해방군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알려드리고 고견을 요청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에도 장춘계선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한개 포련대를 파견하여 장춘해방전투를 지원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사평이 해방된 조건에서 장춘해방은 시간적문제이다, 전투에서 전면공격을 하여 많은 희생자를 낼것이 아니라 포위진을 물샐틈없이 치고 기만적인 위협공격과 적군와해공작을 면밀히 결합시키며 항일전쟁시기 성시공격전투를 하던 그런 경험을 살려야 한다, 약한 고리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들이대여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점차 적들을 모조리 소탕해버려야 한다는 귀중한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안을 전달받은 동북인민해방군 지휘성원들은 환성을 올리였다.

당시 동북인민해방군은 련전련승하고있었기때문에 전투원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지만 반대로 장개석군대는 련전련패에 포위까지 되여있어서 사기가 극히 저락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에서 대원들의 사기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포착하시고 포위망을 더 조일데 대한 조언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우기 길림, 사평, 금주가 해방되였기때문에 장개석군대는 보급선이 차단되여 식

량과 군수물자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포위망을 조이면 조일수록 적들의 처지는 더 나빠진다는것을 타산하시였다.

동북인민해방군이 전면공격을 피하고 포위진을 물샐틈없이 치고 조여들어가면서 집중공격을 들이대니 출로는 열리기 시작하였다.

오래동안 포위되여있다나니 장개석의 직계군인 신7군과 운남성에서 온 지방군인 60군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온 시내에 기아가 휩쓸었다. 기아선상에 놓인 장춘시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높아갔다. 게다가 사평지구에서 명성을 떨친 조선인부대들이 전부 장춘에 집결되고 금주까지 빼앗기게 되자 장춘시내의 적들은 공포에 떨고있었다. 해방군편으로 넘어오는 장개석군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회를 잘 리용하여 적군와해공작을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던것이다.

아군부대에서는 정찰병들과 공작원들을 장춘시내에 들여보내여 와해공작을 진행하고 외부에서도 함화공작을 련일 들이대였다.

그러나 악질적인 장교들은 이미 구축해놓은 방어진에 의거하여 어떻게 하나 기회를 봐서 포위를 뚫고나갈 방도를 모색하면서 요소요소에서 반공격도 진행하고 장개석과 련계하여 비행기로 식량과 무기들을 날라오기도 하였다. 아군은 이에 대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와해공작을 들이대는 한편 대공화력을 강화하여 적비행기들의 저공비행을 불허하였다. 적비행기들은 하는수없이 고공에서 식량과 무기, 탄약을 떨어뜨리다나니 그것들이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적군

과 아군사이나 아군진지에 떨어지군 하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해주신 한개 포병련대가 장춘해방전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춘에 도착하였다. 포병련대의 도착은 장춘해방전투에 참가한 전체 대원들과 지휘성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동북인민해방군에서는 조선사람들을 동원하여 적구에 들어가 적군을 랍치하고 적 60군을 끌어당기기 위한 공작을 맹렬히 벌리였다.

당시 소경광은 국민당 60군을 투항시키기 위하여 독립6사 3련대장인 박근식을 적 60군 2련대장과 련계시켜놓고 편지거래와 담판을 여러차례 진행하게 하였다.

소경광은 동북인민해방군 부사령원 겸 길림군구 사령원으로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박근식련대장은 해방직후 룡정무장대에서 전윤필과 함께 싸우다가 화룡보안련대장, 길동분구 보안련대장을 하다가 이 시기 독립6사 3련대장을 하였다. 그는 이전에 룡정중학교 교장이였으며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이였다. 그는 학식도 있고 군사에도 밝아 국민당 60군을 투항시키는데 적임자로 선출되였다.

련락임무는 박근식련대(조선인련대)의 배성엽이 맡아하였다. 그는 위험한 적후방에 단신으로 말을 타고 공개적으로 들어가 적 60군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2련대장에게 전달한 다음 그곳에 들어가있는 아군공작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오군 하였다. 적 60군장의 편지는 박근식련대장을 통하여 소경광에게 전달되군 하였다.

당시 길동지구에서 조직된 독립6사는 장춘의 동쪽계선을

포위하고 독립4사는 서쪽계선을 차지하였으며 독립11사 1련대는 독립4사와 6사사이를 차지하고 독립11사의 2련대와 3련대, 37사는 장춘북쪽의 비행장을 장악함으로써 장춘은 4면으로 3중포위망에 들게 되였다.

장춘에 있는 적군사령관은 정동국(동북지구 국민당군 부총사령)이였고 신7군 군장은 리홍, 60군 군장은 증택생이였다.

아군에서는 적 60군의 군장과는 련계를 가지면서 동남쪽을 봉쇄하고있는 독립11사로 하여금 위협공격을 들이대게 하였다. 이 지역은 적 60군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련대장이 부대를 지휘하고있었다.

독립11사 1련대의 폭파조장 김성현은 대원 2명을 데리고 감쪽같이 적포대에 접근하여 투전놀이를 하던 12명의 국민당군대를 생포하고 포대를 하늘로 날려보냈으며 독립6사의 3련대 폭파조장 리기춘은 조원 5명을 데리고 적의 화점 12개를 련속 까부시였다. 그러다 마지막 화점에 가서 그는 적들에게 발각되여 가슴에 폭약을 안은채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폭파시키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리하여 리기춘은 동북해방전쟁에서 세번째의 육탄용사로 되였다.(조성두, 김형두, 리기춘 세사람은 모두 육탄용사로 되여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박근식련대는 리기춘이 목숨으로 개척한 통로를 따라 진격해들어갔다. 바빠맞은 적 60군장 증택생은 10월 18일 자동차에 흰기를 띄우고 나와서 담판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소경광과 독립11사 부사단장 김창덕이 적 60군장과 담판을 하게 되였다.

담판에서는 적들의 요구대로 집에 가겠다는 사람은 집으

로 보내고 해방군에 복무하겠다는 사람은 부대에 받아주기로 하였다.

담판의 결과 10월 19일 0시 국민당 60군은 은밀히 아군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대신 아군의 독립6사와 독립11사 1련대, 독립4사를 비롯하여 한개 종대력량이 60군이 차지하였던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날 교방사업이 얼마나 은밀히 진행되였던지 적들은 물론 아군의 린접부대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10월 19일 아침, 이런 사정을 전혀 알수 없는 국민당 신7군 참모가 자기의 관할구역이라고 하여 거들먹거리며 나타났다가 체포되였다. 아군은 그를 통하여 신7군의 동태와 무력배치정형을 알아가지고 신7군에 대한 불의의 공격을 들이대였다. 신7군 병사들은 불의의 공격에 당황하여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투항하고말았다.

그러나 신7군 지휘부는 항복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견고한 건물을 차지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장개석에게 도주할 비행기를 요구하였다. 장개석은 그들에게 비행기를 보낸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보내였다.

막다른 처지에 빠진 동북지구 국민당군 부총사령 정동국은 아군진지에 대고 몇시간동안 목표도 없이 맹목적인 사격을 한 후 하는수없이 부대를 이끌고 투항하였다.

이리하여 1948년 10월 19일 제2차 장춘해방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장춘시는 해방되였다.

아군은 장춘해방전투에서 적 10만여명을 살상포로하고 포를 비롯한 수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이때부터 공산당군대는 240㎜야포를 비롯한 최신식무기로 무장하고 싸울수 있게 되였다.

해방된 시내에는 국민당돈이 한벌 깔려있었고 집들은 굶어죽은 사람들로 차넘쳤다고 한다. 후에 조사한데 의하면 당시 굶어죽은 사람이 12만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장춘해방전투가 있은 다음 공로를 평가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수백명이 참가하는 모범전투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80％의 성원이 조선사람들이였다.

이때 중국에서는 소공을 세번 세우면 중공으로, 중공을 세번 세우면 대공으로 평가하고 대공을 세번 받으면 특공이 되며 모택동동지의 표창을 주었다. 그리고 대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15일간 휴가를 주어 집에 보냈으며 그 가정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돈을 모아 돼지, 천을 비롯하여 수많은 물건을 사서 달구지로 실어다주고 꽹과리와 북을 치면서 굉장히 환영해주었다.

《로동신문》 주체37(1948)년 11월 3일부에는 《중국인민해방전의 새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장춘에서는 국민당 60군 군장 증택생의 령솔하에 3개사단이 붕괴되였다. 이밖에 장춘에서는 장춘국민당 최고지휘관이며 동북지구 국민당군 부총사령인 동시에 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정동국이가 자기 부하 다수와 더불어 투항을 하였다.》

《로동신문》 주체37(1948)년 10월 22일부에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북지구 제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평양 21일발 조선중앙통신) 남경 20일발 프랑스통신이 전하는 할빈으로부터의 중국인민해방군측 방송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동북의 최대도시 장춘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장춘수비의 국민당군측 제7군과 제1군 각 부대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태세를 취하였다고 한다. 한편 북경 19일발 UP통신에 의하면 장춘을 〈사수〉중이던 국민당 제70사군의 항복



中國人民解放軍 東北地區制壓

【평양二十一日발조선중앙통신】 南京二十日발 불란서통신이 전하는 하루빈으로부터의 중국인민해방군측 放送에 依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동북의 최대도시 장춘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長春守備의국부군측 第七軍과 第一軍 각부대는 무기를 拋棄하고 投降태세를 취하였다고한다 한편 북경十九日발 유·피通信에 依하면 장춘을 『死守』중이던 국부第七十師軍의 降복의 보고에 接한 봉천및 그周변의국부군약十만은 구 장학량 친위색본명인 북대영에 주둔해있는 주려군과 봉천여부군에주둔해있는 부대及 봉천시의 本계호등지에 있는 부대를과의 자이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치렬한 攻세앞에 投降하느냐 또는餓口방면으로 탈走의 血路를 打開하느냐의 량論으로 內紛中에있다 하며 漸漸 포위망을 압縮하여오는 인민해방군의攻擊과 아울러 최근수일중의국부군운명이 頃刻에있다고한 國부군의 『자기고장』자로 봉천선을 항공방분하려면 장개석의 『지찰행』도 연기되었다 그리고 남경발에이·피통신에의하면 최근국민당정부립법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화북지구의 패세를 만회하기위하여만 百五十萬의군대를 새로 징모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민당정부 국방상 하응흠은 五百萬을 증모한다하더라도 지금의 전국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 부족한것이라고 고백하였다고한다

《로동신문》 주체37(1948)년 10월 22일부에 실린 기사

의 보고에 접한 봉천 및 그 주변의 국민당군 약 10만은 구장학량친위대 본령인 북대영에 주둔해있는 주력군과 봉천역부근에 주둔해있는 부대 및 봉천시의 본계호 등지에 있는 부대들과의 사이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치렬한 공세앞에 투항하느냐 또는 영구방면으로 탈주의 혈로를 타개하느냐의 량론으로 내분중에 있다하며 점점 포위망을 압축하여오는 인민해방군의 공격과 아울러 최근 수일중의 국민당군 운명이 경각에 있다고 한다.

국민당군의 〈사기조장〉차로 봉천선을 항공방문하려던 장개석의 〈시찰행〉도 연기되였다.

그리고 남경발 AP통신에 의하면 최근 국민당정부립법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화북지구의 패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150만의 군대를 새로 징모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민당정부 국방상 하응흠은 500만을 증모한다하더라도 지금의 전국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 부족한것이라고 고백하였다 한다.》

장춘해방전투를 지휘하였던 소경광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사람들이 동북해방전쟁시기 특히 장춘해방전투에서 중국력사에 영원히 빛날 커다란 위훈을 세웠다.》

흑산, 대호산전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개석군대가 동북땅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심양으로부터 단동을 련결하는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적들을 소멸할데 대한 조언을 주시였다.

금주가 함락되고 장춘이 해방된 후 금서, 호로도에서 장개석군대가 동북인민해방군의 된타격을 받자 심양에서 금주에 원군으로 나왔던 료요상병단은 당황하여 북평선을 따라 관내로 통하는 길을 열고 화북으로 퇴각하려고 하였다.

흑산과 대호산은 료요상병단이 륙로로 혹은 바다로 빠져나갈수 있는 요충지였다. 금주를 거치면 륙로로, 영구를 거치면 바다로 도망칠수 있는데 흑산, 대호산이 앞에 가로놓여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빠져나갈수 있었다.

이때 동북인민해방군 지휘부에서는 금주전투에 참가하였던 주력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3일간 료요상병단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흑산, 대호산을 지킬데 대한 명령을 제10종대(28사, 29사, 30사)에 하달하였다. 제10종대도 조선사람들이 집중된 부대였다.

흑산, 대호산전투는 전반적인 료심전역의 관건일뿐아니라 동북해방전쟁의 중요한 한 고리였다. 흑산, 대호산을 견지하면 료요상병단을 비롯한 동북에 들어온 장개석군대의 퇴로가 완전히 막혀 적들의 멸망은 결정적인것으로 되는것이였다. 때문에 동북인민해방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흑산, 대호산을 지킬 전투명령을 가장 강력한 조선인부대에 하달하였다. 흑산

동쪽은 28사가, 흑산 서북쪽은 29사가, 대호산은 30사가 방어하고있었다.

1948년 10월 23일 적 5개 사단은 200대의 비행기와 155㎜포를 비롯한 각종 대포 200여문으로 흑산, 대호산일대에 대한 집중사격을 퍼부어 온 산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적들은 이날 3개 방면으로 5차례나 련속 공격하였지만 끝내 방어진을 뚫지 못하였다.

특히 동북인민해방군의 28사 83련대 3대대(조선인대대)가 지키고있는 101고지를 빼앗기 위해 적들은 대포와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10시간동안에 4개 방면으로 5차례의 맹돌격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조선인부대용사들의 육박전과 완강한 방어에 부딪쳐 실패를 거듭하였다.

101고지는 대호산과 흑산사이의 9㎞ 남짓한 개활지대를 제압할수 있는 유일한 고지였다. 이 고지는 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포사격을 맹렬히 퍼부어 불바다가 되였고 검은 연기로 하여 하늘은 일식때처럼 캄캄하였다. 가렬한 전투는 수일간 계속되였는데 동북인민해방군은 하루에 거의 한개 대대의 병력을 잃었다. 101고지는 그때 국민당군의 폭격과 포격에 2m나 낮아졌다고 한다.

흑산의 서북쪽을 들이친 적 71군 87사, 91사는 련속 5차례나 공격하였지만 아군 29사에 의하여 격퇴되였으며 대호산을 공격한 적 신6군 22사도 아군 30사의 방어선을 한발자국도 뚫지 못하였다.

동북인민해방군 28사지휘부에서는 밤을 리용하여 적지휘부를 습격할 임무를 조선인부대에 하달하였다.

적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다는것을 알자 필

사적으로 발악하며 날뛰였다. 101고지를 방어하던 조선인부대는 탄약도 식량도 떨어졌지만 끝까지 결사전을 벌리였다. 적들은 공산당군대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악용하여 인민들을 앞에 세우고 그뒤에 저들이 서서 기여오르기까지 하였다. 이때 전투원들은 인민들이 30m가까이까지 온 다음 그들을 엎디게 하고 적들을 총탄으로 그리고 육박전으로 소멸하였다.

전투원들은 3일간 이 고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하였다. 뒤이어 10종대와 금주해방전투에 참가했던 부대가 여기에 도착하였다. 아군은 25일 밤에 적들의 종심으로 공격하였다.

동북인민해방군부대들은 5일간의 격전을 통하여 료요상병단의 5개 군 12개 사단의 10만여명을 섬멸하고 료심전역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흑산, 대호산전투에서 국민당군 병단사령원 료요상은 포로되고 부대는 소멸되였다.

료요상은 그때 자기의 일기에 《그들(조선인부대)은 공격할 때마다 모두 날창을 비껴들고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서 전진하였는데 비상히 용감하였다.》라고 썼다.

동북인민해방군 총부에서는 흑산, 대호산전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10종대를 크게 표창하였다. 28사 83련대 3대대 8중대(조선인부대)는 《강철8중대》란 칭호를 받았으며 전군에 그 이름이 소문났다.

흑산, 대호산전투가 있은 후 아군의 총력량은 이미 포위속에 들어있는 심양을 해방하는 전투에로 집중되였다.

심양해방전투

심양은 장개석국민당군의 동북지구 총사령부가 도사리고 있던 마지막 지탱점이며 아성이였다.

적들은 이미 동북지구의 모든 지역에서의 패망이 인정되자 심양만은 내놓지 않고 때를 기다려 포위를 뚫고 내빼려 하였다.

처음에 심양은 중국인부대들이 포위하고있었는데 1948년 11월 1일 총공격을 개시하면서 조선인부대들이 주동이 되였다. 당시 심양에는 사방에서 쫓겨들어온 적군 20만여명의 병력이 공고한 방어진에 의거하여 반항하고있었기때문에 방어진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장춘해방전투에서 빛나는 공적을 세운 조선인부대인 독립4사와 37사(연길에서 조직된 부대)가 땅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달려와 순식간에 적 1 500여명을 살상하고 북쪽방어진을 돌파하였으며 비행장을 점령하고 수십대의 비행기를 로획하였다. 적들은 갈팡질팡하였다. 바빠맞은 적들은 담판을 요구해나섰다.

아군부대의 정치위원이 나가 적들의 화평요구를 거절하고 무조건 투항을 요구하자 적들은 그 앙갚음으로 조선인부대들이 주둔한 비행장구역에 대한 대폭격과 포격을 가하였다.

조선인부대들과 중국인부대들은 련합하여 적들에게 일제히 포사격을 개시하였다.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자 10월 30일 오후에 적장교들은 비행기를 타고 달아나고 10만여명은 아군

에게 투항해왔으며 일부 력량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심양은 11월 2일 오후 5시에 완전히 해방되였다.

심양이 해방된 다음 독립4사의 조선사람들은 심양위수근무를 수행하다가 주체38(1949)년 7월에 조선에 나와 조선인민군 제6사에 편입되였다.

사평, 금주, 장춘, 심양해방전투에서만 하여도 무려 50여만명의 적들이 살상포로되였다.

3년만에 동북해방전쟁은 끝났다.

이 기간에 조선인부대들과 동북인민해방군은 국민당군 신1군, 신3군, 신6군, 신7군과 12군, 16군, 60군, 71군 그리고 10여만에 달하는 사문동의 토비부대를 비롯한 100만대군을 와해시키고 그중 70여만명을 살상포로하였다.

반면에 동북에서 조직된 동북민주련군은 100만대오를 가진 동북인민해방군으로 발전하였으며 240㎜야포와 120㎜박격포를 비롯하여 각종 구경의 포와 땅크, 장갑차, 자동차들과 자동무기들로 무장할수 있게 되였다. 그중 조선인부대 독립4사는 기계화부대로 개편되였다.

동북인민해방군과 조선인부대에 의한 심양해방에 대한 소식은 적들에게 공포를 주고 실망의 화제거리로 되였으며 인민들을 희망과 락관으로 들끓게 하였다.

그에 대하여 당시 봉천(심양)해방속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과거 1주일간 전투에서 국부측은 〈미국식〉훈련과 장비로 된 20만이상의 병력 및 기타 수십만의 지방군을 상실했으리라고 한다. 국부측은 〈미국화부대〉36개 사단의 거의 전부를 상실한것이다. 중국 동북전선에서의 국부군의 이 인적, 물

적손상외에 봉천함락은 중국인민해방군에게 전중국에서의 최대의 〈병기창〉을 제공한것을 의미한다고 AP현지보도는 전하였다. 남경 2일 AP통신은 당시의 권위있는 소식통에 의한것이라 하며 인민해방군의 봉천점령은 2일 오후 3시(봉천시간 오후 5시)에 완료되였으며 봉천수비의 국부군주력부대는 인민해방군이 입성하기 전에 이미 항복하였고 국부만주사령관 위립황장군과 기타 고급장교들은 전선을 버리고 비행기로 북평에 도망하였다고 전하고있다.》

《로동신문》 주체37(1948)년 11월 5일부는《국민당정부 총사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남경 4일 AP통신에 의하면 중국국민당정부 행정원은 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총사직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로동신문》주체37(1948)년 11월 14일부는 동북지구의 완전해방과 관련하여 당시 섬북에 있던 신화통신이 비관에 싸인 장개석의 몰골과 동북해방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고 전하였다.

《장개석정부 붕괴위기

섬북에서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동북지구를 완전히 해방시킨 위대한 승리는 남경정부를 뒤흔들고있다.

…

동북에서 미국무기로 무장한 3개 병단을 손실당한 장개석은 10월 30일 북평으로부터 당황히 남경으로 돌아가서 그날 오후에 … 고급조수들을 자기 관저에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하였는데 동회의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음울한 공기가 돌고있었다. 장개석은 평상시의 락관적음성을 버리고 현하의 군

사정세는 대일전쟁이 끝난 이후에 생긴 가장 엄중한 정세라고 말하였다.

장개석은 정부의 동북에서의 형편은 대단히 나쁘며 그것이 붕괴되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3개월내이면 결정될것이라고



蔣介石政府崩壞의危機

東北解방에 對한外報들의論評

【평양十三日발朝鮮중央통신】 섬北에서 新화사통신은 다음과같이 전하고있다 중국人民解放軍이東북地區를 완全히解放시킨 위대한 승利는 南경政府를 뒤흔들고있다 南경十月二十九日발 에이•피통신記者는 『국民黨의만주에서의 엄중한 패北는 남경을 갑자기 긴張케하였다 市民들은 政府를 옮길가능性을 공공然히 말하고있다』라고 報道하고있다 南경一日발 로이터통신은 국民黨反動두두머는 광東에 도망가여 망명政府를 수立할지도 모른다고하면서 『국民黨의 만주에서의 실패는 장개석政府에對하여 과거 二十年間의 어느시期보다도 더 붕괴의위험이 농후하게하고있다』고 報道하고있다 東北에서 米국무器로 무장한 三개병團을 손실한 장개석은 十月三十日 北평으로부터 당황히 南京에로 돌아가서 고날오후에 翁文호 何應欽 張群을 포함한 그의 高級助手들을자기官邸에 모아놓고緊急會議를 하였는데 동회의에서는 以前에보지못하였던 陰鬱한 기가 돌고있었다 장개석은 평상시의 타관적음정을버리고 現下의 국사정세는 대일전쟁이끝난후에생긴 가장엄重한 정세라고 말하였다 장개석은 정부의 東北에서의 形便은 大端히 나쁘며 그것이 崩괴되느냐않느냐는 앞으로 三개月내이면 결정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의 三개월은 가장 넘기기어려운 기간 이라고 자認하였으며 그는 정부가 앞으로의 三개월을 넘길

《로동신문》 주체37(1948)년 11월 14일부에 실린 기사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의 3개월은 가장 넘기기 어려운 기간이라고 자인하였으며 그는 정부가 앞으로의 3개월을 넘길수 있느냐 넘길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신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음울하고 비관적인 음성으로 연설하였다.

…

이때에 와서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들은 북평, 천진들에서 다 달아났고 장개석을 지원하던 미국군사고문은 자살하였으며 장개석이 군사원조를 요구하는데 대하여 미국인들은 〈미국에 가서 휴식이나 하라〉고 하며 군사원조를 거절했다.》

영구항해방전투

영구는 적들의 기본해상보급기지로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영구항은 이미 1948년 6월 조선인부대 독립4사에 의해 1차타격을 받아 증원보급기지로서의 사명은 수행할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료심전역에서 영구항은 적들의 주요한 퇴각로의 하나였다. 더우기 금주가 아군에게 장악된 후 영구는 적들이 희망을 거는 마지막 출로였다. 영구항을 완전히 해방시키지 않으면 패잔병에 불과한 수만명의 적들을 놓칠수 있었다. 때문에 심양해방전투와 때를 같이하여 영구항을 해방하기 위한 작전을 벌렸다.

심양포위전을 끝내고 적들을 소멸하면서 영구방향으로 진출한 7종대 20사는 14시간동안 강행군하여 영구에 도착하였

다. 그때에는 이미 부두가에 있던 적들까지 기본적으로 소멸되고 군함 3척이 금시 항을 빠져나가고있었다.

먼저 도착한 보병들이 삼면에서 중기, 경기로 달아나는 군함에 집중사격을 가했으나 허사였다. 이때 뒤미처 도착한 7종대직속 조선인포병대대 포장 정원태는 재빨리 포를 전개하고 군함이 가는 앞길에 위협사격을 하였다. 그의 포탄 첫발은 군함의 앞에, 다음은 좌우옆에서 물기둥이 솟구쳐오르게 하였다. 이렇게 반복하니 적들은 할수없이 배머리를 돌려 흰기를 내들고 돌아와 투항하였다. 포장 정원태는 포탄으로 적들의 군함 3척을 나포하였다.

1만여명의 패잔병들이 손을 들고 갑판에서 내려왔다. 그중에는 군단장급장령 3명, 사단장급장령 8명을 포함하여 500여명의 장교들도 있었다.

이처럼 포장 정원태는 여기서 또다시 대공을 세웠다.

이로써 패잔병들이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있던 영구까지 동북인민해방군에 의해 해방됨으로써 장개석국민당군은 동북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였다. 장개석의 처지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지원은 전국해방의 날까지

1948년 11월 중국 동북지방의 가장 큰 도시이며 장개석국민당군대의 총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심양이 해방되여 중국에서의 동북해방전쟁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일제가 패망한 후 피의 결전의 대가로 이루어진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는 참으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이제는 전중국을 해방하고 공화국창건을 선포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이게 되였다.

심양을 해방한 후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우리 조선사람들이 속한 제4야전군은 이어서 산해관을 해방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관내로 진격해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관내에 들어가서 진행한 작전은 평진전역이였다.

평진전역은 북평(베이징), 천진, 장가구일대의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작전을 말한다. 이 작전은 1948년 12월 5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였다.

당시 부작의가 국민당군 60만명을 거느리고 북평, 천진, 장가구일대에 견고한 방어진을 치고있었다.

제4야전군은 땅크, 장갑차와 각종 포를 비롯한 기계화부대의 엄호하에 파죽지세로 관내에 진격해들어가 화북야전군과 배합작전을 하여 베이징과 천진의 적들을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첫 타격을 천진에 가하였

다. 천진은 대도시인데 사계청소를 하여 성밖에는 집 한채도 없었다. 적들은 성문에 철조망을 치고 수많은 포대를 축성해놓았으며 성밖으로는 깊이 6m, 너비 5m의 해자를 파고 바다물을 끌어다넣었으며 그앞에는 지뢰원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둘러쳤다. 적들은 천진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놓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고있었다.

이때에 와서 해방군의 무력은 동북해방전쟁때와는 대비할 수 없이 강화되였다.

전투방식에서는 장기간 포위하다가 적들이 맥이 빠진 다음에 폭약을 안고 들어가 적포대를 까부시던 방법이 아니라 강력한 포사격과 기계화부대의 엄호밑에 전면공격을 위주로 하였다. 즉 지구전으로부터 전격전으로 이행하였다.

1948년 12월 중순 해방군은 천진포위를 끝내고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적들은 거절하였다. 해방군은 즉시 1949년 1월 14일 각종 구경의 수백문의 포로 일제사격을 가한 후 뒤따라 보병이 진격을 개시했다. 이때 조선사람들 대부분이 포의 조준수 혹은 땅크나 자동차의 운전사로 활동하였다. 해방군의 강력한 포화력과 수십만의 보병들의 총공격앞에서 적들은 도주하거나 투항하였다. 아군은 적군 13만여명을 섬멸하고 1949년 1월 15일 천진을 해방하였다. 장가구는 이보다 앞서 해방되였다.

천진, 장가구가 해방되자 베이징방위총사령 부작의는 30만에 달하는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투항하였다. 1949년 1월 31일 베이징은 한방의 총소리도 없이 해방되였다. 결국 평진전역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적 52만여명을 살상포로하였으며 장강이북 화동지방에서 회해전역(1948년 11월 6일부터

1949년 1월 10일까지 사이의 작전)을 벌려 적 55만 5 000여명을 소멸하고 장강이북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내에서는 장강이남으로 계속 진출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제기되였다. 남방의 지형이 어떻다느니 자연조화가 신비로와 《남방에 가면 동북사람은 살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아 하루에도 수백명씩 도주자가 생겼다.

장개석국민당군대가 조선사람들때문에 쫓기운다고 비명을 지르며 장강이남으로 줄행랑을 놓았고 이제는 국민당군의 패배가 눈앞의 시간문제로 남아있던 때에 대오내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중국공산당앞에 심중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전중국해방에서 제4야전군이 핵심적인 주력부대의 하나이고 또 여기에서 조선사람들이 돌격대적역할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인부대들이 중국혁명을 끝까지 도와주는 문제는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결속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런데로부터 중국공산당에서는 이 사태를 놓고 토론하던 끝에 왕효명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다.

※ 왕효명은 해방전 국제련합군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투쟁하였으며 해방후 길림위수사령부 부사령, 연길군구사령원, 동북야전군 제11사 사단장, 포병 제6사 사단장, 1950년 이후 해군포병학교 교장으로 사업하였다.

1949년 2월 왕효명은 우리 나라가 중국의 해방전쟁을 끝까지 도와줄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효명을 접견하시였다.

왕효명은 접견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북해방전쟁에 물심량면의 지지성원을 준데 대하여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보내는 감사를 전해드리고 중국의 전국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들으시고나서 중국혁명을 끝까지 도와주는것은 조선의 변함없는 립장이라고 천명하시며 중국측의 요구를 쾌히 수락하시였다.

왕효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제나오늘이나 변함없이 중국혁명을 도와주고계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올리고 그 길로 압록강을 넘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효명을 접견하신 다음날 조선인민군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과 전쟁형편에 대하여 알려주시고나서 빨리 중국의 천진에 가서 조선인부대들이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끝까지 도와주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할데 대한 지시를 주라고 명령하시였다.

명령을 받은 책임일군은 곧 압록강을 건너 조선인부대들이 주둔하고있던 천진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는 동북해방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국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앞으로도 용감무쌍하게 잘 싸워 위대한 수령님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믿음에 보답하고 조국에 귀국하라고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조선인부대들은 잠시 주춤거리였던 자신들을 다잡고 중국의 전국해방을 위한 길에서 다시한번 용맹을 떨칠 결의를 다지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부대들은 또다시 준엄하고도 간고한 3만

여리의 진격의 길에 나서서 남하행군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 체질에 맞지 않는 물과 풍토, 말라리아, 리질 등 질병을 이겨내며 매일 40㎞를 행군하였고 적과 싸우면서 장강을 건너 해남도까지 전진하였으며 수십차의 전투끝에 하남성, 강서성, 광동성, 호남성, 광서성, 귀주성을 해방하고 중국의 베이징 천안문광장에 오성홍기가 휘날릴 때까지 싸웠다.

장강도하작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부대들과 조선사람들은 장개석국민당군대를 끝까지 소멸하기 위하여 우선 부대내에서 진행하고있던 《정풍운동》에서 모범을 보였다.

《정풍운동》에서는 중국혁명을 끝까지 도와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내용을 가지고 부대내에서 학습도 하고 담화도 진행하였다.

이들은 고대그리스의 우화를 가지고도 담화하였다.

한 농부가 겨울에 꽁꽁 언 뱀 한마리를 발견하고 그 뱀이 몹시 가엾게 생각되여 품속에 넣어 녹여주었다. 온기를 받은 뱀은 소생되였는데 자기의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후에 은인인 주인을 물어서 농부는 죽게 되였다. 그때 농부는 죽으면서 《나는 악한놈을 불쌍히 여겼으니 이런 화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이 우화는 간악무도한 원쑤는 끝까지 소멸해야 한다는것

을 깨우쳐주는것이였다.

부대에서는《정풍운동》과 함께《평공운동》을 하여 평진전역에서 발휘한 조선사람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일부 성원들은 관광단에 망라시켜 베이징의 고궁박물관과 북해공원, 천안문, 만수산 등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시켰다.

이렇게 정치사상사업을 진행하고나서 제4야전군은 장강전선으로 떠났다.

조선인부대들은 2개의 방향으로 남방진출을 진행하였다.

한 방향은 베이징을 포위하고있던 제4야전군 13병단 47군에 속한 조선인부대의 진격로였고 다른 한 방향은 천진해방전투에 참가했던 43군 156사를 비롯한 제4야전군 15병단에 속했던 조선인부대들의 진격로였다. 그외 38군, 40군, 44군, 49군에 속한 조선인부대들도 남방으로 진출하였다.

※ 당시 중국에는 야전군아래에 병단이 있고 병단아래에 군(군단)이 있었으며 군단아래에 사(사단), 그아래에 단(련대), 영(대대), 련(중대), 배(소대), 반(분대)이 있었다.

13병단 47군에 속한 조선인부대들은 1949년 4월 베이징을 떠나 평한로와 그 서쪽을 따라서 무한 서부지구를 향하여 매일 30～40㎞씩 남진하여 5월에 하남성 신향을 포위하고 국민당군 1만 7 500여명을 투항시켰다. 7월에는 의창을 해방하고 향금구에서 적의 포병대대를 소멸하고 중형박격포 12문을 로획하였으며 적병 100여명을 포로하였다. 47군의 포병련대는 화북야전군을 도와 염석산의 소굴인 산서성 태원을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하였다. 156사를 비롯한 15병단의 조선인부대들은 천진해방전투에 참가한 후 3월 23일에 천진을 떠나

황하를 건는 다음 개봉, 허창을 거쳐 7월에 경문에 도착하였다.

이때 중국공산당에서 조선혁명을 위하여 조선사람들을 아낄데 대한 지시가 내려 조선사람들은 포부대와 경위대 그리고 후방부에 배치되여 사업하다가 전투없이 장강대안에 도착하였다.

남방진출은 황하를 건느는 시기부터 매우 간고하였다. 황하를 건느는 도중 모래감탕밭에 마차와 말, 사람까지 빠져죽는 일이 허다하였으나 조선인부대들이 앞장서서 길을 개척함으로써 황하를 건너 개봉, 허창, 남양을 거쳐 3개월만에 경문에 도착하였다.

이 지대는 이미 해방된 지역이여서 전투는 없었으나 더운 날씨에 거의 매일 내리는 비때문에 옷을 말리울수 없었고 특히 식생활이 맞지 않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개봉이남부터는 주식이 밀가루인데 끼니때마다 처음에는 만두를 7～8개 먹었으나 한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보기만 해도 역겨워하며 하루에 한개도 먹지 못하였다. 그래서 만두를 물에 풀어먹어도 보고 다른 음식도 해먹어보았는데도 구미를 돋구지 못하여 한달이 지나자 전사들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수개월동안 행군하고 전투를 계속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져 서로 언쟁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조선인부대들은 이러한 정신, 육체적고통을 이겨내면서 3개월의 긴 행군끝에 장강일대에 도착하였다.

장개석은 중국인민해방군이 황하를 넘어 남진의 길에 오르자 미제의 조종밑에 중국공산당에《평화담판》을 요구했다.

미제는 어리석게도 중국공산당에 장강을 경계로 하여 분할통치하는것이 좋겠다는《절충안》을 제기하면서 만일 저들

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원자탄을 쓰겠다》느니,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다 동원하여《무력간섭을 하겠다》느니 하고 위협하는 한편 장강을 경계로 하여 화평을 하면 20억US$의 무상원조를 주겠다는 등의 회유책동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미제와 장개석국민당의 기도를 간파하였지만 하루빨리 국내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이룩할 목적밑에 국민당과 담판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4월부터 주은래와 국민당대표간에 담판이 진행되였다.

평화담판을 벌려놓은 장개석국민당은 막뒤에서 장강에 자기들의 무력을 증강하고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국내평화협정초안에 서명하는것을 거절하였다. 하여 중국공산당은 전국을 해방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장강을 도하할 목적으로 수백만의 대군을 장강연안에 배치하고 도하준비를 다그치였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에는 배도 없고 도하기재도 없었으므로 장강을 도



장강도하전투

하하는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조선인부대 지휘관들은 결사대를 무어 장강도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장강도하작전은 단풍전투로부터 시작되였다.

무한에서 동쪽으로 약 50㎞ 떨어진 곳에 있는 단풍진은 제4야전군의 중요한 장강도하지점의 하나였다.

제4야전군의 맨 앞장에서 남방으로 진출한 15병단은 국민당군이 장강방어선을 강화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야전군주력이 장강이북에 다 집결될것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단풍—무혈간의 약 100㎞ 전선에서 강행도하작전을 벌리였다. 선두부대들은 1949년 5월 7일경에 장강이북의 전투구역에 들어섰는데 15병단의 43군 조선인부대 156사는 신주—림산하일대에서 전투명령을 기다렸다.

국민당군대는 장강북안에 배치했던 저들의 26군을 장강남안으로 철수시키고 장강북쪽에는 8개 대대만 남겨두어 해방군의 도하작전의도와 움직임을 정찰하게 하고 북쪽대안의 배들을 장강남안으로 끌어감으로써 아군의 도하작전을 파탄시킬것을 획책하였다.

156사에서는 466련대로 하여금 단풍의 적을 불의에 습격하여 소멸하고 적들의 수중에 있는 선박들을 몽땅 탈취하게 하였다. 466련대에서는 5월 13일 불의의 습격으로 2분만에 1호부두를 폭파하고 6분만에는 부두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계속 신속령활하게 전투를 진행하여 한시간 남짓한 사이에 적들의 장애물들과 영구화점들을 다 날려보내고 단풍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500여명을 소멸하고 중기, 경기 18정, 보총 430정, 선박 68척을 로획하였다. 또한



피를 바쳐 중국의 전우들을 구원하고있는 전투영웅 리순임

장강남쪽대안의 적들을 들이치고 300여척의 각종 배들을 로획하여 제4야전군부대들의 장강도하를 신속히 보장하였다.

이 전투에서 8명의 전투영웅이 났는데 리순임은 두번째로 영웅칭호를 받아 2중영웅이 되였다.

한편 156사의 조선인용사들은 장강남쪽대안에 있는 적군함 4척을 탈취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련대장, 대대장을 비롯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가 적들에게 발각되여 다 희생되자 다시 밤을 리용하여 77명을 도하시켰다. 그중에서 14명이 적의 함선에 올라가 함선을 나포하는데 성공하였다.

해방군이 함선을 리용하여 장강을 건느게 되자 적 한개 군단은 스스로 투항하였다.

제4야전군 44군 131사가 담당한 구역에서도 조선인전투원 60여명이 나무배를 타고 노도 없이 손으로 물을 가르면서

장강을 도하하여 아군의 진격로를 개척하였으며 어떤 부대에서는 소오줌통을 수백개 얻어가지고 그것을 2개씩 목에 달고 도하하여 적화점들을 까부시고 돌격로를 개척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조선사람들은 대부분 포의 조준수로서 적화점을 명중시켜 도하지점들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4야전군 13병단 47군의 139사, 140사, 141사에 속한 조선인부대들은 장강을 건는 후 12병단과 함께 호남성 장사시를 반달형으로 포위하였다.특히 두 병단의 조선인부대가 주동이 되여 형양이남으로 진출한 결과 유일한 퇴각로가 차단당하게 되자 8월 4일에 한개 병단사령부와 3개 군단, 9개 사단, 3개 보안련대를 포함한 장사의 모든 적들은 해방군에 투항하였다. 이렇게 되여 호남성 장사시는 전투없이 해방되였다.

장사시를 해방한 47군의 조선인부대들은 사천성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국민당군의 14병단과 20병단의 11만명의 적들은 해방군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47군의 호된 타격을 받자 호남성서부의 높은 산과 장강, 오강의 천연요새에 의거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천성으로 진격하는 해방군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시도하였다. 47군사령부에서는 139사의 조선인부대에 호남성서부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대용현소재지를 점령할 임무를 하달하였다. 139사의 조선인부대전투원들은 무더위를 무릅쓰고 높은 산과 령을 넘으며 도중에 토비들, 패잔병들과 부단히 싸우면서 행군을 다그쳐 저녁무렵에 대용에 도착하여 적들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민당 122군 군단장이하 5 000여명을 소멸하고 대용현소재지를 해방하였다.

대용전투후 139사, 141사의 조선인부대는 적들을 끊임없이 추격하여 흑수전투, 목동장전투를 벌려 수천명의 적을 소멸하고 사천성에 들어선후 매일 수십㎞씩 산길을 행군하면서 백계장, 백마 등에서 17차례의 대소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전투들에서 국민당군의 고위급장교들을 비롯하여 4 800여명을 포로하였다.

그후 조선인부대들은 1949년 11월 30일에 중경해방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때 중국인민해방군 제2야전군 사령원 류백승은 중경해방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47군 부대들의 모든 전투원들에게 은전 2원씩, 군관들에게는 은전 4원씩 상금표창을 하였으며 중남군구사령부에서는 47군에 집체표창을 하였다. 원래 중경을 해방할데 대한 임무는 중국인민해방군 제2야전군이 맡았는데 제4야전군 47군 조선인부대들이 중경해방을 도와주어 승리하였기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우 감사히 여겨 표창하였던것이다.

중경해방전투에서 중국인민해방군부대와 함께 조선인부대는 국민당군대의 련대급장교 19명을 포함하여 7 500여명을 살상포로하였고 무전기 5대, 무선전화 1대, 망원경 5개, 군마 180마리, 자동차 9대, 각종 탄약 30만 7 000여발, 수류탄 585개, 보총 2 890정, 경기관총 261정, 중기관총 60정, 척탄통 14문, 60㎜포 35문, 박격포 14문, 기관포 8문, 고사포 8문을 로획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이렇게 장강을 넘어 계속 남진하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였으며 해방지역인민들을 새 생활에로 이끄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장강이남지역의 안전을 지켜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장강이남지역에 가서 전투보다 더 큰 고초를 겪은것은 자연기후조건과의 《전투》였다.

남방의 모기에 한번만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리고 모기에 물리는것자체가 벌한테 쏘인것만큼 아팠다. 그렇기때문에 휴식할 때에도 모기장이 없으면 곤난하였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 갈증에 시달렸고 찬물만 한모금 마시면 영낙없이 리질에 걸렸다. 이로 해서 동북에서 온 부대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다. 게다가 국민당군대들이 달아나면서 반동선전을 얼마나 하였던지 마을주민들이 인민해방군을 피하여 달아났다. 조선인부대들은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아껴주시던 그 모범을 따라배워 마을들에 들어서면 사람이 없어도 집집의 마당을 쓸어주고 빈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당에서 잤으며 물독이 비였으면 물도 길어 가득 채워주었다. 지병학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이 앞장서서 전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면서 조선인부대들을 이끌었다.

주민들은 해방군의 동정을 살피다가 국민당군대들이 거짓말을 했다는것을 깨닫고 곳곳에서 달려나와 물을 끓여주고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환영하였다.

그러나 해방지역에서 반동들은 의연히 준동하면서 저항하였다.

장강이남지역은 력사적으로 북방과 대립되여있었으므로



지 병 학

주체6(1917)년 5월 24일 출생. 해방전 중국 훈춘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해방후 훈춘현 경비대 대대장, 길동분구사령부 보안대 5련대장, 제4야전군 156사 16련대 부련대장, 독립15사 참모장으로 동북해방전쟁에 참가. 그후 조선인민군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다가 주체66(1977)년 2월 28일 서거. 항일혁명렬사임.

장강이남지역인민들의 북방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좋지 못했다. 당시 이곳 주민들속에서는 그때까지도 제갈량에 대한 원성도 크다고 하는 형편이였다.

장개석도당은 인민들의 이러한 감정을 악용하여 부락마다에 저들의 특무망을 늘여 정보수집조, 암살조, 파괴조 등을 조직해놓고 해방군을 해치려고 하였다. 국민당이 조직한 특무망에 100만명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렸다.

당시 이 지방에서는 권총으로부터 경기관총에 이르기까지 무기들을 자유판매하였다. 수많은 무기들이 악질적인 반동들의 손에 들어가있었으므로 해방군부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반동들은 무지몽매한 주민들을 부추겨 해방군초소에 총과 창, 칼을 들고 달려들게 하였으며 분대나 소대가 움직일 때 길에 매복하였다가 불의에 달려들어 해방군을 해치였기때문에 마음놓고 다니지도 못하였다. 특히 광서성을 통과할 때 해방군은 시련을 겪었다.

남방지대에 묘족, 이족, 동족 등 많은 소수민족들이 분산

거주하고있었는데 광서성에는 묘족이 약 300만명정도 있었다. 이곳에는 정권도 없었고 비행기, 자동차를 본 사람도 없었다. 묘족들은 찰벼를 발방아로 찧어 죽밥을 해먹었고 귀한 손님이 오면 쥐를 잡아 볶아주었다. 이곳에서는 은전 한잎을 주면 돼지 한마리를 살수 있었다. 다른데 같으면 이 돈으로 돼지고기 2㎏밖에 살수 없었다. 이런 묘족과 함께 귀주성에는 녀자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남자들을 랍치하는 종족이 30만명정도 있었는데 수적으로 적은 남자들은 녀자들에게 붙잡혀가지 않기 위하여 집단방어를 하며 굴에 숨어살고있었다. 장개석반동들이 이런 종족들에게 반동선전을 들이대여 해방군을 해치는데 리용하였기때문에 무지몽매한 이들은 서슴없이 군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사방에서 해방군이 사살되고 행방불명이 되고 화재가 나고 뜻밖의 비상사고가 계속 일어나 수습하기 어려웠다. 이때에도 조선사람들은 규률을 잘 지키고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한편 정치사업을 잘하여 지역을 평정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는데 앞장섰다.

남방에는 대를 두고 내려오면서 로략질만 해먹고 사는 상습토비무리들도 있었다. 호남성과 귀주성 경계지대의 여러곳에 이런 무리들이 수백명씩 떼를 지어 살고있었다. 이들은 어느 정권의 통치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왕국을 형성하고있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주변인민들의 재산을 략탈해먹으며 제멋대로 살고있었다. 제4야전군 47군의 주력부대는 사천성에서 호남성서부지구로 돌아와 그곳에서 토비숙청을 하고있던 140사와 합세하여 139사는 원릉에, 140사는 회창에, 141사는 녕도에 군구를 설치하고 토비들을 숙청하는 투쟁에 착수하였다.

토비무리들은 장개석국민당정부가 오래동안 숙청하느라 하였지만 끝내 소멸하지 못한 토비들이였다.

광서에 있던 국민당군벌 백승회는 아군이 진격할 때 도망가면서 이곳 토비들에게 여러가지 《임명장》과 많은 무기를 주면서 국민당군이 반공격할 때까지 《적후유격전》을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국민당군의 부추김을 받은 토비무리들은 상서북부와 남부의 복잡한 지형을 리용하면서 해방군과 장기적으로 대항할 시도를 하고있었다. 당시 이곳 상서지구의 23개현에는 크고작은 토비무리가 8만여명이나 있었다. 그들이 지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점들을 차지하고있었기때문에 소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여러곳에 있는 이 악질적인 토비무리들을 소탕하는데서 조선인부대들은 잘 싸워 《동북범》으로 명성을 날리였다. 141사와 139사의 조선인부대는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팔면산과 상서, 수원지구의 적과 마양, 봉황의 적들을 소멸하고 2개현성을 되찾았으며 그후 토비무리들을 습격하여 1 000여명을 소멸하였다.

47군의 조선인부대들은 3개월동안에 9차례의 큰 전투를 진행하여 9 000여명의 토비들을 소탕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영순현의 토비들을 소탕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영순현에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막힌 고원지대의 자연요새에 토비소굴이 있었다. 여기에는 수백호의 토비들이 부락을 이루고있었으며 늙은이들과 녀자들이 농사를 짓는 수십정보의 밀밭까지 가지고있었으나 주로는 청장년들이 무장을 갖추고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로략질해온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었다. 이들의 소굴로 들어가자면 외통길인 굴안의 물길을 따라 배를 타

고 들어가다가 사람이나 겨우 빠져나갈수 있는 굴길을 톺아 올라가야 하는데 굴입구에는 토비들이 기관총까지 걸어놓고 지키고있어 누구도 범접할수 없었다.

이런 정황에서 조선인부대인 141사 422련대의 전투원들은 굴길을 기어이 통과할 목적밑에 방도를 모색하다가 류황을 얻어다 굴밑에서 태워 굴간을 지키던 토비들을 다 쫓아버리고 방독면을 쓰고 굴길을 통과하여 토비소굴로 들어갔다. 그들이 소굴에 들어가보니 젊은것들은 다 도망치고 늙은이들과 아이들만 남아있었다. 늙은이들에게서는 토비들이 간 곳을 알아낼수가 없었다. 오히려 항거하는것이였다.

조선인부대는 무지막지하게 살아온 토비들에게 공산당의 정책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쌀과 천을 비롯한 물건들을 가져다 나누어주면서 꾸준히 해설설복하였다. 결과 토비노릇을 하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였다.

제4야전군 43군의 조선인부대인 156사는 장강을 도하한 후 국민당군을 계속 추격하여 5월 22일에 강서성 남창시를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하고 남창시에 주둔하면서 강서성위수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발전소, 식량창고 기타 설비와 물자들을 장개석군대의 특무들과 패잔병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보위하고 공장들이 다시 생산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처에서 날치는 토비무리들을 소탕하고 해방시킨 부락에서 일체 무기를 회수하였다. 156사는 이어 3 000여명의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파견하여 농촌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제4야전군 13병단 38군, 49군에 속하는 조선인부대들도 산해관을 넘어 평진전역에 참가하고 장강을 건너 수십차의 전투를 거듭하면서 하남성, 강서성, 광동성, 호남성, 광서성, 귀주

성을 련이어 해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40군, 44군에 소속된 조선인부대들도 장강을 건너 해남도까지 진격하였다.

해남도해방전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창건되였으나 국민당군잔여분자들의 준동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적들을 마지막까지 소멸하기 위하여 조선인부대들은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계속 전진하였다.

중국에서 대만 다음으로 큰 섬인 해남도는 중국남해의 관문이다.

1949년 12월 광동성과 광서성이 해방되자 중국대륙은 기본적으로 해방되였다.

광동성과 광서성에서 살아남은 국민당군잔여분자들은 앞을 다투어 해남도로 도망쳐갔다.

장개석은 해남도방위총사령으로 설악을 임명하고 여기에 보병사단 19개, 해군함선 50척, 공군 4개 대대에 30여대의 비행기를 비롯하여 10여만명의 병력으로 륙, 해, 공군 립체방어체계를 수립하고는 이를 《깨뜨릴수 없는 성새》라고 하였다.

국민당군은 해남도를 장기적으로 강점하고있으면서 중국본토를 반공격할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군함과 비행기로 연해도시와 마을들에 대한 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다.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해남도를 해방하기 위하여 제40군과 제43군에 전투임무를 하달하였다.

제40군에는 조선인포병부대가 있었다. 처음에 이 포병부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여 동북해방전쟁에 보내주신 련대였는데 처음에는 산포를 가지고 많은 전투를 진행하였으나 료심전역, 평진전역으로부터 계림과 남녕에 이르기까지 수십차의 큰 전투를 하는 과정에 적들의 무기들을 로획하여 이 시기에 와서는 57식야포, 38식야포, 14편식야포 등 현대적무기로 무장하게 되였다.

이때는 대대로 재구성되였는데 광서성을 해방한 후 광주에 와서 제40군의 직속포병대대로 되면서 150명씩 2개의 중대로 되였다.

광동성 뢰주반도에서 이 포병대대가 해남도를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 참가하게 되였다. 포병대대의 임무는 목선을 타고 적비행기와 군함의 공격으로부터 보병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해남도에 상륙할수 있게 엄호하는것이였다.

당시까지 중국인민해방군은 해군도, 군함도, 공군과 비행기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며 해상에서 싸워본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조선인포병대대성원들은 하루빨리 해남도를 해방할 한마음으로 우선 물우에서의 전투훈련에 달라붙었다. 이들 모두가 우리 나라 북부지대와 중국 동북지방 연변에서 살았기때문에 대부분이 바다라는것조차 처음 보는 사람들이였고 헤엄칠줄도 몰랐으며 배를 타보지 못해 배에 오르기만 하면 멀미를 하여 그 고통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게다가 남방의 무더운 날씨에 습관되지 않아 자꾸 찬물을 마시고는 리질로 고생했고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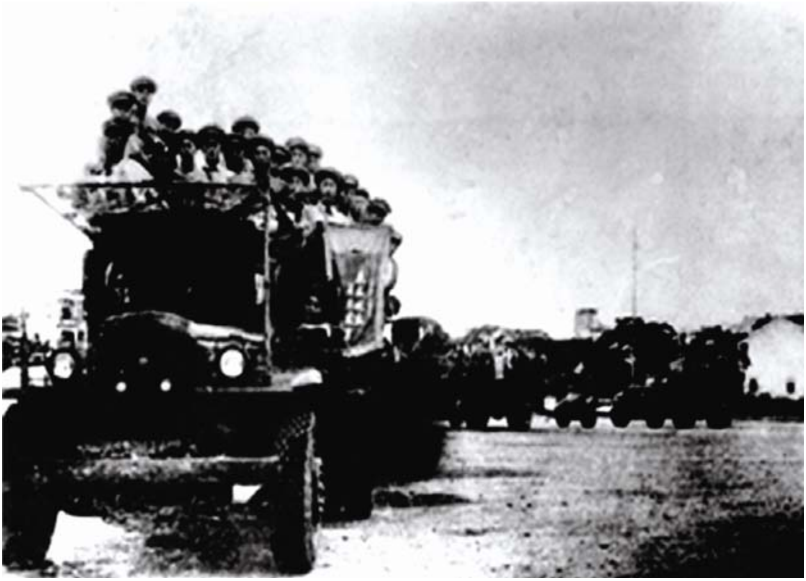
이런속에서도 포병대대전투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끝까지 중국혁명을 도와주라고 하신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

고 이악하게 훈련을 하였다. 이들은 해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풍랑속에서 노젓기, 헤염치기, 다리건느기훈련을 이악하게 하여 끝내 해상작전을 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경험있는 배사공을 데려다 참대를 베여 배를 뭇고 돛을 달았으며 여기에 포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12척의 참대배를 무었다.

이 참대배 1척에 산포 1문, 57식, 38식야포 각각 1문, 고사기관총 2정, 중기관총 2정, 경기관총 3정을 설치하였으며 돛 4폭을 달고 자동차발동기도 설치하였다.

포병대대전투원들은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달밤에 해상실전연습을 진행하였다. 연습은 성공적이였다. 기쁨에 넘친 포병대대전사들은 자신들을 중국인민해방군의 제1대 해군이



해남도전투를 위해 진출하는 제40군 포병대대

라고 자랑하였다.

1950년 4월 16일 포병대대를 비롯한 전체 전투원들의 출정식이 있었다. 출정을 앞두고 40군사령부에서는 서문시 앞바다에서 해남도상륙부대를 환송하는 대회를 가지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 주덕이 제4야전군에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고 붉은 바탕에《풍랑을 헤가르며 승리적으로 전진하라!》고 쓴 뢰주반도인민들이 보내온 기발을 조선인포병대대에 증정하였다. 이어 500여척의 참대나무로 만든 배에 사단의 보병이 타고 그 좌우량쪽에 조선인포병대대가 배 12척에 나누어 타고 저녁 6시에 출발하였다.

그들이 30리쯤 항행하였을 때 공중에 조명탄이 오르고 국민당군대 비행기와 군함이 나타나 폭격과 포격을 하며 달려들었다.

이때 조선인포병대대 전투원들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포를 장치한 참대나무배들을 적함의 배후로 몰고가서 갑자기 적함에 불벼락을 안기였다. 포병대대의 뜻하지 않은 불벼락에 급해맞은 적군함은 배머리를 돌려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적군함이 도망친 다음 포병대대는 상륙부대와 함께 어둠을 리용하여 쏜살같이 해남도를 향해 내달렸다. 이윽하여 해남도에서 해안을 지키고있던 적군함이 다가오는 아군 상륙부대를 발견하고 함포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포병대대는 12척의 배에 설치한 36문의 각종 포로 일제히 불을 뿜어 적함선과 해안에 설치하였던 적의 방어시설들을 하나하나 소멸하였다. 이어 보병을 태운 500여척의 배들이 해안에 닿았다. 보병들은 조선인포병대대의 엄호밑에 륙지에 오르자 파죽지세로 국민당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앞서 포병대대에서는 이미 3월 26일 저녁에 제40군의 조선인포병 분대장들인 리여길과 리창길을 한개 포병분대와 함께 해남도에 선발대로 들여보냈다. 이들이 먼저 몰래 들어가 림고산을 점령하고 아군상륙을 보장하면 해남도전투가 쉽게 결속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들은 돛배를 타고 남강부두를 떠나 해남도의 림시항계선에 은밀히 상륙하였다. 날이 밝자 적들은 이들을 발견하고 대포를 쏘고 비행기로 폭격하였지만 선발대는 강행군하여 오지산에 숨어들어갔다.

4월 17일 새벽 그들은 해방군주력부대가 해남도에 상륙하던 그 시각에 림고산밑에 도착하였다. 림고산을 점령하는것은 림고현성의 적군을 막아내고 아군대부대의 해남도상륙을 보장하는데서 관건적고리였다. 림고산은 남쪽에 림고현성이 있고 북쪽에 바다를 끼고앉은 산인데 해남도의 해구시 서쪽 200리 해안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였다.

림고산의 전략적의의를 잘 알고있는 국민당군은 5문의 야포와 보병 2개 중대를 여기에 파견하여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있었다. 두 분대장은 4월 17일 이른 새벽 포병분대를 이끌고 가파로운 산꼭대기를 톺아올라 불의에 보초병을 제끼고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보루안의 적들을 답새겨 20분동안에 적의 포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포진지를 점령하자 적들이 버리고 간 600발의 포탄으로 야포를 쏘려고 하였으나 거리와 각도를 재는 기구만 있고 조준경이 없었다.

해방군주력부대는 이미 상륙을 시작하였는데 적들이 해안과 3척의 군함에서 저항하였으므로 아군 주력부대는 순조롭게 상륙할수 없었다.

이것을 본 포병분대장들은 생각끝에 각도와 거리를 재는 기구로 거리를 측정한 다음 눈으로 조준하여 포를 쏘기 시작하였다. 첫 포탄이 적군함결에 떨어지며 물기둥을 일으켰다. 련이어 10발을 쏘았다. 포탄은 점점 적군함에 접근하였다.

앞에 있던 적군함이 질겁하여 도망치자 다른 2척의 적군함도 아군의 포사격에 달아나고말았다. 아군 포병분대에 의하여 적들이 제압된 유리한 조건에서 아군의 대부대가 상륙하였다.

림고현성을 지키고있던 한개 련대의 적들은 아군이 공격해오는것을 보자 남문으로 도망치려고 하였다. 이것을 본 포병분대는 포를 돌려대고 도망가는 적들을 답새겨 달아나던 적들을 다시 현성안으로 몰아넣었다.

이어 어둠이 깃들었다. 하루동안 긴장하게 전투를 하고난 전사들은 깊은 잠에 들었지만 두 포병분대장은 잠들수 없었다. 조준경이 없어 적군함들을 놓쳐버린것이 매우 아쉬웠던것이다. 포진지안팎을 샅샅이 뒤져 끝내 돌짬에서 조준경을 찾아내였다.

이튿날도 전투는 여전했다. 아군 대부대는 계속 상륙하였고 적들은 최후발악을 하며 세번이나 포위를 돌파하려고 하였다. 조준경을 찾은 후 포병분대가 쏘는 포탄은 거의 다 백발백중으로 적들을 소멸하였다. 포탄벼락에 적지휘부가 날아나자 적들은 더는 어쩌지 못하고 흰기를 들고 투항하였다.

포병분대는 한주일간 림고산에서 적들이 남겨놓았던 600여발의 포탄을 다 쏘고 다른 진지에 가서 또 적들이 버리고 간 포탄 300여발을 가져다 계속 포사격을 함으로써 아군 주력부대의 해남도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한편 상륙부대를 호위하고 돌아오던 12척의 포병대대 배들

은 대륙으로 돌아오다가 또다시 적군함 4척과 맞다들었다. 그때 포병들의 포사격에 적군함 한척이 명중되자 나머지 군함들은 방향을 돌려 도망치고말았다. 이때 적함에 명중탄을 안긴 사수 조찬수와 부사수 김동무가 적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들속에서는 조선인부대들이 참대나무배로 미국의 현대화된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이야기가 신화처럼 퍼지게 되였다.

해남도가 해방된 후 조찬수에게 전투영웅칭호가 수여되고 그가 탔던 배를《조찬수》호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먼저 림고산에 올라 아군의 승리를 보장한 리여길과 리창길에게 대공상장이 각각 수여되였다.

제40군 118사 354련대 1대대 기준포중대 포병분대 전사 전투영웅 김기남은 해남도상륙을 위해 바다를 건너올 때 온밤 노를 저었으며 적들이 돛배를 사격하자 자기 몸으로 배사공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상륙할 때에는 포 한문과 포탄이 바다속에 빠져들어가자 물속에 뛰여들어가 포판과 포탄 10발을 건져냈다. 해남도에 상륙한 후에는 적화점을 포탄 3발로 명중시켜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그는 포탄을 다 쏘자 적들의 시체에서 수류탄을 주어다 적들을 소멸하였다.

조선인부대들과 조선인전사들은 이처럼 해남도상륙작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중국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950년 4월 30일 해남도는 해방되였다.

중국혁명은 드디여 승리하였다.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중국인민의 해방위업에 지울수 없는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동북의 철도복구사업을 도와

중국혁명을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국 동북지방의 철도를 복구하고 철도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도 조선인부대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파견원들은 연변민주대동맹을 조직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계각층을 민주주의기발밑에 단합시키면서 중국인민들을 도와 경제복구사업 특히 철도복구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갔다.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하고 도망치면서 철도를 무참히 파괴해버리였다. 그런데다 8.15직후 이미 없어져야 할 괴뢰《만주국》의 잔여분자들이 아직 장개석을 믿고 연변지구에 버티고 앉아 철도를 손아귀에 넣으려 시도하고있었다.

괴뢰《만주국》길림철도국 국장은 국민당이 지도하는 길림철도국유지회를 내오고 각지에《접수대원》을 파견하였다. 조양천지구에는 이른바《감리부》가 서고 괴뢰《만주국》철도감시원을 하던 왕홍운이라는자가 감리부장으로 임명되였다.

이자는 부임되자 괴뢰《만주국》철도경찰과 지방경찰을 규합하여 이른바 철도경찰대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실태를 료해한 강건이 철도로동자들속에 연변철도로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발기위원회를 내오고 룡정, 연길, 도문, 로두구, 조양천 등지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그 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15일 조양천에서 민주대동맹의 지부장 26명과 대표 52명 그리고 방청 615명의 참가

하에 연변철도로동조합창립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강건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강령, 규약을 채택하고 위원장, 상무위원, 후보위원, 감찰위원 등을 선거하여 연변철도로동조합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연변철도로동조합은 창립된 첫날부터 반동세력과 투쟁하였다.

1945년 11월초 로동조합총지부에서는 3명의 대표를 《감리부》에 파견하여 왕홍운에게 로임을 달라, 우리는 당신들을 믿을수 없다, 민주주의적선거로 간부를 선거하자 등의 요구를 제기하게 하였다.

바빠맞은 왕가는 곧 길림철도국유지회에 사람을 보냈다. 길림에서는 절대로 권한을 내주면 안된다는 대답을 보내왔다.

강건은 철도경찰대들의 무장을 해제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1945년 11월 20일 연길현정부회의실에서 열린 연변인민대표대회에서 강건은 민병과 군대가 협동하여 철도경찰대의 무장을 해제할데 대한 안을 제기하고 밤중에 자동차와 땅크에 탄 무장대를 이끌고 철도경찰대를 포위하고 무장해제시켰다. 이에 겁을 먹은 왕홍운일당은 도망쳐버렸고 연변의 철도는 인민의 손에 장악되였다.

11월 30일 연변철도관리국 창립대회에서는 연변민주대동맹 위원장인 지희겸을 연변철도관리국 국장으로, 리충진을 부국장으로 선거하고 철도관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때인 1945년 12월초 교하에 도망가있던 왕가는 국민당동북접수위원회의 소개신을 가지고 연변철도관리국 국장 지희겸을 찾아가 자신은 장경국의 지령을 받고 파견되여 온 대표라고 하면서 연변철도를 접수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장경국이란 장개석의 아들이다. 당시 장경국은 심양에 와 있으면서 동북을 다 제손아귀에 넣으려고 시도하고있었다. 왕가는 바로 이 국민당 동북접수위원회의 세력이 든든하다고 믿고 자못 거만한 태도로 제가 국민당대표라고 하였던것이다.

지희겸은 그 노는 꼴이 가증스러워 당신네 국민당이 연변땅에 피 한방울은 고사하고 땀방울이나 흘린적이 있었는가, 연변의 철도는 연변인민이 접수관리하고있으니 좋게 말할 때 돌아가라고 면박을 주었다. 왕가는 불그락푸르락하다가 뺑소니를 쳤다.

이렇게 하여 인민의 손에 연변의 철도는 완전히 넘어왔으나 복구가 큰 문제였다. 극악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은 패망하여 도망가면서 팔도구, 왕청, 대홍구의 철교를 폭파하였고 수많은 역사들을 불태워버리고 급수설비들을 파괴하였다. 기관차, 차량, 통신시설들이 다 파괴되였다.

달릴수 있는 기관차가 조양천과 도문기관구에 있었지만 그것도 수리하지 않으면 쓸수 없었다. 기관차부속품들이 부족하였고 기계설비가 갖추어있지 못한데다 디젤유같은 기름조차 없어서 수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철도의 주인이 된 로동자들은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곤난을 극복하며 난관을 뚫고나갔다.

당시 조양천기관구에 전동기 한대가 있었다. 기계수리공들은 피대 여러개를 여기에 걸어 몇대의 기계를 돌렸다. 디젤유가 없어서 콩기름과 돼지기름에 비누를 섞어쓰기도 하였다.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47년 1월에 연변일대의 철도가 전부 개통되였다. 그런데 기관차에 땔 석탄이 없어 어떤 때는 석탄대용연료를 때기도 하였다. 여러 역의 급수소들

이 파괴되여 필요한 물을 우물에서 보충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차량도 파괴되였으므로 빨리 수리하여야 하였다. 도문차량단구내에는 일본군대가 버리고 간 차량들이 있었는데 성한것이 별반 없었다. 차량직장에는 기중기는 물론 쟈끼조차 없었다. 그래서 차량수리공들은 차바퀴를 바꿀 때에는 악전고투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부속품은 야장간에서 마치로 두드려 만들었다. 나무건조실이 없어서 로동자들은 목욕탕에 증기를 넣고 나무를 찌고는 해빛에 말리워 썼다. 1947년 《7.1》로동경쟁운동속에서 《군중》호라고 이름지은 첫 려객렬차가 수리되였다.

렬차가 수리되니 파괴된 철길, 철교, 차굴을 급속히 복구하는 문제가 더욱 긴절해졌다.

그때 목도(목단강—도문)선의 파괴가 더욱 혹심했다. 8.15후 삼도구철교가 복구되여 왕청까지는 차가 통했는데 왕청, 대홍구철교가 복구되지 않아 녕안으로 통할수 없었다.



기관차수리를 끝내고(1947년 4월)

철도국의 로동자들은 왕청, 대홍구철다리수리를 자체의 힘으로 하려는 결심밑에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아무런 교량수리설비도 없이 다른데서 쓰지 않는 레루를 뜯어 철길을 이어놓았다.

왕청, 대홍구철다리수리를 끝내고 이어서 녕안, 해란철다리를 복구하여 1946년 9월에 이르러 동만과 북만근거지가 철길로 이어지게 되였다.

라빈선은 동만과 북만근거지를 이어놓는 철길이며 해방군의 진격과 후퇴에 리용될수 있는 로선이였다.

복구에 동원된 로동자들은 자신이 탄원하여 스스로 어렵고 힘든 부문에 나선것만큼 수수밥을 먹고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엄동설한에 천막에서 숙식을 하면서도 누구하나 고생스럽다는 말한마디 하지 않고 일하였다. 그들은 손과 귀를 다 얼구면서도 교하로부터 천강까지의 구간에 전선대를 세웠고 가법으로부터 서란까지의 구간에서 철길, 철다리, 차굴을 다 복구하였다.

그때 조양천철도에서는 15명이, 도문철도에선 40여명이 동원되였는데 적기가 무시로 날아오는데다 엄동설한이여서 얼음장을 까고 물속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였지만 이들은 끝까지 해내였다.

철도가 복구되는데 뒤이어 철도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갖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군수품을 수송했다.

이 시기 남만에서는 동북민주련군과 남만군구가 근거지건설을 다그치면서 남만철도의 안전보위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동북민주련군에서는 무순 등지에서 운반하여 온 포탄과 탄약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을 사평전투장으로 보내고있었는데

리홍광지대의 교도대가 이 군수물자운반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였다.

그런데 이곳 남만철도국내에 잠입한 국민당특무들의 련락을 받은 적비행기가 날아와 매하구에서 휘발유차와 포탄, 탄약을 실은 차량을 련속 폭격하여 사평으로 보내려던 군수품들이 몽땅 불타버렸다.

1946년 5월말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료녕군구는 남만철도보위의 임무를 리홍광지대에 맡기였다. 리홍광지대에서는 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있던 500여명의 병력에 인원을 더 보충하여 료녕군구철도경비대대를 조직하였다. 이 대대는 5개 중대와 1개 경위소대로 꾸려졌는데 각 중대는 통화, 류하, 혼강, 림강, 집안 등 지구에 배치되여 중요역과 철다리, 차굴을 지켰다.

철도경비대대는 군사문제에서는 료녕군구의 지휘를 받았고 당사업과 간부관리는 리홍광지대에서 하였다. 철도경비대대의 대대장은 철도국의 국장이 겸임하고 정치위원은 료녕군구 군사대표가 겸임하였다. 렬차운행때에는 소부대를 파견하여 엄격한 군사관제조치를 취하였다. 이 료녕군구철도경비대대는 동북민주련군이 제일 처음 조직한 조선족으로 구성된 철도경비부대였으며 중국인민해방군 철도병단의 전신이였다.

철도경비대대의 임무는 철도 및 그 시설과 렬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며 아군이 퇴각할 때에는 철도시설을 파괴하여 적들의 수송선을 끊어놓는것이였다. 철도선이 길고 토비들의 교란이 심한데다가 철도국내부에 간첩들이 잠복해있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철도경비대대는 많은 곤난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사들에게 철도를 보위

하는 방법과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중국말학습도 부단히 시켰으며 매화구역폭격사건의 피어린 교훈을 잊지 않고 기관사도 자체로 양성하였다.

1946년 여름과 가을 팔도강에서 무송, 몽강쪽으로 뻗어간 산림철도연선에서는 적들의 철도파괴활동이 심하였다. 철도경비대대는 석인역에 소부대를 파견하여 역부근의 차굴을 지키게 하였다. 석인역은 큰 산으로 첩첩 둘러싸인 작은 역인데 그 일대에 토비들의 소굴이 있었다.

어느날 소부대가 차굴입구 숲속에 잠복하고있는데 어둠이 깃들무렵 한무리의 토비들이 차굴을 파괴하려고 슬금슬금 다가왔다. 순간 경비대원들이 불의에 달려들어 적들을 치고 한명을 생포하였다. 살아남은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산속으로 도망쳤다.

혼강지구를 책임진 중대는 혼강과 삼차자간의 철도연선에 부대를 파견하여 토비들의 습격을 방지하게 하는 한편 손가보자와 삼차자사이의 철도연선에는 전투소대를 주둔시켜 렬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토비들을 소멸하여 이곳 토비들이 철길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료녕군구의 중요한 재정원천인 목재의 수송을 보장할수 있었다. 철도경비대대가 조직된 후 남만철도의 류하, 통화, 림강, 집안 등 구간의 철길경비가 철저히 세워짐으로써 렬차의 정상운행이 보장되게 되였다.

1946년 10월 국민당군의 3개 군단이 통화를 공격할 때 철도경비대대는 류하와 통화사이의 철길을 파괴하고 여러 역의 물자들을 후방으로 소개시켜 적들이 철도수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국민당군이 1946년 12월초 집안을 공격할 때 철도경비대대는 그곳에 와있던 소화사령원과 사령부의 성원

들을 마지막 기차로 호송하고 철창자에 이르러서는 그곳 발전소를 폭파하여 적들의 철도수송을 크게 저애하였다.

1946년 12월 말 철도경비대대를 3개 중대로 개편하고 관영천을 대대장으로, 리가홍을 교도원으로 임명하였다.

1947년 하기공세의 결과 통화와 매하구가 해방되자 철도경비대대는 다시 남만철도를 복구하였다. 그후 동북민주련군은 매하구에 철도경비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료녕군구철도경비대대를 철도경비군에 편입시키였다.

1946년 봄 흑룡강성에서도 철도를 장악보위하는 호로군 한개 련대를 수화에서 조직하였다. 호로군의 임무는 철도를 장악하고 보위함으로써 철도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였다.

초기에 이들은 할빈—가목사구간의 철길을 보위하였다. 당시 국민당군대가 대부대로 동북지방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을 때여서 지방토호무리들이 이에 편승하여 철길과 철다리를 파괴하면서 악랄하게 준동하고있었다. 호로군은 이 토비무리들을 소탕하면서 파괴된 다리와 철길을 수리복구하였다. 그때 조선인청년들이 보위군부대에 수백명씩 계속 입대하였으므로 1946년 여름에 제2련대와 제3련대를 새로 조직하였다.

제2련대는 목단강에 주둔하면서 할빈과 수분하사이의 구간을 책임지고 제3련대는 계서에 주둔하면서 목단강과 가목사사이의 구간과 밀산—목단강사이의 구간을 책임지고 철도수송을 보장하였다.

호로군에서는 자체의 교도대를 조직하고 조선인간부 100여명을 양성하여 각 련대와 중대, 소대에 배치하였다. 당시 호로군은 3개 련대에 9개 중대를 가진 조선인부대로서 동북해방전쟁시기 토비무리들을 숙청하고 철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커다란 공적을 쌓았다.

1948년 7월 남만에 있던 조선인철도경비대와 북만에 있던 조선인호로군 3개 련대를 통합하여 동북인민해방군 철도병단으로 재편성하였다. 철도병단에는 4개 지대(사단급)를 두었다. 지대는 선로대, 교량대, 반항공대 등 전문업종부대로 구분하였다. 동북이 해방된 다음에는 동북인민해방군 철도병단의 이름을 중국인민해방군 철도병단으로 바꾸고 재편성하였다.

철도병단의 조선인철도병부대는 료심전역에 앞서 심양과 금주사이의 철도연선에서 군수물자와 전투부대의 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괴된 철다리와 철길을 복구하였다. 조선인철도병부대는 파괴된 통화철다리의 복구임무를 악전고투하면서 련속 전투를 벌려 끝냄으로써 렬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였다. 또한 심양—길림간 철도선에 있는 청원-무순사이 철길복구사업도 잘하였다. 청원남쪽의 10여리나 되는 선로를 복구할 과제가 제기되였을 때 강얼음을 까고 얼음구멍속에 들어가 모래를 파내면서 하루밤사이에 전부 복구, 수리함으로써 아군의 대부대가 이 철도선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무순을 해방하는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인부대 철도병들은 료심전역기간 홍수로 많은 철길구간이 파괴된것을 15일동안에 복구하라는 임무를 받은 다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고한 전투를 벌려 7일동안에 끝냄으로써 료심전역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 병단에서는 조선인부대 철도병들을 크게 표창하고 매 전사들에게 은전 5개씩 상금으로 주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공산당의 작전을 적극 도와주기 위해 동북인민해방군이 할빈으로부터 도문을 거쳐 우

리 나라 남양을 지나 동해안철도를 리용하도록 하고 고원, 양덕, 서포를 지나 신의주로 해서 다시 중국 단동쪽으로 빠지는 렬차수송을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앞서 벌써 중국 동북지방에서 싸우고있는 일군들과 련계를 가지시고 우리 나라 철도부문 전권대표를 할빈에 파견하여 이 작전을 원만히 보장하게 하시였다.

이때 할빈에서부터 도문으로 오는 철도구간에서 철도병들은 최대의 안전성과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적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처하여 철저한 방어를 할수 있게 준비하고 이 작전을 보장하였다.

이리하여 동북인민해방군은 금주해방전투, 흑산, 대호산전투, 심양해방전투 등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전동북을 해방할수 있었다.

1948년 10월에 준공된 송화강철다리수축공사는 많은 조선인철도병부대가 참가하여 완공하였다. 제4야전군의 대부대가 평진전역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관내로 진출하는것을 보장할 임무가 철도병단에 하달되였을 때 조선인철도병부대들은 대부대의 관내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행군으로 창리역에 도착하여 국민당군대가 파괴한 철길과 철다리를 복구하기 위한 전투를 밤낮으로 벌려 천진부근까지 렬차통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조선인철도병부대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제4야전군 대부대의 중국관내에로의 진출과 평진전역의 승리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로 되였다.

조선인철도병부대들은 중국인민해방군의 회해전역과 장강도하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진포철도선, 경한철도

선, 북녕철도선, 룡해철도선복구에 뛰여들었다. 안휘성 명광교는 길이가 400여m나 되는 큰 철다리인데 이 다리를 국민당은 3년동안에 준공하였다. 국민당은 저들이 건설한 이 철다리를 패주하면서 파괴하고는 반년 혹은 1년이 걸려야 복구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철도병부대는 3주일동안의 줄기찬 투쟁끝에 1949년 3월에 철다리를 개통시켰다. 이때에도 철도병단에서는 조선인부대를 크게 표창하고 매 전사들에게 은전 5개씩 상으로 주었다.

안휘성 장하대교는 길이가 408m이고 높이는 7.5m이다. 여기에는 20개의 높고 큰 다리기둥이 있는데 항일전쟁시기 국민당군이 일제에게 광활한 화북지구를 내주고 도망가면서 이 장하대교를 파괴한 후 일제패망후에도 복구하지 못하고있었다. 기둥 20개중 19개가 완전파괴되였다. 중국의 남과 북을 관통하는 대동맥과 같은 경한철도선의 파괴된 여러 철다리중 장하대교복구가 가장 큰 공사의 하나였다.

철도병단에서는 조선인철도병부대인 제4지대 제24선로대대에 철다리를 복구할 임무를 맡기였다. 조선인철도병들은 찬 강물에 들어가 낮에 밤을 이어 악전고투하여 3개월만에 이 다리를 훌륭히 복구함으로써 중국의 남과 북을 련결하는 대동맥을 이어놓을수 있었다. 병단에서는 조선인부대를 크게 표창하고 매 전사들에게 은전 4개씩 상으로 주었다.

다른 한 조선인철도병부대는 룡해철도선복구임무를 맡았다. 이들이 맡은 동관교는 지질이 매우 복잡하여 복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조선인철도병부대는 동관교를 제때에 복구하여 서북지구해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호남성에 들어가 200여m나 되는 동안교도 복구하여 서남지구해방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조선인철도병부대들은 광동성 동안현 자계철다리복구공사에서와 락하대교복구공사에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맡겨진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선인철도병부대들은 중국본토의 남쪽관문인 광동성과 해남도해방전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량철도선에 진출하여 파괴된 철다리들을 복구함으로써 해방군부대들의 남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전중국을 해방하는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에서는 철도병단의 조선인철도병부대를 가리켜 《해방군의 척후병》이라고 높이 찬양하였다.

복구해놓은 철길로 렬차를 타고 전방으로 달려가는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조선인철도병들에게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고 방금 복구해놓은 교량옆에 흙투성이, 기름투성이가 되여 서있는 그들을 보고는 렬차우에서 《적들과 용감히 싸워 전국을 해방하는 실천행동으로 〈척후병〉들의 수고에 보답하자!》라고 구호를 높이 부르며 지나갔다. 어떤 전사들과 지휘관들은 쌀주머니, 과자, 빵상자, 지어 군복까지 던져주었다.

그럴때마다 조선인철도병부대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중국혁명에 이바지하고있는 자신들의 투쟁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을 간직하였으며 기어이 중국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고 그리운 조국으로 기차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갈 그날을 그려보군 하였다.

이처럼 조선인철도병부대는 중국인민해방군 철도병단의 시초를 열어놓았고 철도보위와 철도복구건설에서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을 다 바쳤다.

국제주의전사들의 귀국

중국혁명의 승리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는 오성홍기가 펄펄 휘날렸다.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조선인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으로 나오게 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중국의 동북 목단강, 연변지방으로부터 3만여리를 피로 물들이며 귀주성과 해남도에까지 나갔다가 1950년 2월초 귀주성과 해남도를 떠나 2월 중순에 계림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조선사람들은 15사 3련대를 조직하였다. 이 부대는 계림을 출발하여 무창에서 배를 타고 장강을 건너 한구를 거쳐 호북성 무한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조선인부대들을 데려올데 대한 교시를 받은 한 일군이 여기까지 마중나와 그들을 인솔하고 정주시로 갔다. 당시 특수한 전투과업을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제외하고 제4야전군내의 전체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다 정주시에 집결하였다. 그때 하남성 정주시에 집결한 조선인부대 인원은 3련대를 제외하고도 2만 2 220여명이나 되였다.

3월 중순 어느날 정주시 광장에서는 조선인부대들로 독립 15사를 조직하는 의식이 있었다. 독립 15사에는 4개 보병련대, 1개 포병련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반땅크포병대대, 경위

중대, 야전병원이 있었으며 사단정치부와 참모부, 공급부가 있었다.

지병학(항일혁명투사)이 사단참모장 겸 포병련대장이였다. 광장에서는 조선인부대들의 전투위훈을 말해주는 110폭의 축기가 봄바람에 나붓기고있었다. 이 축기들은 동북지방의 토비숙청으로부터 3하강남 4보림강작전, 장춘포위전, 료심전역, 평진전역, 장강도하작전, 중남, 서남지구의 전투 등 간고한 여러 전투들에서 조선인부대들이 수여받은것들이였다.

당시 독립 15사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가운데 대공이상을 세운 사람만 하여도 2 000여명이 넘었고 그중 영웅칭호를 받은 조선사람만 하여도 100여명이나 되였으며 부대전체 인원의 85%이상이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있었다.

대렬편성의식에서 지휘관들과 전사들에 대한 표창사업도 있었다. 이 의식에서 제4야전군 정치부 주임 등자회는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사들이 이룩한 공훈을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무들은 3년반의 해방전쟁에서 간고분투하고 영용히 싸운 모범이였고 옹정애민의 모범이였으며 3대규률, 8항주의를 준수한 모범이였습니다. 조선민족의 아들딸들인 동무들은 조선민족의 자랑이며 또한 우리 중화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사들, 조선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고비들에서 혼란되였던 중국인부대와 중국사람들의 사상동향을 바로잡지 못하였을것이며 국내전쟁초기 동북에 조성되였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영웅적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중국이 곤난할 때 피로써 중국인민을 도와준것처럼 중국사람들도 앞으로 조선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지원병으로 나가 조선인민을 도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성대한 사열식이 있었다. 갓 태여났을 때에는 일본 패잔병들이 버리고 간 보잘것없는 무기로 무장하였던 대오가 이제는 땅크와 대포, 보총,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정규화된 부대로 자라나 지축을 울리며 나아갔다. 조선인부대 용사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조선민족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 중국혁명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한 국제주의전사라는 더없는 긍지와 영예감, 이제는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날 중국측에서는 조국으로 떠나가는 조선인지휘관들과 전사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조선인부대 15사는 주체39(1950)년 3월말 하남성 정주에서 직행렬차를 타고 4월 중순 조국에 나와 조선인민군 제7사로 개편되였다. 사천성 중경에 나갔던 47군의 조선인부대들은 주체39(1950)년 4월초 호남성 장사에 모였다가 호북성 무한을 거쳐 하남성 정주시에서 독립 4련대로 구성되여 주체49(1950)년 4월 20일경에 조국에 돌아와 조선인민군 제4사 18련대로 개편되였다.

모택동주석은 귀국하는 조선인부대에 각종 무기와 탄약 3정량과 해당한 군사장비를 보내주도록 지시하였다.

전중국을 해방하는 전쟁에서 단련된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또다시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9(1950)년 5월 12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하였다가 귀국한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보병련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국 동북지방을 해방한 다음에도 많은 조선청년들이 중국관내에로 계속 진격하여 양자강도하작전에도 참가하고 장사, 중경을 비롯한 많은 지역을 해방하면서 멀리 중국의 남단에까지 진격하였는데 그러고보면 조선청년들은 중국을 해방하는 큰 전투들에 거의다 참가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에 참가한 조선청년들은 수만리장도에서 포연탄우속을 헤치면서 용감히 싸워 중국의 해방과 인민중국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제주의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맺 는 말

참으로 중국의 현대사에서 전환의 계기로 된 동북해방전쟁과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운동이 시작된 이래 국제주의적지원의 가장 빛나는 모범이였으며 조선의 애국자들이 중국대지에 뿌린 선혈은 오성홍기의 색조를 더욱 진하게 하였다.

하기에 중국의 당과 인민은 우리 인민이 미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저없이 지원군을 내보냈으며 오늘도 중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처럼 잊지 못해하며 조선인민과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것이다.

이 책에서는 중국혁명에 공헌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뜨거운 동지적원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당시의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여기에 쓴 내용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혁명에 공헌하신 업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대해 독자들의 량해를 구한다.

앞으로 연구가 심화되고 자료가 더 수집되면 보다 풍부한 책이 나오게 될것이다.

부 록

중국인민해방전쟁지원 주요년표

주체34(1945)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 동북지방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을 파견할데 대하여 교시
주체34(1945)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에게 중국혁명을 도와줄데 대하여 교시
주체34(1945)년 9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중국 연길시에 도착
주체34(1945)년 9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지시에 따라 연길에 도착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 파견지로 출발
주체34(1945)년 9월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어 연길에서 연변로농청녀총동맹 결성
주체34(1945)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에 의하여 《길동보안사령부》 조직
1945년 9월 25일	할빈보안총대 조선독립대대 조직, 강건과 련계를 맺고 활동

1945년 10월	강건의 조직지휘밑에 연길포로수용소에 잠입해있던 이전 헌병, 경찰, 특무 60여명을 적발숙청
1945년 10월	화룡탄광에 침입한 토비들을 숙청하고 탄광을 해방
1945년 10월	목단강군구 14련대 3대대와 15련대 3대대를 조직
1945년 10월	반석지방에서 박정덕, 최영환에 의해 조선인들로 한개 대대조직
1945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강건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연변위원회 창설, 강건이 초대서기로 활동
1945년 10월 27일	연변로농청녀총동맹을 연변민주대동맹으로 개칭
1945년 10월말	남만에 조직된 조선인부대는 사단력량으로 자라나 부대명칭을 리홍광지대로 개편, 이 시기 평안북도에서 수천명의 조선청년들이 중국에 건너가 리홍광지대에 망라
1945년 11월초	길동보안사령부를 길동분구사령부로 개편
1945년 11월	목단강군구 16련대와 17련대 조직, 매련대의 3대대는 조선사람들로 조직
1945년 11월	길림군구 72련대 조직, 처음에 송무선이 500명으로 제7대대 조직, 그후 제7지대로 이름을 고치고 부대를 재편성하고 송무선이 대대장을 하였으며 강건과의 련

	계밀에 길림군구 72련대로 개편하고 송무선이 련대장임무를 수행
주체34(1945)년 11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의주에서 중국의 료동군구사령원 소화의 요청으로 단동에 건너가시여 동북해방전쟁과 관련한 작전을 토의하시고 당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하게 해결할 방도 제시
1945년 12월	북만에서 사문동토비집단과의 첫 전투 진행
1945년 12월	삼도만토비총지휘부를 습격
1945년 12월말	최광이 안진유부대(토비부대)에 들어가이 부대를 중립시키는데 성공
1946년 1월초	연길현 의란구전투 진행
1946년 1월～3월	향수진을 비롯한 목단강주변 농촌해방
1946년 2월 3일	장개석의 지시에 따라 무장해제당한 일본관동군과 국민당군 1만 2 300여명의 무력이 통화에서 일으킨 반혁명무장폭동 즉시 진압
주체35(1946)년 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기를 지원해줄데 대한 모택동동지의 부탁을 가지고 온 진운을 평양에서 접견하시고 무기지원문제 승인, 그후 10만여정의 무기와 포 그리고 포련대, 공병부대를 조직하여 지원
1946년 봄	흑룡강성 수화에서 호로군 (철도경비부대) 한개 련대 조직

主체35(1946)년 3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집무실에서 동북해방전쟁에 필요한 군복문제때문에 찾아온 중국 동북민주련군 길동분구사령부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을 접견
主체35(1946)년 3월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보중과 동북에 파견되여있는 강건과 박락권을 함경북도 남양에서 접견하시고 동북해방의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 동북의 방어진지굴설에 대한 현명한 방략 제시, 한편 항일혁명투사 박영순을 중국에 파견하시여 우리 나라와 연변지구와의 무전과 전화결속을 할수 있도록 할데 대한 지시 하달
1946년 4월14일～ 4월 18일	제1차 장춘해방전투 진행,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이였던 박락권 장렬하게 희생
1946년 4월	압록강목재정리와 관련하여 압록강연안의 도와 중국의 성사이에 계약 체결
主체35(1946)년 4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에 지원할 천문제로 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령 제50호 《면직물일체(광목, 무명 등등)수집회송에 관한 건》 하달
主체35(1946)년 4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령 제51호 《면직물통제를 강화하여 만포진무역소에 수송함에 관하여》 하달

1946년 4월～6월	돈화, 교하지방전투 진행, 박근식련대가 적은 인원으로 돈화계선까지 진격하여 할바령을 위협하는 적의 2개 사단과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을 때 최광부대가 라자구전투를 끝낸 다음 돈화—교하방향으로 진출하여 대부대기동전으로 적들을 기습소멸, 길림시를 포위하고 적들을 견제함으로써 장춘해방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
1946년 5월초	사문동부대 포위소멸(사문동은 도망)
1946년 5월 15일	목단강에서 일어난 반혁명적무장반란을 진압하고 세린하, 수분하를 해방
주체35(1946)년 5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 동북민주련군 길동분구사령부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을 접견, 부부장이 3 000여벌분의 군복천과 의약품을 해결받은데 대한 보고를 하고 떠나려 하자 그에게 군복 1 000여벌을 따로 주시며 중국에 들어가 경위대원들과 군정간부들에게 공급하도록 지시
1946년 5월말	료녕군구 철도경비대대를 조선사람들로 조직
1946년 6월	남양철다리를 통해 기계와 물자 300여차량 훈춘으로 운반
1946년 7월	대부대협동으로 사문동부대를 격파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 림구, 계서 해방
1946년 7월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외적으로는 《평양리민공사》)가 사업 시작

주체35(1946)년 8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북민주련군의 군복천을 해결해주시기 위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령 제141호 《광목이양에 관한 건》 하달
주체35(1946)년 8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북민주련군에 무기를 신속히 보내주시기 위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령 제149호 《특별화물수송에 관한 건》 하달
주체35(1946)년 9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와 중국 동북국사이에 화물수송협정 체결
주체35(1946)년 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북민주련군측으로 의거한 국민당 제60군 184사가 우리 나라 경내를 통과하여 북만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조치 취하심
주체35(1946)년 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일지를 만나주시고 동북민주련군의 2만여명의 부상병들과 가족들, 2만여t의 전략물자를 우리 나라 경내를 통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대책 취하심
1946년 10월 하순 ～11월초	발리, 호림, 림구, 이도하자, 가목사구간 수백리 대포위전 진행
주체36(1947)년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의 영안주물공장과 탄약공장을 우리 나라의 아오지(당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 취하심
주체36(1947)년 2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 목단강지구 조선인민주련맹대표 위문단성원들을

접견하시고 그들이 주체34(1945)년 9월에 주신 교시를 받들고 재중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

주체36(1947)년 3월 중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 목단강시에서 사업하던 해외동포들을 만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동북지방의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동포자녀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 등 물자를 보내주심
주체36(1947)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북에 파견하신 한 일군을 접견하시고 당시 극좌적으로 벌어지고있던《정풍운동》을 바로잡을데 대한 지시 하달
주체36(1947)년 3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집무실에서 서기에게 평안북도 벽동군 대안에서 중국인부대들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승리할수 있도록 각 방면으로 지원해줄데 대한 지시 하달
주체36(1947)년 3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 주보중을 남양에서 만나주시고《정풍운동》을 바로잡을데 대한 대책 협의
주체36(1947)년 여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의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동북민주련군에 보낼 신발을 우선 생산보장할데 대한 지시 하달

주체36(1947)년 여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일지를 접견
1948년 1월 1일	동북민주련군을 동북인민해방군으로 개편
주체37(1948)년 2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에 파견되여가는 전기기술자들을 접견
1948년 3월 13일	사평해방
주체37(1948)년 7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인민위원회 교통국 책임일군에게 할빈에 있는 동북인민해방군부대의 인원과 군수물자를 도문에서 남양을 거쳐 고원, 양덕, 서포, 신의주를 지나 단동까지 수송을 철저히 보장해주도록 지시
1948년 7월	남만의 조선인철도병부대와 북만의 조선인호로군 3개 련대를 통합하여 동북인민해방군 철도병단으로 재편성
주체37(1948)년 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 주보중과 그의 안해 왕일지, 딸 주위를 접견
1948년 10월 중순	금주해방
1948년 10월 19일	제2차 장춘해방전투 승리적으로 결속,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전투에 한개 포병련대 보내주심
1948년 10월 하순	흑산, 대호산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
주체37(1948)년 10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 동북에 파견되여 사업하는 림춘추와 담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인민의 해방투쟁을 도와주는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의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야 할 구체적인 방도 제시
1948년 11월	동북인민해방군을 중국인민해방군으로 개칭
1948년 11월 2일	심양해방
1948년 11월	영구해방
1948년 11월	산해관을 해방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관내로 진격
1948년 11월 6일～ 1949년 1월 10일	장강이북 화동지방에서 회해전역을 벌려 장강이북지역 완전해방
1948년 12월 5일～ 1949년 1월 31일	평진전역
1949년 1월 15일	천진해방
1949년 1월 31일	베이징해방
주체38(1949)년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의 왕효명을 접견하시고 중국혁명을 끝까지 도와줄데 대한 문제 협의
주체38(1949)년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해방군에 속해있는 조선인부대들이 중국혁명을 끝까지 도와줄데 대하여 교시하시고 그를 관철하기 위해 한 일군을 천진에 파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선포

1949년 10월 6일	조중외교관계 설정
1950년 4월 30일	해남도해방
주체39(1950)년 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귀국하는 조선인부대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군을 중국에 파견
1950년 3월 중순	중국의 정주시에서 조선인부대들로 독립 15사 조직
주체39(1950)년 4월초	중국 사천성 중경에 나갔던 조선인부대들은 호남성 장사에 모여 무한을 거쳐 정주시에서 독립4련대로 구성되여 주체39(1950)년 4월 20일 조국에 돌아와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보병련대로 개편
주체39(1950)년 5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하고 귀국한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보병련대 지휘관 및 병사들과 담화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

집 필: 길재준, 리상전

편 집: 탁성일, 안수영

낸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주체105(2016)년 9월

ㄱ-683633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

ISBN 978-9946-0-1494-4

9 789946 014944